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책임연구자: 이금순(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자: 강신창(선문대학교)

김병로(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수암(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안혜영(국립보건원 교육연수부)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윤여상(영남대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우영(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임순희(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최의철(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28일

발 행 2003년 12월 31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1

© 통일연구원, 200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ISBN 89-8479-158-X 93340

가격: 원

요 약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경향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필요성이 일부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적응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해 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리 사회 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탈북사태가 국제적 시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의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1993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시안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여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자들에 대해 경제상태 등 외연적인 적응실태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설문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의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여 1993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한

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적응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착지원센터 수용기간 및 거주지 정착기간에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자 51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하나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북한이탈주민관련 문항 3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정 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론해 내고자 하였다. 참여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대상자들이 평소에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를 세부사안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세부집단별로 적응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보다 집단별로 세분화·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실무자,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003년도 7월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835명이고,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를 제외하면 3,59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4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도에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늘어 7월 말까지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명에 비해 12%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2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의 입국증가로 여성이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 면에서는 20~30대가 61.5%로 예년처럼 청년층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76.9%)이며,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44.2%)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기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입국자와 비교하여 출신성분, 입국목적, 입국경로, 성별분포와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첫째,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 입국자의 경우 가족단위 입국자가 단독 입국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내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내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1990년 이전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10%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20-40%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312명이었으나 이 중 여성은 126명으로서 40.4%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입국자 598명 중 여성은 354명으로서 59.2%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입국자의 비율은 6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화 경험은 이들에게 단독으로 남한행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어의 습득과 현지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남한 행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지 적응능력을 상당 수준 갖고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증가는 새로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을 매우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20-40대 연령층이 70-8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령층이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그리고 노인문

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해외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외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후 국내 입국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4-5년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5-6년이 25.7%, 1년 미만 12.1% 순서이며,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11개월이었다. 이것은 2002년의 경우 3-4년 47.4%, 1년 미만 20.9%, 1-2년 19.5%의 순서이었으며, 평균 체류기간 3년 2개월과 비교할 경우 점차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세가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아닌 기존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체류 탈북 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또는 한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인 탈북 여성이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남성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 후 아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이후 자신도 국제결혼 등의 형식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남성의 경우에도 제3국 체류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입국 이후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여섯째, 탈북과 입국 목적의 변화 추세이다. 최근 입국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기존의 탈북 사유와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식량구입과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

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단순히 식량구입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정치적 망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자 성격의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1. 적응의 의미 및 이론

일반적으로 적응은 인간이 새로운 환경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은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적응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기대·요구 등에 개인이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한사회 일반 구성원들과 동등한 기회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함께 욕구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에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과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인간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사회적응이라 한다. 즉 사회적응은 개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화를 의도적으

로 추구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며,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 문화양식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응된 인간은 정상 인격을 소유하며 정상적으로 욕구 충족을 하게된다. 인간에게서 욕구의 충족은 적응으로 연결되나, 욕구의 불만족은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야기한다. 인간이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면 공격적 행동을 하게되고 집단행동화 하는데, 특히 개인의 스트레스나 불만이 사회운동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이 함께 성숙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적응은 태도변용의 한 형태이면서 그 지향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응 실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전반적인 적응실태

가. 일반적 특성

우편설문대상자 2510명중 설문에 응답한 78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50.8%)과 여성(49.2%)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7%로 가장 많고, 20대(23.7%), 40대(18.9%), 50대(9.4%), 60대(7.7%), 10대(4.6%)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무학(0.5%)과 인민학교졸업(4.3%)이 5%미만이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자(62.0%)가 대부분이며, 전문학교(16.5%), 대학교 이상(16.7%)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국내체류기간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1년 이하인 경우가 300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며, 2년 미만인 경우 29.2%, 3년 미만인 경우 15.4%를 차지하며, 4년 미만과 5년 미만이 각각 6.7%와 3.3%로 나타난다.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즉 1998년 이전 입국자의 경우는 43건으로 전체의 5.6%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입국자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체류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설문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입국한 경우 사회적응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더욱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기간은 1년 이하가 160건으로 21.4%, 3년에서 4년 이하가 156건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2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는 17.8%, 4년 이상 5년 이하가 16.4%, 1년 이상 2년 이하의 경우는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11.3%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432건, 56.7%)가 기혼인 경우(330건, 4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입국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가 47.8%이며, 친척(0.6%)이나 친구(14.4%)와 같이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는 289건인 34.8%이다. 현재 가족과의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신인 경우가 35.7%이며, 가족단위, 부부, 양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40.2%, 19.5%, 1.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63.2%로 그렇지 않은 경우(3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가장 높은 45.0%를 차지하고, 경기, 부산, 대전, 경남, 충남, 강원, 인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여건 및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높은 비율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관적 적응도

(1) 현재만족도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사회적응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60.5%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7%만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입국 시에 기대하였던 사항과 현재 필요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44.1%), 신변불안 해소(24.5%), 물질적 풍요(13.9%), 본인의 교육기회(8.7%) 순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 및 경제적 여유(28.8%), 가족들의 신변확인(28.3%)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14.2%), 자녀교육(12.9%), 자신의 학교교육(10.8%) 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42.0%)이 불만족(19.9%)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780명)중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낮아 응답자의 수가 276명에 그치고 있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만족도로 규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건강상태

개인의 사회적응실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건강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1.9%에 그치고 있으며, 나쁘다는 경우가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신체질환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본인들이 느끼는 건강상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중 하나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적응교육, 취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강검진에 나타난 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객관적 적응도

(1) 경제적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모든 종류의 수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51-100만 원의 경우가 45.6%, 50만 원 이하가 41.3%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665명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월 평균 소득에 생계비보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의 설문조사결과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월평균소득,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직종을 묻는 설문에 무직(41.5%), 기타(20.6%), 학생(18.7%) 등 대부분(80.3%)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비율(36.1%)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능력부족(31.9%)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22.5%) 정규직 취업을 기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취업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원의 비중이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동화

이웃 및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에 ‘매우 잘 어울린다’(13.4%), ‘잘 어울리는 편이다’(34.7%) 등 긍정적 응답비율이 48.1%인데 비하여 ‘어울리지 못한다’(8.5%),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4.0%) 등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12.6%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웃, 직장동료들과 대체로 잘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이상 4년 이하 거주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3년 이하 외국에서 생활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가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비중이 결혼한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69.2%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6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목적과 관련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7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어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국 과정에서의 도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IV.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북한이탈주민이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정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 긍정(26%)보다는 부정적(45.5%)인 평가가 높다. 부정응의 원인으로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37.7%), '삶의 목표 불확실'(22.6%),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15.1%),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11.6%), '기타'(6.3%), '안이한 삶'(5.6%), '죄책감 때문에'(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거주 기간별로 7년 초과 8년 이하 응답자들은 '삶의 목표 불확실'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생활 기간별로 6년 초과 7년 이하 응답자들은 삶의 목표 불확실, 안이한 삶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요인을 보면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가장 많이 꼽아 약 39%로 나타났으며 한국 주민의 냉대와 편견은 약 23%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약 15%,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은 9%로 분포되었다.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본인의 노력과 인간관계에 있다는 측면이 약 60%이상 지적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약 2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고민과 관련하여 취업문제 39.7%, 가족문제 26.6%라고 답변하여 취업과 가정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

나고 있다. 친구관계 9%, 진학문제 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족문제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취업문제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한 고민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진학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부가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가족 및 친척’(35.7%), ‘신변보호담당관’(24.2%), ‘없다’(14.0%), ‘탈북동료’(11.0%), ‘기타’(6.8%), ‘거주지보호담당관’(3.4%), ‘동네이웃’(2.3%), ‘하나원 담당관·민간단체’(각 1.3%), ‘취업보호담당관’(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 기간별로 1년 이하 응답자는 ‘신변보호담당관’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입국 후 현재까지 지내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을 보면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 약 40%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나 자신의 노력’은 27%로 나타났다. 그 외 종교 및 학교, 민간단체가 약 11%이며 가족 및 먼저 입국한 동료는 각각 약 4%정도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3년 이상이 약 33%로 가장 높고 1년 정도가 약 21%, 3년 정도는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기간이 길수록 적응이 잘 된다고만 볼 수 없으며 개인별 특성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부요인 평가

가. 사회적 편견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51.4%가 ‘무관심’하다고 답하였으며, ‘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41.0%로 나타났다. 한국사람들의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보통’46.1%포함).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23.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9.6%)보다 남자(13.7%)가 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찬성 등 긍정적 응답이 32.9%, 다소 반대 등 부정적 응답이 30.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표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5%로 상당수가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여 출신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출신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력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0.7%, ‘말투가 달라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5.6%)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이상 4년 이

하 거주자의 경우 ‘북한에서 왔기 때문’ 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3년 이상 4년 이하를 제외하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편견을 당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7.6%를 차지하여 2순위 이유로 꼽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한인의 편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의 차이 극복보다는 ‘북한출신’이라는 편견의 극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2003)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애를 느낀다’는 비율이 58%,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가 12.9%, ‘적대감이 느껴진다’의 경우 5.5%, ‘별감정이 없다’는 21.7%,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9%로 나타난다. 성별 응답비율을 보면, 남성(61.7%)의 경우 여성(54.2%)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32.5%)이라는 평가가 부정적(2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수(40.7%)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태도에 대한 설문에는 ‘돕겠다’는 응답이 49.5%, ‘관계기관 통보’가 40.5%,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1%,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경우가 4.9%로 나타난다. 남성(57.8%)이 여성(41%)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나. 가족의 신변불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하고자 한다. 가족들의 신변불안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

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90.1%)가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입국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본인의 정착금으로 후지불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송금하는데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취업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이 사회적응과정상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41.5%나 된다. 학생(18.7%)을 제외하면,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39.8%에 불과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4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직의 비율이 11.8%나 높다.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능력부족(23.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16.5%),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11.8%) 등을 지적하였다.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신의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대학 학력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리는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취업자 가운데는 정규직(36.1%)에 비해 비정규직(5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

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능력부족(31.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22.5%), 취업난(20.9%)을 꼽았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에 온 경우는 비정규직 취업 원인을 ‘취업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가족의 일부 또는 친구·친척과 함께 왔거나 단독으로 온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보호비 수급’을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았으며, 독신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부족(24.4%)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14.4%), 급여취약(10.4%), 출퇴근 문제(7.2%)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8.8%나 된다.

라. 결혼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소 찬성 이상이 52.0%로 다소 반대 이상 17.7%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40대 이상이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결혼의 경험이 있으면서 남한사회를 바라보는 연령층이 남한주민과의 결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자, 가족 동거자 보다 독신자, 미혼자가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대의 선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 27.8%, '북한이탈주민' 28.4%, '출신지역이 상관없다'가 27.3%라고 답변하고 있다.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 결혼 상대 선택에서는 남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 제3국 체류경험

제3국(중국 등) 체류기간이 한국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51.0%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자 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이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중국 조선족(43.8%)', '선교사(32.8%)', '기타(14.4%)', '입국브로커(6.5%)', '재외공관원(2.6%)'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는 5년 초과 6년 이하, 7년 초과 8년 이하 응답자들은 '선교사',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학력과 경력

한국사회 적응에 북한의 학력이 도움된다는 사람(32.6%)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43.9%)이 11% 가량 많았다. 북한의 학력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39.2%가 북한의 학력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데 비해, 여자는 25.3%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한편, 남자의 37.8%는 북한의 학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여자는 50.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

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북한학력의 역할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학력에 대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이 남한생활을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의 생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북한의 학력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26.8%)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도움이 된다(55.9%)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아,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북한의 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북한의 학력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거주 기간이 1-2년인 사람들은 북한의 학력이 남한생활 적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남한생활 정착 초기 1-2년간은 북한의 학력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 배운 교육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학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도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람(30.0%)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40.2%)이 10% 정도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남자는 36.9%가 북한의 직장생활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25.8%만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남자의 36.1%가 응답한데 비해, 여자의 49.7%가 응답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 직장경력역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 직장경력에 대한 평가는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한국거주 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 사람들은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하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급작스런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에서의 경험이 거의 소용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생겨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이 남한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V.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59.8%)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시한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5.8%)보다 남자(7.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불만내용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불만이 취업보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취업보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의무고용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에 대한 기대로 평가된다.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하나원 교육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222명(31.9%), 다소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216명(31.1%)로 과반수가 넘는 반면 다소 부정적이었다라는 응답자 49명(7.1%),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자 19명(2.7%)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적지 않고(189명, 27.2%)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63.3%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원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198명(31.5%)이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63명(25.9%)이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실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람이 152명(24.2%), 한국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47명(7.5%)의 순이었다. 정보제공이나 기능 실습 등 실용적인 차원의 응답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은 북한 이탈주민이 가장 관심있는 것이 생활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나원 생활의 불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교육운영방식을 꼽은 사람들이 228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1명(23.3%)이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미비를 꼽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부족(93명, 14.3%), 강의식 수업(72명, 11.1%), 폐쇄적 운영방식(61명, 9.4%), 관리자들의 태도(44명, 6.8%)의 순으로 불만 요소를 꼽았다. 관리자들의 태도나 운영방식 등 하나원 운영에 관련된 요소들보다 교육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양쪽에 고루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한 하나원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원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현재의 교육기간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문제는 하나원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단기간의 하나원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하나원 교육중 한국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4.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하나원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이던지 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4.9%의 비율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불만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과 관련된 항목(강의 방식, 교육운용방식)에 대한 불만이 46.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강의 내용에서 한국사회 이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교육생의 욕구에 비해서는 강의의 내용이나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경우가 약 54%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포되었으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약 13%정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군,구청)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경우는 약 31%정도이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약 22%정도로 분포되었다. 이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한 경우가 약 29%정도이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약 26%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신변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만족의 분포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도움의 개발이 요구된다.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현재 하나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혹은 단체의 수준

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72.6%라는 대다수가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우만족 280명, 40.5%·다소만족 222명, 32.1%).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2.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비교적 하나원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착단계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3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의 경우는 12.3%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53.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연령대별로 10대 응답자들은 1명(‘매우 불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답하였다.

VI. 적응지원인력의 평가

1. 보호담당관의 평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보호담당관의 전반적인 평가는 ‘사회적응을 못 한다’가 140명(66%), 그 다음이 ‘보통이다’가 57명(26.9%)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잘 한다’는 경우는 한 건의 경우도 없었고, ‘적응 한다’가 11명(5.2%)으로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다른 담당관들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잦은 접촉으로 그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놀고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 내 학력 및 경력’(37.3%)과 ‘가족동반여

부'(29.4%)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취업보호담당관은 '중국 내 체류경험'이 사회적응과정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과 특히 여성보호담당관은 '중국 내 체류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많은 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체류 시 가진 직장이나 생활 양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중국 체류 시 습득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개인관계의 문제점 또는 중국 등에서 습득한 좋지 않은 사고나 행동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데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보호 및 취업보호담당관(20-21%)은 신변보호담당관(10.9%)보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빈도수가 많았다. 이러한 지적은 지역별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 경기지역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 다음으로 능력 부족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 태도나 의지 부족은 곧 정부와 남한 사회에 대한 의존과 막연한 기대로 간주되기 쉬우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보호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러한 태도는 과도기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와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남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전반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다수인 55.7%이고, 직업훈련은 27.4%, 심리적 안정은 9.9%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부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 북한식의 '보호 및 의존적인 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거나, 20대의 젊은 층과 가족의 책임을 지는 30대, 여성들이 사회적응에 용이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의 요인으로 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지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보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체제가 다른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 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교육에서 남한 사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에서 '별로 없다'가 95명(44.8%), '보통이다'가 67명(31.6%), 그리고 능력이 '조금 있다'가 27명(12.7%)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담당관 모두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하나, 신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이유 중에서 주위의 권유(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가 91명(42.7%)으로 가장 많고, 취업보호제(고용유지지원금)때문인가 57명(26.9%), 그리고 인력난 때문으로가 38명(17.9%)이었다.

신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위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반면, 취업보호담당관의 절대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71%)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담당관의 개인적인 차이 또는 직업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보호담당관도 취업보호담당관처럼 고용유지지원금(51.4%)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능력 때문이 아니고 권유나 취업보호제 때문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에 문제가 있고, 직장을 얻은 이후

에도 능력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차별 또는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도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적하듯이 직장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것은 취업의 불안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기업들에 대한 고용관련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보호담당관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보호담당관(신변, 거주지, 취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간담회 등 정례적인 모임 또는 정보 교환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도 형식적이고 관계부처의 관심도 부족하여 지원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와 성취동기가 약하고, 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기초생활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을 얻으려는 동기 부족의 요인인 기초생활보호제에 따른 현금급여와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가 문제로 남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권한 위임과 함께 예산도 시급히 위임하는 제도적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과로 업무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정착지원과 국민기초생활법상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응 정도에 따라 지원제도에 차등을 둬으로서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활동연령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기초생활보장을 5년에서 3년으로), 남한

의 영세민에 준하는 지원 또는 지원 중단 등을 통해서 정착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극한 처방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착금은 과도하고 이를 장기 저리 대부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관민 기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적응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관(신변, 거주, 취업업무를 통합)을 설립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원의 교육기간이 짧고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퇴소 후에도 6개월-1년 정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내용에서도 남한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간 중 남한의 민박가정에 투숙시키는 과정을 두어 남한사람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주변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응에 대한 능력 개발과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회적응 배양 및 훈련도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시험적으로 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알선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배정 시에 취업이 용이한 공장 등이 많은 곳으로 우선 배정하고 배정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실무자의 평가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51명 중 적응을 못한다는 응답은 54.9%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하다. 응답결과는 하나원 근무자와 정착지원과 근무자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나원 개소 1주년이 지난 2000년 8월 하나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윤여상의 동일 조사결과(대체로 적응 20%, 대체로 부적응 80%)와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담당부서 실무자들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된 것을 순위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1순위로 제시된 것은 중국 내 체류경험(30.6%), 가족동반 여부(22.2%), 연령(11.1%), 출신성분(8.3%), 그리고 성별과 북한 내 학력 및 경력(2.8%)의 순서이다. 그러나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북한 내 학력 및 경력(39.4%)과 가족동반 여부(30.3%)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 내 체류경험, 가족동반 여부, 북한 내 학력과 경력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실무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5.9%, 대체로 만족 58.8%, 만족도 불만도 없음 17.6%, 대체로 불만 15.7%, 매우 불만 2.0%로 나타나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매우 만족 29.9%, 대체로 만족 29.9%)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자와 정책대상자 모두가 상

당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호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실무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9.4%에 불과한 반면에 신뢰도 불만도 아님 45.1%, 대체로 불신 23.5%, 매우 불신 2.0%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착지원 업무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무자들의 불신 수준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방법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대상자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자신들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 9.8%, 대체로 신뢰 58.8%, 신뢰도 불신도 아님 27.5%, 대체로 불신 3.9%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지만 자신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만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54.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 당시 만족하는 비율 73.3%와 비교하면 더욱 낮아진 것이다. 실무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과 이들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관리가 어렵고, 이들의 과잉 기대수준과 심리적 불안정성, 공격적 성향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을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업무 만족도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본원과 분원 근무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획부

서와 실제 집행부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의 업무 만족 수준은 전체 공무원 업무 만족도와의 비교가 필요한 사항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정부 내 10여개 유관기관들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정착 지원 실무자들은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3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는 통일부가 총괄을 맡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각 기관별 수직적 위계 구조보다는 상호 수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의 총괄 기능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무자들은 취업보호제도와 거주지보호제도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거주지보호제도의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취업보호제도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전혀 없지만 거주지보호제도는 11.7%가 제시되고 있다. 업무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의 인식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실무자들은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지 부족(53.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동과 이들에 대한 불신을 다음 순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저항과 돌출행위, 그리고 이들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부족을 지적한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업무 대상자 이해를 위한 심층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자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보호담당관(56.3%)과 동료 이탈주민(29.2%)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동료(8.3%)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4.2%), 사회복지관(2.1%)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의 순위는 사회적응 안내 및 조언자(58.3%), 취업알선자(25%), 문제해결사(10.4%)로 제시하였으며, 신변보호자와 민간단체와의 연계자로서의 역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변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역할은 사회적응 가이드와 취업알선자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 가이드와 취업알선자 역할을 신변보호담당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역할 중에서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역할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실무 담당자들은 민간과의 자매결연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당시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 80%보다 다소 상향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직업훈련(56.5%)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개선 시 직업훈련과 취업제고가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6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적응방법(18.4%)과 정착지원 실무절차(8.2%)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중국과 북한지역에 잔여가족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잔여 가족을 국내 입국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4%,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0%,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28%로 나타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8%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관계자들이 잔여가족의 입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가족의 재결합이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하며 직업능력이 없다는 평가는 4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직업능력이 낮거나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32.7%)과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자의 권유(30.6%)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것은 자체의 인력난 때문보다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주변 인사들의 사적 부탁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는 이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실무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가 매우 도움이 된다 9.8%, 조금 도움이 된다 21.6%, 보통이다 7.8%, 도움이 안된다 31.4%, 전혀 도움이 안된다 29.4%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 방식은 긍정적 결과보다는 자립의지를 약화시켜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심층면접 결과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취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많이 도움된다 31.4%, 도움된다 52.9%, 보통이다 15.7%로써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7%,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0.6%, 보통이다 13.9%이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사후 평가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담당자, 그리고 대성공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북한이탈주민과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내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체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은 본인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세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신뢰도와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해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직장내 차별대우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자의 평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은 응답자의 52.9%인 27명이 '적응을 못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적응한다'는 응답은 7명(13.7%)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4명(27.5%)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에 응한 민간단체의 한 실무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를 백분율로 표현하면 가장 높게 잡아 30%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13.7%만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눈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어울림'(28명, 54.9%)과 '매우 잘못 어울림'(5명, 9.8%) 등 총 33명(64.7%)이 남한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남한주민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5.9%)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실무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을 매우 선별적으로 사귀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 없느냐를 판단하여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원인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자신의 소극적 태도’(26명, 51.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9명, 17.6%),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편견’(8명, 15.7%) 등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을 남한사회의 내적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앞 장에 분석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 원인을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크다’(37.7%)는 점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적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자 면담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받기 때문에 처음 1-2년간은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며, 3-4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뀐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족문제’(22명, 43.1%), ‘경제문제’(9명, 17.6%) 등이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족문제’(25.3%)와 ‘경제문제’(25.8%)로 비슷하게 응답한 반면, 보호담당관들은 ‘경제문제’(35.8%), ‘가족문제’(25.1%)로 보았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문제’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실무자들도 현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앞서 지적한대로 자원봉사

자들이 주로 40-50대 중년 여성들로 가족의 유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동반여부’(17명, 33.3%)를 가장 중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에 중요한 변수는 ‘북한 내 학력 및 경력’(11명, 21.6%), 연령(7명, 13.7%) 등이 지적되었다. 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북한 내 학력 및 경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동반여부’를 주요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가족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가족동반여부’를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점이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동반여부’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주로 40-50대 여성들이라는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40-50대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으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서 가족의 역할을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동반여부가 남한생활 적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가족’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33.3%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동반여부’를 꼽았고, 43.1%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로 ‘가족문제’라고 하는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적응과정에서 가족변수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경제문제’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에서 ‘가족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35명 (68.6%)으로 가장 많고, 1명은 ‘매우 만족’(2.0%)하였으며, ‘만족도 불만도 없음’(7명, 13.7%), ‘매우 불만’(2명, 3.9%) 등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2-3년의 경력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35명, 68.6%)로서의 역할이며, ‘민간단체와의 연계자’(7명, 13.7%) 혹은 ‘문제해결자’(3.9%), ‘신변보호자’(1명, 2.0%) 등의 역할을 거론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대면하여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로서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데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13명, 25.5%)이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8명, 15.7%),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7명, 13.7%), ‘본인의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7명, 13.7%)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70.6%가 자신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응 안내자와 조연자로서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불신 등이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아직 신뢰의 관계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불신의 정도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적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6.8%의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51.0%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70.6%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직장에서 사업주나 동료들이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보호담당관의 소개나 혹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기 위해 취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사회단체’(19명, 37.3%), ‘보호담당관’(14명, 27.5%), ‘사회복지기관’(6명, 11.8%), ‘동료 이탈주민’(5명, 9.8%)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49.1%가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단체를 꼽은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착지원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협조에 대해 49.0%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거주보호 제도나 취업보호 제도 및 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준비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나 민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기획탈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15명, 29.4%),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13명, 25.5%) 등 정부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많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8명(15.7%)이었고,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는 의견은 6명(11.8%)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의 동반 여부를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은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획탈북을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성격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일선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가까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하나원에서부터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을 받는 동안 희망분야의 직종을 선택하게 하고 1지망, 2지망, 3지망 등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한 실무자

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훈련과정이 2년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 35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경우에는 기능대학 등을 활용하여 무상학업과 직업훈련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간단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로 꼽았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생계급여나 훈련수당이다, 교회지원이다 하여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 나머지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실무자 면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형편은 오히려 적응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자신들의 적응의지가 부족한데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태도와 의식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러한 자립의지를 어떻게 불어넣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극기훈련이나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 사고방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VII. 결론 및 향후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입국자의 사회정착을 지원

하기 위한 현안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리 사회 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사태가 국제적 시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의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사회정착과정에 가족들의 신변보호 및 입국지원이 상당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지방정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역단위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와 보호담당관, 실무담당관, 자원봉사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단위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호담당관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보호담당관들의 업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에 따라 보호담당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단계에서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시안이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정착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인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들의 '무능력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착지원 정책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막는 기초생활보장 특례조항에 따른 생계비 보조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후관리과를 신설하여, 거주지 정착이 초기정착지원시설 내 정착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3. 기존 연구경향 및 결과 분석 — 5	
가. 시대별 연구경향 • 5	
나. 주제별 연구경향 • 12	
다. 접근방법의 연구경향 • 18	
라. 기존 연구경향의 특징과 한계 및 과제 • 24	
I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9
1.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 — 39	
2. 재외 북한이탈주민 규모 및 향후 입국전망 — 42	
가. 재외 북한이탈주민 체류 규모 • 42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 입국경로 • 44	
다. 향후 입국전망 • 48	
3. 변화유형 — 50	
III.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57
1. 적응의 의미 및 이론 — 57	
가. 적응의 의미 • 57	
나. 적응이론 • 61	

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2. 태도변용이론 — 62
 - 가. 학습이론 • 66
 - 나. 인지균형이론 • 68
 - 다. 기능이론 • 70
 - 라. 켈만의 기능이론 • 74
- 3. 사회화 이론 — 78
- 4. 문화접변 — 81
- 5. 동기이론 — 86
- 6. 전반적인 적응실태 — 96
 - 가. 일반적 특성 • 96
 - 나. 주관적 적응도 • 101
 - 다. 객관적 적응도 • 105

IV.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115

- 1. 전반적인 평가 — 115
- 2. 세부요인 평가 — 123
 - 가. 사회적 편견 • 123
 - 나. 가족의 신변불안 • 127
 - 다. 취업 • 128
 - 라. 결혼 • 137
 - 마. 제3국 체류경험 • 140
 - 바. 학력과 경력 • 141

- V. 사회적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45
 -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 145
 -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 148
 -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 157
 -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 159
 - 5. 전반적인 정책평가 — 160

- VI. 세부집단별 적응실태 162
 - 1. 청소년 — 162
 -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 162
 - 나. 주관적 적응도 • 162
 - 다. 객관적 적응도 • 165
 - 라. 부적응 요인 평가 • 166
 -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 167
 - 바.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167
 - 사. 여론 조사에 의한 탈북청소년 실태 평가 • 169
 - 아. 면접을 통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 • 170
 - 2. 여성 — 185
 -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 185
 - 나. 주관적 적응도 • 187
 - 다. 객관적 적응도 • 191
 - 라. 부적응 요인 평가 • 196
 -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 199
 -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203

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3. 성인남성 — 207

-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 207
- 나. 주관적 적응도 • 209
- 다. 객관적 적응도 • 215
- 라. 부적응 요인 평가 • 224
-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 229
-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233

4. 노인 — 240

- 가. 일반특성(인구학적 특성) • 240
- 나. 주관적 적응도 • 242
- 다. 객관적 적응도 • 245
- 라. 부적응 요인 평가 • 249
-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 252
-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254
- 사. 북한이탈노인 적응평가 및 지원방안 • 258

VII. 적응지원인력의 평가 262

1. 보호담당관의 평가 — 262

- 가. 보호담당관의 인구학적 특성 • 262
- 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262
- 다.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 264
- 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267
- 마. 취업문제 • 272
- 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 275
- 사. 보호담당관의 제안 • 276

2. 실무자의 평가 — 279	
가. 조사개요 • 279	
나. 조사결과 • 281	
다.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향 • 295	
3. 자원봉사자의 평가 — 296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296	
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에 대한 전반적 평가 • 298	
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300	
라.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302	
마.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 • 304	
바. 취업문제에 관한 의견 • 307	
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 • 311	
VIII. 결론 및 향후과제	318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4가지 유형	328
부록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	328
부록 2: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	343
부록 3: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자 —	350
부록 4: 북한이탈주민지원 자원봉사자 —	357
부록 5: 2003년도 국민통일여론조사 Raw Table —	364

◆
표·그림목차

- <표 I-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물(1994-2003) — 29
- <표 I-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 석박사학위논문(1994-2003) — 36
- <표 II-1>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 — 39
- <표 II-2>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 40
- <표 II-3> 북한이탈주민 출신지 분포 (2002년도 입국자) — 40
- <표 II-4> 북한이탈주민 재북시 직업 분포 (2002년도 입국자) — 41
- <표 II-5> 최근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2년 현재) — 51
- <표 II-6>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53
- <표 II-7>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연령 현황 (2002. 6월 현재) — 54
- <표 II-8>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 기간 현황 — 55
- <표 III-1> 적응의 영역과 측면 — 61
- <표 III-2> 기능별 태도의 유발 및 변용의 조건 — 73
- <표 III-3> 태도변용의 3 가지 과정별 선행조건과 후건 — 76
- <표 III-4>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 91
- <표 III-5> 마슬로우와 알더퍼의 욕구위계 비교 — 95
- <표 III-6> 성별 분포도 — 97
- <표 III-7> 연령별 분포도 — 97
- <표 III-8> 학력별 분포도 — 97
- <표 III-9> 한국 거주 기간 — 98
- <표 III-10> 외국의 생활 기간 — 99
- <표 III-11> 결혼 유무 — 100

<표 Ⅲ-12> 입국 시 동반 — 100

<표 Ⅲ-13> 북한, 제3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유무 — 100

<표 Ⅲ-14> 함께 사는 사람 — 100

<표 Ⅲ-15> 거주지역 — 101

<표 Ⅲ-16> 현재 한국생활 만족도 — 102

<표 Ⅲ-17> 한국에 올 때 가장 기대한 것 — 102

<표 Ⅲ-18> 현재 가장 필요한 것 — 103

<표 Ⅲ-19> 현재 직업 만족도 — 103

<표 Ⅲ-20> 건강상태 — 105

<표 Ⅲ-21> 월평균 수입 — 106

<표 Ⅲ-22> 수입의 충분성 — 106

<표 Ⅲ-23>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급기간 — 106

<표 Ⅲ-24> 자활근로참여경향 — 107

<표 Ⅲ-25> 현재직종 — 108

<표 Ⅲ-26> 취업형태 — 108

<표 Ⅲ-27> 비정규직인 이유 — 108

<표 Ⅲ-28> 이웃, 직장동료등과 관계 — 109

<표 Ⅲ-29> 동네 이웃과 교류 실태 — 110

<표 Ⅲ-30> 종교활동 실태 — 111

<표 Ⅲ-31> 종교를 갖는 목적 — 111

<표 Ⅲ-32>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기간 — 112

<표 Ⅲ-33> 여가시간에 하는 일 — 113

<표 Ⅳ-1> 한국사회 적응도 — 115

<표 Ⅳ-2> 부적응 원인 — 116

<표 Ⅳ-3>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 — 116

8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표 IV-4> 생활에 큰 어려움 — 117
- <표 IV-5> 어려울 때 의논상대 — 119
- <표 IV-6> 사회적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 120
- <표 IV-7> 한국사회적응 소요기간 — 121
- <표 IV-8>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소요기간 — 121
- <표 IV-9> 불편없는 언어사용 소요기간 — 122
- <표 IV-10> 불편없는 대인관계 소요기간 — 122
- <표 IV-11>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극복 소요기간 — 123
- <표 IV-12> 본인에 대한 한국사람태도 — 123
- <표 IV-13> 한국사람태도가 사회적응에 영향정도 — 124
- <표 IV-14> '한국주민이 무시한다'는 의견 — 125
- <표 IV-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 125
- <표 IV-16> 정착금 및 수입을 북한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 데려오기 위해 사용할 의향 — 127
- <표 IV-17> 북한에서 주로한일 — 128
- <표 IV-18> 현재직종 — 129
- <표 IV-19> 직업이 없는 이유 — 129
- <표 IV-20> 취업형태 — 130
- <표 IV-21> 비정규직인 이유 — 131
- <표 IV-22> 취업알선 — 133
- <표 IV-23> 취업보호제 활용 여부 — 133
- <표 IV-24>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움 — 134
- <표 IV-25> 직업훈련의 취업도움 정도 — 135
- <표 IV-26> 희망하는 직업훈련 우선순위 2개 — 135
- <표 IV-27> 희망하는 장래직업 — 136

- <표 IV-28> 직업선택 기준 — 137
- <표 IV-29> '취업, 경제지원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한다'에 대한 의견 — 137
- <표 IV-30> '남한주민과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의견 — 140
- <표 IV-31> 결혼상대 선택 — 140
- <표 IV-32> 제3국 체류기간의 사회적응 영향정도 — 141
- <표 IV-33> 체류기간 영향이 있다면 누구 — 141
- <표 IV-34> 북한 교육경험과 한국 사회적응 — 142
- <표 IV-35> 북한 직장경험과 한국 사회적응 — 144
- <표 V-1> 한국정부 지원수준 — 146
- <표 V-2> 정부지원중 불만요소 — 146
- <표 V-3> 정착지 배정 — 147
- <표 V-4> 지원정착금 받는 방법 — 148
- <표 V-5> 하나원 교육경험유무 — 148
- <표 V-6> 하나원 생활과 사회적응 — 149
- <표 V-7> 하나원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 — 149
- <표 V-8>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불만족스런 요소 — 150
- <표 V-9> 적절한 하나원 생활기간 — 151
- <표 V-10> 하나원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 152
- <표 V-11> 하나원 교육방식 만족도 — 152
- <표 V-12> 하나원교육중 한국사회이해 강의의 사회적응 도움 — 153
- <표 V-13> 하나원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 154
- <표 V-14> 하나원 종교활동 실태 — 154
- <표 V-15> 하나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 — 155
- <표 V-16> 필요 없는 이유 — 156
- <표 V-17> 다른 적응교육지원체계의 대안에 대한 의견 — 156

10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표 V-18> 사회적응을 위해 바리는 교육주체 — 157
- <표 V-19>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 — 158
- <표 V-20>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군,구청)의 도움 — 158
- <표 V-21>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 — 158
- <표 V-22> 하나원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 159
- <표 V-23> 민간단체지원 만족도 — 160
- <표 V-24> 적응을 위한 정부정책의 중점사항 — 161
- <표 VI-1>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 입국시 기대 요소 — 163
- <표 VI-2>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및 제3국 가족존재여부 — 164
- <표 VI-3> 북한이탈청소년의 직업형태 — 165
- <표 VI-4> 항목별 적응기간 비교 — 215
- <표 VI-5> 50대이상 계층의 일반적 특성 — 241
- <표 VI-6> 북한이탈노인의 주관적 적응관련 만족도 — 242
- <표 VI-7> 북한이탈노인의 한국사회 적응기간 분포 — 245
- <표 VI-8> 북한이탈노인의 월평균소득분포 — 246
- <표 VI-9> 북한이탈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현황 — 246
- <표 VI-10> 북한이탈노인의 제3국 체류, 정착금을 가족에 사용, 한국주민의 무시
관련분포 — 249
- <표 VI-11> 북한이탈노인의 북한 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250
- <표 VI-12> 북한이탈노인의 한국사람태도 및 적응의 영향 관련분포 — 253
- <표 VI-13> 북한이탈노인의 정부지원의 불만 관련 분포 — 254
- <표 VI-14> 북한이탈노인의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만족분포 — 255
- <표 VI-15> 북한이탈노인의 하나원 생활 관련 분포 — 255
- <표 VI-16> 북한이탈노인의 담당관 도움 만족 분포 — 256
- <표 VII-1> 적응수준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2

- <표 VII-2> 부적응 원인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3
 - <표 VII-3> 사회적응 영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4
 - <표 VII-4>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5
 - <표 VII-5>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 인식 — 286
 - <표 VII-6> 실무자의 업무 만족도 — 287
 - <표 VII-7> 정부부처간 업무협조 수준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7
 - <표 VII-8> 거주지보호제도와 취업보호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88
 - <표 VII-9> 실무자의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 289
 - <표 VII-10>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역할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90
 - <표 VII-11>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91
 - <표 VII-12>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 평가 — 292
 - <표 VII-13> 직장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93
 - <표 VII-14> 채용 이유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93
 - <표 VII-15> 채용 용이 연령에 대한 실무자 평가 — 295
-
- <그림 I> 러시아 지역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절차 — 45

1.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북한주민의 탈북사태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내부의 사회변화와 중국 등 체류국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탈북연령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과정에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전문브로커들이 개입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력으로 입국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입국과 관련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 중 인신매매, 동거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입국으로 인해 상대 남성이나 자녀들의 추가입국시도 등 가족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입국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이 활용되고 있다. 초기의 단순생존형 탈북에서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가족단위의 이주를 목표로 한 국내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문제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경향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필요성이 일부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적응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해 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였는가는

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¹ 이는 곧바로 우리가 북한주민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을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로 인식한다면, 이들이 위기상황을 피해 탈북하였을 경우 제대로 보호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주민의 일반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도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문제가 갖는 사회통합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집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원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리 사회 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사태가 국제적 시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3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살

1 오혜정, “남과 북을 이어주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시안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여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지들에 대해 경제상태 등 외연적인 적응실태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설문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의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여 1998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51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우편조사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78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소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처리되었다. 설문조사기간중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전화와 첨부편지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적응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4월 7일부터 통일교육원에서 3기에 걸쳐 전국 지역 보호담당관들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212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또한 교육기간동안 연구참여자들이 강의나 토론에 참여하였고 분임토의 발표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정착지원센터 수용기간 및 거주지 정착

2 조사에 응답한 보호담당관 중 신변보호담당관은 56명(26.4%), 거주지보호담당관은 115명(54.2%), 취업보호담당관은 33명(15.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성은 165명(77.8%), 여성은 40명(18.9%)이다. 연령 대는 20대가 89명(4.2%), 30대가 79명(37.3%), 40대가 94명(44.3%), 50대가 20명(9.4%), 60대가 1명(0.5%)으로 보호담당관의 80%정도가 30대와 40대로 절대 다수(81%)를 차지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기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자 51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³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하나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북한이탈주민관련 문항 3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정 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론해 내고자 하였다. 참여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대상자들이 평소에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가 지문회의 및 워크숍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본원과 분원을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지문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체계를 세부시안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세부집단별로 적응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보다 집단별로 세분화·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실무자,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3 연령별로는 응답자 35명 가운데 71%인 25명이 40대로 가장 많고 50대(14.3%)가 그 다음으로 많아, 자원봉사자는 주로 40대와 50대의 중년층이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는 40대-50대의 중년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존 연구경향 및 결과 분석

가. 시대별 연구경향

(1) 초기의 연구경향: 1970년대-1990년대 중반

실제로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 시기까지에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수기, 증언자료 등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는 연구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사자료,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들은 북한의 이해에 접근하는 연구경향에 주로 치중하였다. 예컨대 이 시기까지의 대표적인 단행본은 1978년 국토통일원에 의해 발행된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 1980년 민병천의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년 국토통일원의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1990년 국가안전기획부의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월남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정보 획득 차원과 단순한 그들의 생활실태 조사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특히 그 중에 민병천의 연구는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최초의 연구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 당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남한사회적응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남한주민들의 응답자들은 이들에 대해 ‘호의적’ 및 ‘동정적’이라는 52.7%의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냉담적’이거나 ‘적대적 및 멸시적’이라

6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는 부정적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이들의 적응실태를 본격 조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밖에 연구결과물들은 거의 한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설문지조사, 문헌연구, 비교서술형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 및 북한주민의 현상을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경향에 치중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초보적 수준에서 접근되었지만, 이 시기까지에는 민병천의 연구결과물 이외에 사실상 이들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선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정부와 사회, 그리고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분단이후 1989년 이전까지 국내로 들어온 순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식적으로 607명, 1990-1998년 기간 동안 3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 그리고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수는 1994년 52명, 1995년 41명, 1996년 56명, 1997년 86명, 1998년 71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0여명에 이어 2003년 8월31일 현재 781명에 달하고 있다. 2003년 8월 현재 1990년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은 3,304명이고, 1989년 이전 입국자 607명을 포함시킬 경우에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총인원은 3,911명에 이른다. 그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현재 국내거주 인원은 3,662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오직 정부의 정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을 적

4 통일부, 「2003년도 국정감사 보고자료 업무현황보고」(2003.10.7), p. 51.

극적으로 유도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 시기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였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접촉과 면접, 연구 조사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연구환경이었다. 한 마디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어떤 정보도 민간인 연구자들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정부의 이들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인해 제한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내 일반인들의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과 보호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보통 '특혜받는 자'로 인식되었다. 적지 않는 보상금, 일자리 등의 보장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아가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붕괴, 독일통일의 실현, 소련의 붕괴, 한·소간 및 한·중간의 수교 등 탈냉전의 국제질서 변화와 동시에 북한의 체제위기(경제난, 특히 식량난의 증가, 김일성주석의 사망, 자연재해의 빈번함 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해감에 따라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학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데에 있었다. 특히 이들이 1994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탈북동기, 탈북경로, 탈북배경 등의 증가와 동시에 국내유입의 탈북시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다양화도 시도되었다. 또한 북한연구의 각 분야별 연구소와 연구자 증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각계(학계·종교계·NGOs 등)의 관심과 지원 증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여, 다양한 시각의 북한연구 접근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0년대에 들어와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이 방대한 양적·질적 연구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8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방법도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는 실정이다.

(2)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저서는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병로의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민족통일연구원, 199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선한승의 『북한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1995), 이금순의 『북한탈출주민 대책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1995), 김영수·정영국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통일연수원, 1996), 박종철·김영운·이우영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금순의 『탈북주민의 국내 정착 방안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영선·전우택의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오름, 1996), 이정우·김형수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 지원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김병로·이금순의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방향』(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장호 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국회, 1998),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통일부, 199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8), 이금순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의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통일연구원, 199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한만

길 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9),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통일부, 2000),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0), 최창동의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두리 미디어, 2000),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통일연구원,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통일연구원(前민족통일연구원)인데, 이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2003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다양한 연구업적물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저서들을 볼 때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시킨 학자들은 김병로, 이금순, 선한승, 윤인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 대표적 연구결과물에서 나타난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내 적응실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정책적·문화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 논의는 현장경험사례, 해외사례, 설문조사, 면접, 문헌연구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한편 <표 I-1>에 제시된 논문업적물을 토대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자면, 우선 1994년-96년까지는 연구결과물이 소량에 그치지만 1996년부터는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이 시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때부터 사실상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욕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1996년 이전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경향에서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즉 1996년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내 적응에 따른 문제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기존의 법과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대부분 연구하려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민간(NGOs를 포함)차원의

대책, 민족화합차원의 접근, 삶의 질 향상, 통합적 모델의 적용, 심리적 차원의 접근, 인권개선의 차원, 교육차원의 접근, 문화적 갈등의 해소, 여성문제의 접근, 종교생활의 접근, 이미지의 연구, 방송의 차원, 사회복지의 차원, 청소년의 적응, 지역협력체제의 접근, 국제적 협력체제의 접근 등 다양한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경향은 사실상 1996년 이전까지의 단선적·제도적·처방적 접근방법에서 복합적·실천적·예비적 연구의 통합적·학제적 연구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표 I-2>에서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의 주요 석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우선 박사학위논문은 1995년 심진섭의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대학생, 실향민, 귀순자,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가 처음이고, 석사학위논문은 1994년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대학원)가 최초로 나온다. 이의 박사학위논문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배우자의 통일과 주민들에 대한 의식구조의 연구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간접적·부분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의 석사학위논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기, 즉 문헌연구를 통해 이들의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에 단편적·부분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석·박사 학위논문의 선행적 연구업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1995년 오혜정의 석사논문인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기존의 다른 일반논문과 달리 그들의 적응실태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전까지 석·박사 학위논문이 단지 5편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주제와 접근방법도 단편적·부분적·실태적 연구경향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석·박사학위의 연구는 1997년 5편, 1998년 10편, 1999년 13편, 2000년 17편, 2001년 21편, 2002년

25편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박사논문인 손주환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대학원, 1999), 안혜영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2000), 윤여상의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영남대 대학원, 2001), 곽해룡의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명지대 대학원, 2002), 노대균의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앙대 대학원, 2002), 조영아의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연세대 대학원, 2003) 등을 통해 보듯이 점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사회복지, 인권, 개인차, 자아방어기제 등의 종합적·복합적·통합적·예비적 차원으로 다양한 연구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동안의 석사학위논문을 보면, 1997년 이후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주 진일보한 연구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적응, 직업훈련교육사례, 문화적응, 인권보장, 국제적 보호, 소비생활, 법적지위, 여가활동, 생활민족도, 적응프로그램개발, 민족통합접근, 경제생활, 보건영양, 외상척도개발, 노동시장, 삶의 질, 보안경찰역할, 정신건강, 가족문화, NGOs의 역할, 국내정착시설, 학교생활, 사회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례연구,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비교접근, 심리적 접근, 법적·제도적 접근, 사회·교육·문화·의학적 접근 등 다학제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나. 주제별 연구경향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주제별 연구경향은 대체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차원에 집중해 왔다. 이 시기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주로 이들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획득과 이들의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대책, 지원제도, 법규, 인권, 교육, 훈련,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갈등,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등에 관한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제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일단 여기에서는 <표 I-1>과 <표 I-2>를 통해 나타난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주제별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 연구이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관한 대주제를 갖고 있다. 다시말해 이 연구경향은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적응실태 및 문제점, 그 대책 등과 관련하여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김병로의 『탈북자 발생배경 분석』(1994), 고태우의 “월남귀순자 현장 사례”(1994), 선한승의 『북한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1995), 김영수·정영국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1996), 박종철·김영운·이우영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1996), 이금순의 『탈북주민의 국내 정착 방안연구』(1996), 이영선·전우택의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1996),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1998),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199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1998), 조용관의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1998), 이금순의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1999), 통일연구원의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199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1999),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2000), 윤인진의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이탈주민 문제”(2001), 박현선의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2002)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윤여상(1994), 오혜정(1995), 윤양중(1996), 이수원(1997), 정해동(1997), 김광렬(1998), 김경호(1998), 김명화(1999), 김학성(2000), 이철순(2000), 임정규(2000), 강덕훈(2001), 김성근(2001), 유시연(2001), 윤창규(2001), 이진성(2001), 김혁(2002), 이연례(2002), 이택배(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주로 적응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연구하는 경향, 기존의 선행적 연구물과 외국 사례의 접근방법 등을 활용하여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법규,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제도, 법규제정 및 개선, 인권개선, 지역협력체계의 모색 등을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다시말해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실태를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현재의 법과 제도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인권개선과 지역협력체계 등을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려는 연구경향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이정우·김형수의 『탈북이

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1996), 김병로·이금순의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방향』(1997), 황무임의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1998), 최창동의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2000), 이기영의 “탈북자 정착 및 적응의 지원방안”(2000), 임태근의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2000), 제성호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2001), 박윤숙의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례 연구”(2001), 이기영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력체계구축의 방향”(2001), 이우영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체계의 방향성”(2002), 제성호의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2002)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정완출(1997), 조서영(1997), 박동순(1998), 신수정(1998), 이규창(1998), 김진환(2001), 곽해룡(2002), 구봉희(2002), 이승렬(2002), 조상혁(2002), 오태곤(2003), 우미선(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연구물들은 법과 제도적 연구경향, 인권의 접근경향, 지역협력체계의 접근경향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주로 정부지원의 공식적·정책적인 직·간접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확장문제, 법적 지위 획득 및 보장문제, 제도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적 법적·제도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인권의 보호와 그 보호차원에서의 국제협력체계 모색 등을 주제로 다룬 연구결과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의 국내외적 법·제도적 환경요인을 분석하는데에 간접자료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학교교육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예를들어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2000), 이금순·송정호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1997), 장원동의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방안”(1997), 한만길 외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1999), 홍정근의 “민족 통합을 위한 교회교육 ; 탈북자를 위한 교회교육적 관심”(1999), 오기성 외의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지원방안 연구』(2000), 이범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교육 적응실태 연구”(2000), 이기영의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2001), 김영수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 확충과 교육”(2001), 윤희의 “국내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 정착 방안-정규학교의 설립방안을 중심으로-”(2003)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김승용(1996), 박선경(1998), 류호열(1999), 김은경(2000), 전익수(2001), 송관(2001), 양수려(2001), 유경선(2001), 정병헌(2001), 김정인(2003), 김한목(2003), 이해경(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북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향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향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응과 관련된 교육 및 직업훈련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선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존 ‘하나원’의 교육평가 및 개선방안, 실질적 직업훈련, 정규학교의 설립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갈등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심리적·문화적 적응과 부적응, 갈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즉 이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과 북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 및 그 대책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전우택·민성길의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1996), 이장호 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1997), 전우택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1997), 김영수의 “대학생·고등학생들의 북한이탈주민관 조사”(1998), 박미석 외의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1999), 이창현의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 Q 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2000), 장해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문제점”(2000), 전우택의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2000), 임채완의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2001), 정진경의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 탈북자 자료”(2002)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이소래(1997), 강구섭(1999), 오운학(2000), 신예정(2001), 노대균(2002), 안연진(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오랫동안 폐쇄와 단절된 북한의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정치사회화되어 생활해오다가 한국사회의 새롭고 개방된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다원주의적 사회문화와의 충격과 충돌로 인한 적응문제와 그 대처방안 등을 분석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이나 가족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응 정도의 심리적·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등을 연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치관, 의식, 성격, 가족관계, 종교, 이성관계, 문화 등의 적응과 차이 및 갈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적응에 괴리감과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연구경향을 가지고 있다.

(5)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여건, 사회복지, 여가활동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최저생존권과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주로 주제를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에서 경제적 자립정도가 중요하고 동시에 이들의 복지·여가생활 혜택수준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들어 윤덕룡·강태규의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1999), 윤덕룡의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1999), 윤인진의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립모델”(1999),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효과적 자영업기반 형성을 중심으로」(1999), 김동배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복지”(2000), 이기영·배희숙의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2000), 박순영의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2002), 황진수의 “북한이탈주민 참여복지 실천방안”(2003)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이강현(1998), 이순희(1998), 임경택(2000), 안승용(2001), 김경옥(2002), 진용탁(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결과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기반에 토대한 생존의 문제, 의식주해결의 문제, 안정된 직장생활의 유지문제, 건강문제, 복지문제 등에 관한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등을 다루는 경향을 띠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자립의 실태, 자립의 모델, 갈등의 해소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와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적응의 실태, 적응과 부적응의 진단, 그 수준의 향상과 대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자원봉사 등에 관한 연구

이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및 이미지, 이들의 새로운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주로 주제로 담고 있다. 이 연구의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속에 향후 통일이후 남북

주민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이기영의 “탈북자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방향”(1999), 정기선의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1999),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2000), 박운숙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지원봉사단체의 개발과 연결”(2001), 유진선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동포 정착지원 자원봉사활동”(2001),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2001), 이기영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중간평가”(2001) 등을 들 수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는 심진섭(1995), 강주원(2002), 정연중(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결과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남북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인식과 이해와 관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 그에 기초한 통일대상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올바른 객관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연구경향을 띠고 있다. 즉 이는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형식적·무관심적 경향에서 실질적·내용적·관심적 성향으로의 변화를 갖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경향을 말한다.

다. 접근방법의 연구경향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제별 연구경향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접근방법도 매우 다양한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결과물들 중 대표적인 접근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관찰 및 현지조사, 법 및 제도분석, 심리분석, 사회·문화적응이론, 사회복지이론, 인간생태이론, 수기분석, 정신의학적 접근방법 등의 연구경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표 I-1>과 <표 I-2>의 연구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주요 접근방법의 연구경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1) 문헌조사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김병로의 『탈북자 발생배경 분석』(1994), 조용관의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1998), 윤량중의 “탈북·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1995), 김경호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연구”(1997), 오준교의 “탈북주민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1997), 이성제의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1997), 박희정의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연구”(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 윤량중의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보완, 사회정착지원제도의 방안 마련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경호의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문화적 적응에 기초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준교의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대책과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성제의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과 이의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박희정의 논문은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면서 일부 북한이탈여성의 면접조사를 병용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상 문제점과 이들의 지원실천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설문조사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심진섭의 “남북통일과 남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1995), 오혜정의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1995), 이강현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소비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1998), 김귀

옥의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심진섭의 논문은 서울지역 대학생의 111명, 북한이탈주민의 102명과 그 배우자의 97명, 실향민 1세의 101명 등 총 411명을 대상으로 5개분야의 96개 질문을 제시해 조사하고 있다. 오혜정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총 44명을 대상으로 126개의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강현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총 32명을 대상으로 103개의 질문을 제시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오혜정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문제를 사회구조, 문화·정신심리학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김귀옥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남한방송 시청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과정에서 나타난 성향과 정체성간의 모순,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와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3) 면접조사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박종철 외 2인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1996), 민성길과 전우택의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1996), 박희정의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연구”(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 박종철 외 2인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총 4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태조사와 동시에 법규 및 제도의 보완,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사회복지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민성길과 전우택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총 2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심리적·의식적 구조 등의 문제점과 이들의 적응력을 분석하고 있다.

(4) 관찰 및 현지조사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정유선의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1998), 등을 들 수 있다. 정유선의 논문은 20대-4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 40명정도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5) 법 및 제도분석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이종훈의 “남한이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1996), 제성호의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996), 이금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우리의 과제”(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이종훈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인식문제와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법규 및 제도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성호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관리상의 문제 및 이들의 인권문제와 법적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금순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규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체계적·효율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6) 심리분석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이장호의 “남한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1996), 전우택의 단행본인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2000)와 논문인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장호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단계를 5단계(환경인식혼란기, 자기효능갈등기, 생활장면대처기, 대인관계동화기, 재정체성활성기)로 구분하여 그들의 단계별 적응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응단계를 역시 5단계별(이질문화충격단계, 기초취업준비단계, 생활정착단계, 재사회화단계, 문화사회적 통합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우택의 단행본과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7) 사회·문화적응이론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들은 선한승의 『북한노동자의 적응실태와 인력활용방안』(1995), 김동배의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1996), 이만식의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개발”(1996), 한만길의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문제”(1996), 이소래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997), 이장호 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1997), 이기영의 “탈북자기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2000), 독고순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2000), 윤인진의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선한승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문제와 관련하여 그 노동력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김동배의 논문은 민간지원의 자원봉사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만식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문화습득훈련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의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만길의 논문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을 재사회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소래의 논문은 북한이

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실태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이론의 활용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장호 외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갈등의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기영의 논문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사회적응이론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가족문화의 차이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독고순의 논문은 비교문화론적 시각을 도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이질화된 문화충돌의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문제와 동시에 남북통합의 전제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윤인진의 논문은 베리(Berry)의 사회적응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물질적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통합과 적응의 유형보다 주변화와 부적응의 유형에 더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8) 사회복지이론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은 김상균의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1994), 김동배의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1996) 등을 들 수 있다.

김상균의 논문은 사회복지이론 관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의 단계에 따라 그들의 직업 및 사회적응 훈련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배의 논문은 역시 사회복지이론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4단계(심리적 갈등기, 직업훈련기, 사회적 적응기, 사회적 통합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설정된 적응목표를 제기하고 있다.

(9) 인간생태론

이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물은 박미석 외의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

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1999) 등을 들 수 있다. 박미석 외의 논문은 인간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신과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10) 기타의 접근방법

그 밖에 수기분석, 정신의학적 접근방법 등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윤여상의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1994)가 1991-1994(5월)년 기간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단행본 출판수기 15권을 분석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적응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수기분석의 예로 들 수 있고, 민성길·전우택의 “사람의 통찰: 정신의학적 접근”(1995)은 대표적인 정신의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분석물로 예를 들 수 있다.

라. 기존 연구경향의 특징과 한계 및 과제

지금까지 논의한 기존연구의 연구경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성과라고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996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연구대상에 따른 주제와 접근방법도 다양해지는 연구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와 일반시민들에게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1996년 이전까지 연구경향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경향이 농후하였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그들의 남한체제·경제·심리·복지·교육·문화·여가·복지·인권 등에 대한 적응의 재사회화·통합화 등 거시적 수준의 연구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연구방법의 접근이 1996년 이후부터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관찰 및 현지조사, 법 및 제도분석, 심리분석, 사회·문화적응이론, 사회복지이론, 인간생태이론, 수기분석 등의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경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부문별·분야별 연구보다는 전반적·다방면적 연구경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의 귀결점은 궁극적으로 한국국민이자 한국시민으로서 완전 동화되어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지는 연구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의 한국사회에로의 통합, 통일이후의 남북주민차원의 통합과 연계된 연구경향이 최근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최근의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연구→한국사회의 체제·생활·심리적 적응 연구→남과 북한 주민의 비교·통합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즉 최근의 연구경향은 다학문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해 거시적 방향에서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의 시기가 비교적 짧았으나,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 특징과 관련해 볼 때 아직도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기존의 연구결과물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하였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에 대한 보다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물론 기존의 연구시도가 우리 학계에서 짧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

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폐쇄·통제된 이질화된 체제 및 생활 영역에서 살다가 이탈한 관계로 인해 그들의 객관적·구체적 분석지표설정이 어려운 실정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아직도 기존의 연구결과물들은 선형적 연구에 의존한 문헌적·서술적 접근, 단순한 질문지 및 소수의 면접 방식으로 분석하는 등 다소 중복된 연구결과물과 동시에 단선적 접근방법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기존연구는 부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유입수가 급증한 관계로 전반적인 실태연구에 따른 적응과 문제점,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대안의 마련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문제, 특히 남과 북의 학제와 교육내용 차이로 인한 교육부적응과 관련하여 이들의 정규학교 편입학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경향은 다분히 한국체제의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분석대상과 분석단위의 중심으로 잡아보니 그들의 기존 방식과 적응속도를 간과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연구에서 그들의 연령별·성별·개인별의 특성을 구분없이 하나의 범주로 보아 총론적 수준의 연구경향에 치우치는 경향이 높고, 심층적·과학적 연구보다는 설문지·면접조사·문헌조사에 의한 조사결과의 분석에 치중하려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과 이들의 한국 사회적응시기에 초점을 두려는 연구범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용어상문제는 북한이탈주민, 귀순자, 탈북주민 등 기본적인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시기상 문제는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내 귀국과 중국 등 정착문제에

서 주로 국내입국자들에 집중되는 연구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현재 국내의 북한이탈주민들보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훨씬 더 많다는 데에 도사리고 있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경향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분석에 초점을 둔 경우에 치중한 나머지 다소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시말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한국사회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들의 정착가능한 정책적 환경과 실질적 정착지원제도화에도 연구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치학적 이론과 입장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제도·정책의 측면을 고려하는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내 적응문제는 반드시 북한학의 기본지식에 의거하여 먼저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한 연후에 이들에 대한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상대주 의적 인식론으로 접근해야됨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의 접근방법도 다양화되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중심의 1-2차자료와 함께 설문조사, 면접조사, 사례연구, 현장조사 등 각종 기법들을 계발하거나 병행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석대상에 있어서 법·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정확한 접근을 위해 교차검증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국내입국자 뿐만 아니라 국외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갖되, 유아·청소년·장년·노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을 상대로 역동적 상황에 대한 목적론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주제에서 보다 확장된 다양

하고 세분화된 연구주제를 갖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학 뿐만아니라 북한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모든 학문영역에서 이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내부의식을 갖고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물(1994-2003)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1994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민주평 통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태우	“월남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강광석 외, 『통일휴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 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김상근	“절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탈출동포 어 떻게 할 것인가?』
1995	선한승	『북한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금순	『북한탈출주민 대책연구: 해외사재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1995.12)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 구”	통일원, 1995년도 연구용역 과제
1996	김 영 수 · 정 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박 종 철 · 김 영윤 ·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 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이금순	『탈북주민의 국내정치 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이 영 선 · 전 우택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오름
	이 정 우 · 김 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김병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
	안수길	“귀순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동화』 (1996. 3.)
	이만식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 적 지원 모델 개발』	통일원, 1996년도 연구용역 과제
	이정호	“남한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 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북 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국회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119호)
	이종훈	“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북 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이철우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 응방안 연구』	통일원, 1996년도 연구용역 과제

30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1986	전 우 택 · 민 성길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문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2호)
1987	김 병 로 · 이 금순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이장호 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동용승	“북한이탈주민증가현상에 대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
	이금순	“북한 이탈주민 정책방향과 우리의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이 금 순 · 송 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1호)
	장원동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방안”	서경대통일문제연구소, 『북한이탈주민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호)
1988	국회통 일의교 통상위 원회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국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통일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영수	“대학생 · 고등학생들의 북한이탈주민관 조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논총』 (제10집)
	백종만	“북한이탈주민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조용관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소 ·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3집)
	황무임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인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복지행정연구』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1999	이금순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좋은벗 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도출판
	통일연 구원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 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반길 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동배 ·이기 영	“민간기관의 탈북자지원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3권 1 호)
	박미석 외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에 관한 질적 연구”	사단법인 성공학술문화재단, 『성공논총』 (제 30집)
	성가중 ·윤여 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이학회, 『한국동북이논총』
	윤덕룡 ·강태 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1권 2호)
	윤덕룡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9년도 학술발표 회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3집)
	윤인진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립모델”	한국사회학회, 1999 후기사회학대회, 『시민 사회의 미래』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효과 적 자영업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99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연구 자 연구지원 최종보고서』
	이금순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소식』
	이기영	“탈북자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 (여름호)
	정기선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상반기호)
	최현실	“북한 선교의 새로운 시도 : 돈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 - 탈북자 신앙간증 -”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월간지, 『월천』
홍석경 ·이창 현	“탈북자들의 남한 방송 및 문화 수용을 통해 본 통일 이 후의 방송전략”	한국방송학회, 『99 봄월 정기 학술대회』	
홍정근	“민족 통합을 위한 교회교육 ; 탈북자를 위한 교회교육 적 관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 교회』	

3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2000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통일부
	윤인진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두리 미디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 관련자료와 입국자의 특성별 통계』	통일부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박현선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오기성 외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지원방안 연구』	통일부
	김동배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복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및 문화예술분과위원회 합동회의자료』
	김동배·이기영	“탈북동포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 (통권 141호, 여름호),
	김찬규	“탈북자의 경제상황”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박요셉	“해외채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탈북자문제 현황과 대책』
	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한국사회학회,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21세기 사회학의 새로운 탐구영역 -』
	윤인진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지조모델 : 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윤인진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문제의 해결방안』 (제39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자료집)
	이기영	“탈북자 정착 및 적응의 지원방안”	”
	이기영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0년 논문발표자료집
	이기영·배화숙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사회복지』 (가을호)
이범용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교육 적응실태 연구”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정책』 (제38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자료집)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2000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 Q 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장해성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문제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및 문화 예술분과위원회 합동회의자료』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2000 년도 한 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출판사
	조백상	“해외채류 탈북자문제 현황과 대책”	『탈북자문제 현황과 대책』(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자료집)
2001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기영	『탈북동포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교 회 및 기독교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연구』	기독교 북한선교회 제4기 학술진흥기금 연구논문 보고 서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세명
	윤여상	『재외 동포 재외 탈북자』	열린포럼 21
	고려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기관의 초기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자료 집』
	김귀옥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방송 시청 행위와 반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남북한 회해·협력시대의 방송의 역할』(KBS 통일 방송 국제 심포지엄 발표논문)
	김영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인력 확 충과 교육”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자료 집』
	김영수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정착의 과제와 전망”	좋은벗들 주최 『정책심포지움: 남북화해시대 북한이 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윤숙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지원봉사단체의 개발 과 연결”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자료 집』
	박윤숙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례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자료 집』
	유진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동포 정착지원 자원 봉사활동”.	『재외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지 원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심포지움 논문 집)

3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2001	윤인진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이탈주민 문제”	교육복지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통일 세미나 발표 논문』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대회 자료집』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력체계구축의 방향”	동일부·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시민단체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이기영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중간평가”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대회 자료집』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계간 사상』 (여름호)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조기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발표”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자료집』
하성민	“탈북동포들의 새로운 안식처 ‘고향마을’”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자료집』	
2002	김상철	“탈북난민보호 :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되기까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비평』
	김중태	“국내탈북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북한인권시민연합, 『제4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김천성	“중국의 북한 탈북자의 난민권과 이웃 관계국가 의 역할”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
	박순영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6권 제1호)
	윤여상	“탈북자 적응에 관한 「태도변용이론」의 적용 가능성”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체계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지역화 방안 심포지움 발표 논문』
	정진경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북한이탈주민 자료”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성호	“해의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발표 년도	필자명	연구제목	출판사 및 출처
2003	강권찬	“난민 - 이민문제 ; 기확망명후의 북한이탈주민문제 해결방안”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윤황	“국내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 정착 방안-정규학교의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연구소·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8집)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실태”	통일연구원, 『협동연구학술회의』
	이기영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및 적응”	북한인권 시민연합, 『제4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이세림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황진수	“북한이탈주민 참여복지 실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제48차 회의자료』

<표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 석박사학위논문(1994-2003)

연도	학위자명	학위논문	학위
1994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1995	오해정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심진섭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대학생, 실험인 귀순자,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6	김승용	「북한 귀순자의 직업 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연구: 탈북별목공 직업교육훈련사례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윤양중	「탈북·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7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수원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정완출	「귀순북한동포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정해동	「북한이탈자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8	김광렬	「탈북자 실태와 적응 대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박동순	「북한탈출동포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김경호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선경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키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신수정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강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소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이규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및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순희	「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오준교	「탈북주민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민족통합을 향한 거시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정유선	「귀순자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
1999	강구섭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명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김정미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류효열	「통일교육의 내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박정하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박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
	박희정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키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득우	「북한 정치체제의 위기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 참증사례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이순곤	「북한이탈주민의 방송시청양태와 방송의 사회적 지지기능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조서영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NGOs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연도	학위자명	학위논문	학위
2000	김강섭	「북한이탈난민의 귀환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김순태	「탈북 귀순자 면접을 통한 대북한 심리전 전략 분석」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은경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김종남	「탈북자 사목을 통한 북한 복음화 방안 연구」	수원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진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김학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박신호	「주체사상화된 북한주민 선교방안 연구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심현모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은학	「귀순자들의 세계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
	이철순	「탈북 귀순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
	임경택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임상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임정규	「한국의 탈북자 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장석규	「탈북자 선교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	
황지용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인의 보건영양상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1	강덕훈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 방안」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강성복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권혁신	「탈북자를 통한 6·15 이후의 북한선교의 과제」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
	김성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김영남	「탈북자들의 기독교에로의 회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영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송관	「탈북자의 직업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
	신예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안승용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양유려	「재외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재중탈북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유경선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윤장규	「탈북이주자의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독정부의 구동독이주민 관계 대책 및 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이진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임영홍	「남한내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전인수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
	정병헌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
	조기연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선교 전략 연구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이세이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석사
차광문	「재중 조선족 선교의 의미」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38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연도	학위자명	학위논문	학위
2002	김주원	「탈북자 소수집단에 대한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구봉희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김광호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경찰 역할 중심으로」	인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경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병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중성	「남·북한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김진영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혁	「탈북자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박선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송정복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정착지원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안연진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키움대학교 대학원 석사
	안진미	「조선족을 통한 재중 탈북자 선교전략」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
	윤중열	「탈북자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윤현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과 한국교회의 역할」	이세이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
	이강우	「북한이탈주민의 교회정착을 위한 연구」	함동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승열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NGO의 활동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연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장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장상익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와 선교 전략 연구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현황과 지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허재영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교회목회지의 인식조사」	부신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3	김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김한복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적 대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
	오탈근	「탈북자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우미선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 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유광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민간차원의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이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독일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이영순	「국내 탈북자들의 복음화를 통한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혜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임두환	「탈북자 대상 치유선교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조영아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정연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진용탁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관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I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990년 이후 입국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48명이 입국했으며,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에는 전년도 2배 정도인 1,140명이 입국함으로써 년 간 1천명 시대를 열었다.

<표 II-1>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7.	합계
														상반 기	하반 기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561	579	705	3,835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1.27)

2003년도 7월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835명이고,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를 제외하면 3,5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 1. 27)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4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2003년도에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늘어 7월 말까지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명에 비해 12% 늘어났다.⁷ 1999년 이후 매년 2배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2003년도 상반기의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발병과 밀입국조직들의 검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1-2>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명)	55	155	332	368	130	61	40	1,141
비율(%)	4.8	13.6	29.2	32.3	11.3	5.3	3.5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1.27)

<표 11-3> 북한이탈주민 출신지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인원(명)	757	121	95	51	26	39	52	1,141
비율(%)	66.3	10.6	8.3	4.5	2.3	3.4	4.6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1.27)

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1.27)

7 「연합통신」, 2003년 8월 7일

<표 11-4> 북한이탈주민 재북시 직업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 4체육	노동자 농장원	봉사 분야	군 인	기 타	계
인원(명)	32	45	18	504	72	11	459	1,141
비율(%)	2.8	3.9	1.6	44.2	6.3	1.0	40.2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1.27).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2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의 입국증가로 여성이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 면에서는 20~30대가 61.5%로 예년처럼 청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76.9%)이며,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44.2%)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증가, 기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2. 재외 북한이탈주민 규모 및 향후 입국전망

가. 재외 북한이탈주민 체류 규모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제3국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중국과 국제기구의 발표내용, 국내외의 언론기관 보도내용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20-30만 명으로 제시하였다.⁸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를 1-5만 명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와 현실적인 조사방법의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몽골 등 재외 북한이탈주민 체류 및 경류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경험을 갖고 있는 윤여상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⁹ 중국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는 이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비율을 비교하여 추정한 수치이다.¹⁰ 북한이탈주

8 <http://www.goodfriends.or.kr/kor.html>

9 윤여상, 「제3의 동포 재외북한이탈주민」 (서울: 열린포럼 21, 2001), p. 40;

<http://www.ilovenority.com/> 참조

민의 규모는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적 NGO에서도 대부분 10만 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6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공식화하였다.¹¹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는 송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가 동북3성 지역 국경도시를 실사 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 한 뒤 6월과 7월에 6천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¹² 중국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가 연간 6,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체 규모 1-3만 명 주장으로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여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지역을 위한 경류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한 노무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 북한

10 Yoon Yeo Sang, "Situation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Life & Human Rights*, No. 10, (Tokyo & Seoul: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Japan) & Citizens' Alliance to help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Korea), 1998), pp. 4-34.

11 조선일보, 2003년 6월 20일 20면.

12 USCR, 「World Refugee Survey 2002 - North Korea」 (2002. 6. 6.)

이탈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노무 관리지는 자체적으로 이탈자 규모를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지역 북한이탈주민은 현지 이탈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인원을 포함하여 2,000여명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한국행을 위한 경류 지역, 대기 장소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1,000여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 입국경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 체류국가를 떠나서 한국이나 본인의 희망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관련국가와 UNHCR의 공식적 협조를 받는 공식적 방법과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비공식적 방법이 있다.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NGO들 중 일부는 위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혼용하는 방법으로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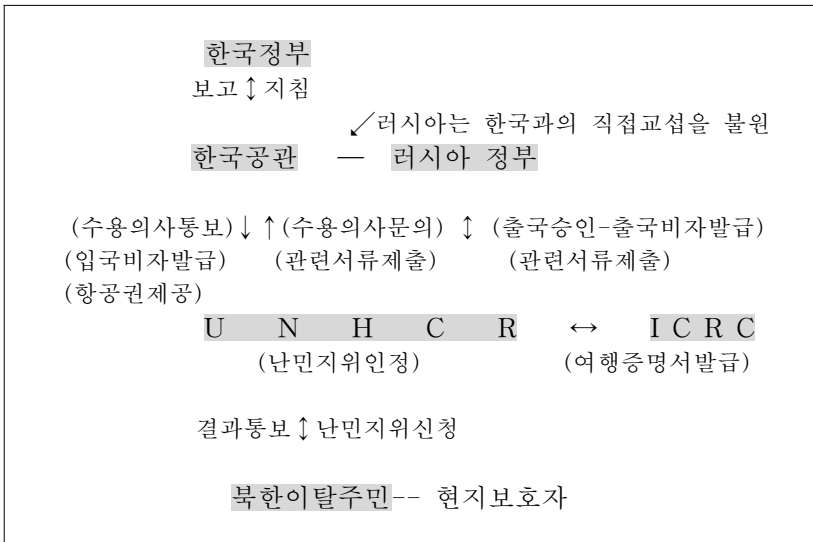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한국행은 1994년 러시아 지역 북한 별목공들이 UNHCR의 협조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한 이후 공식적 방법의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5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국제적 이슈가 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입국도 계속적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적 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을 벗어나 인근 국가로 진입할 경우 공식적인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은 중국 이외 제3국으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비공식적 방법이 성공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주로 이용된다.

비공식적 방법은 주로 위조여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위조 여권

을 활용하는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소요기간이 짧으며,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이용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현지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입국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형의 조직적인 입국은 NGO들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사적 이윤 추구자들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공식적인 입국 과정과 절차는 체류국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략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러시아 지역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절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행 첫 단계는 UNHCR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난민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현지 NGO나 개인활동가가 대행해주고 있다. UNHCR은 난민신청 접수 후 규약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한다. UNHCR은 북한이탈주민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정해진 규격양식(표준설문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다. 그 주요내용은 인적사항, 가족관계, 입국 동기, 생활환경, 사용언어 등이다. 면접내용은 국제변호사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다.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사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개인적 면접을 하게 된다.¹³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난민판정을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다. 한국 정부의 수용결정이 내려지면 UNHCR은 ICRC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 대사관은 여행증명서에 입국시증을 발급한다. 이후 UNHCR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외무부에 보내어 출국시증의 발급을 요청한다. 러시아 외무부가 출국시증을 발급하면 최종적으로 한국대사관에서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¹⁴

현재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정부와 UNHCR 등의 지원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최근 일명 ‘기획망명’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 인근의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기구와 외교공관 방문을 통한 공식

13 난민지위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UNHCR,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1997 참조

14 Yoon Yeo Sang, “Situation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Refugees*, (Seoul: Citizens’ Alliance to Help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 Press, 1999). pp. 206-208.

적 한국 입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장길수 가족 사건과 25인의 북경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으로 그 활용 지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방콕 주재 일본 대사관과 대만, 호주, 미국 등지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의 이면에는 관련 NGO와 개인활동가들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그 과정과 절차는 대략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러시아의 사례가 준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몽골 등 인근 국가들의 경우 UNHCR, ICRC 등의 개입 없이 주재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공개,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한국행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재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유사사례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공관을 비롯한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한국행 희망자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특성과 한국정부의 외교적 수단 미비 때문에 제3국에서 한국행 희망 북한이탈주민 발생시 이들의 신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재국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협조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과 제3국행을 위한 외교공관 진입 또는 UNHCR 접수와 면접, 그리고 관련 절차를 위한 소요 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는 대부분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에 대한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입국 경로는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를 경유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중국, 캄보디아,

몽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향후 입국전망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전망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전체규모와 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규모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외공관 진입사태 이후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 때문에 월경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단속이 약화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어 한국정부와 미국 등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한적 수준에서라도 갖추게 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의 북한이탈주민 배출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난민위원회(USCR)의 연례 세계 난민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내에서 유랑하는 주민도 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¹⁵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체제변화가 없다면 탈북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북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주민 자신의 의지이다. 철저한 사상교육과 통제정책으로 북한주민이 탈북을 결행한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국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더욱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발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북한 주민의 선택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북한주

15 “World Refugee Survey 2002 - North Korea”, (2002. 6. 6 발표), <http://www.refugees.org/world/articles/wrs02_easia2.cfm#northkorea>.

민들의 탈북사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북한에서의 탈출자 규모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체류자 규모, 그리고 이들의 한국행 희망 욕구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체류 국가의 단속과 북한으로의 송환 때문에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 한국행, 그리고 현지 정착을 위한 적응력 제고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장기 체류자로서 북한으로의 귀환의사가 없으며 체류 국가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귀환과 현지 정착은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직접적인 한국행과 한국행을 위한 제3국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행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과 관련이 크다.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시 신변보장은 물론이고 주택제공, 교육지원, 의료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함께 단독 입국을 기준으로 1인에게 4,000만 원 수준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정착지원 제도와 한국의 자유로운 체제와 경제적 발전 상황은 북한이탈주민 한국행의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예상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이들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 입국자의 대부분은 제3국 체류 경험자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10만 여명의 재외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단 기간에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자의 상당수는 여권위조와 밀항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자력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여전히 심

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력 입국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현재상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더 이상의 월경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체제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입국자 규모는 향후 4~5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은 다음의 전제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배출요인과 중국과 한국의 유인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 내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중국의 단속 강화에 따라서 한국행 희망자 비율이 70%선에 이르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 증가에 따라서 자력 한국행 가능자가 증가하게 된다. 넷째,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시 이들의 수용을 거부할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1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 현지인 수준의 정착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들의 북한귀환이나 한국행은 사실상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분보장과 단속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국경 탈출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국내입국은 통일시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변화유형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입국자와 비교하여 출신성분, 입국목적, 입국경로, 성별분포와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표 II-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입국자의 경우

가족단위 입국자가 단독 입국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입국자의 비율은 56.4%로 나타나 있다.¹⁶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내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내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증가와 특히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국내 입국 후 자신의 잔여가족에 대한 입국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1994년 이후 본격화 된 북한주민의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의 탈출 증가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증가로 인한 소요 비용문제의 해결, 그리고 전문적인 브로커와 알선단체의 등장으로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표 11-5> 최근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2년 현재)

당해년도	입국자 (명)	가족단위 (가족)	가족단위 입국자 (명)	전체에서의 비율 (%)
1990-1993	34	0	0	0%
1994	52	3	10	19.2%
1995	41	4	13	31.7%
1996	56	9	27	48.2%
1997	85	17	59	69.4%
1998	71	12	34	47.9%
1999	148	36	91	61.5%
2000	312	50	131	42.0%
2001	583		329	56.4%
2002	1140	164	446	39.1%
누계	2423		1140	47.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재정리

1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2002. 4), p. 4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 가족에 대한 입국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잔여 가족 입국을 위해 직접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요인 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입국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종 사건이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1990년 이전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10%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20-40%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312명이었으나 이 중 여성은 126명으로서 4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1년의 경우 전체 583명 중 여성이 289명으로서 4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입국자 1140명 중 여성은 625명으로서 54.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⁷ 2003년 상반기 입국자 508명 중 여성은 354명으로서 59.2%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입국자의 비율은 6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국외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탈북 초기 남한으로 입국하기 위한 정보와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http://www.unikorea.go.kr/>>. (2003. 1. 27)

태로 3-4년 정도씩 현지 생활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화 경험은 이들에게 단독으로 남한행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어의 습득과 현지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남한행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표 11-6>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연도 성별	89년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총계
남자 (%)	563 (92.8)	9	9	6	8	48	35	43	56	54	90	186	294	515	1,966 (62.5%)
여자 (%)	44 (7.2)	0	0	2	0	4	6	13	29	18	58	126	289	625	1,214 (37.5%)
계(명)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40	3,130

출처: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재정리

현재 중국에는 수만 명의 젊은 북한 여성들이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동거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이 남한 입국자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남한 정부는 이들이 여권위조와 밀항 등의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적응능력을 상당 수준 갖고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증가는 새로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을 매우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20-40대 연령층이 70-8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령

층이 20-30%¹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11-7>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연령 현황 (2002. 6월 현재)

나이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	23	69	165	200	97	19	25	598
비율	3.9	11.5	27.6	33.4	16.2	3.2	4.2	100

넷째, 해외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외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후 국내 입국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4-5년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5-6년이 25.7%, 1년 미만 12.1% 순서이며,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 11개월이었다. 이것은 2002년의 경우 3-4년 47.4%, 1년 미만 20.9%, 1-2년 19.5%의 순서이었으며, 평균 체류기간 3년 2개월과 비교할 경우 점차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세가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아닌 기존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잠재적 입국자인 재외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시도할 경우 국내 입국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8 2002년도의 경우 30대 32.3%, 20대 29.2%, 10대 13.6%, 40대 11.3%로 나타났다.

<표 II-8>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 기간 현황
(2002. 5월 현재)

기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년 이상	탈북후 출생	계
인원	61	42	33	50	142	129	41	5	503
비율	12.1	8.4	6.6	9.9	28.2	25.7	8.1	1.0	100

다섯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체류 탈북 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또는 한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인 탈북 여성이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족 남성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 후 아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이후 자신도 국제결혼 등의 형식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남성의 경우에도 제3국 체류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입국 이후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의 탈북 여성은 입국 후 자신의 제3국 생활과 입국을 지원했던 한국 남성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섯째, 탈북과 입국 목적의 변화 추세이다. 최근 입국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기존의 탈북 사유와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식량구입과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단순히 식량구입만이 아니

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정치적 망명지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자 성격의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에게서 탈북은 더 이상 식량난으로 인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나선 자발적 이주민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일정 수준 해소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식량난을 겪으며 최악의 조건에 있었던 주민들은 사망 또는 이미 탈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으로의 탈출자 대부분은 돈을 벌어 보려는 생각으로 나온다. 따라서 출신 계급과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사회의 최하층보다는 오히려 중상류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망명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정치적 망명지라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처우와 활동제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은 북한에 대한 민주화와 통일사업을 하려고 남한에 온 것이지 밥을 벌어들이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1. 적응의 의미 및 이론

가. 적응의 의미

일반적으로 적응은 인간이 새로운 환경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은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는 과정이다.¹⁹ 그러므로 적응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기대·요구 등에 개인이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 이처럼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한사회 일반 구성원들과 동등한 기회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함께 욕구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에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과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인간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사회적응이라 한다. 즉 사회적응은 개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화를 의도적으

19 John T. Doby, Alvin Boskoff and William Pendleton,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1973), pp. 8-9.

로 추구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며,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 문화양식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응된 인간은 정상 인격을 소유하며 정상적으로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인간에게서 욕구의 충족은 적응으로 연결되나, 욕구의 불만족은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야기한다. 인간이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면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고 집단행동화 하는데, 특히 개인의 스트레스나 불만이 사회운동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²⁰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와 접촉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 개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이 좌절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 아이젠크(H. J. Eysenk)에 의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평균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닐 때, 그것을 부적응 혹은 이상(異常)이라고 부른다.²¹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응과 부적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특수한 병적 증상의 유무, 통계적으로 보아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특성, 그 문화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난 행동특성, 그리고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개인 자신이 자기의 내적 혹은 외적 문제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적응이나 부적응 현상은 개인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느냐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격과 의지 그리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응-부적응의 평가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을 맺고 있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 평가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20 Harold Kerbo,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1982, pp. 645-663.

21 H. J. Eysenk, *Handbook of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69), p. 151.

이러한 부적응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질적인 문화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치, 경제, 기술, 언어, 종교, 사회제도 등의 변화와 대인관계와 심리 내적인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와 행동의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²² 우리가 적응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우, 적응은 단선적이며,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다. 베리(J. W. Berry)는 적응과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²³ 동화는 자신의 문화나 정체성의 유지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만을 추구하는 경우이며, 통합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경우이며, 분리는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이며, 주변화는 자신의 문화 유지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적응의 과정은 주로 적응단계에 의해 논의된다. 고든(M. Gordon)은 동화과정을 7단계로 나눈다.²⁴ 첫째 단계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접촉하여 문화적 규범에 적응한다. 둘째 단계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새로운 사회의 경제, 제도적 구조를 수용한다. 셋째 단계는 결혼 동화(marital

22 Emeka Nwadiora and Harriette McAdoo,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Vol.2, No.17 (1996), pp. 480-481.

23 J. W. Berry, "Psychology of Accultur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 Vol.3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p. 216.

24 Milton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71.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새로운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된다. 넷째 단계는 정체성 동화(identification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새로운 사회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다섯째 단계는 태도수용적 동화(attitude receptional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기존 시민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일치하게 된다. 여섯째 단계는 행위수용적 동화(behavior receptional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기존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합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적 동화(civic assimilation)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시민사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갈등없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문화접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을 범주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베리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을 5단계로 나눈다.²⁵ 첫째 단계는 접촉 이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주를 결정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 원인은 사업의 실패와 좌절, 신경증적인 욕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갈구 등 개인적 동기와 전쟁의 위협, 가난, 인구과밀 등 사회적 요인들이다. 둘째 단계는 접촉기이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해서 문화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된다. 셋째 단계는 갈등기이다. 이 단계는 이주민들이 받게 되는 문화적 압력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불확실성과 혼란이 야기되기 쉽다. 넷째 단계는 위기기이다. 이 단계는 갈등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나타난다. 이 단계에 후회와 좌절, 자살, 공격적 행동, 가정불화,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이 나타난다. 다섯째 단계는 적응기이다. 이주민은 이 단계에서 갈등과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

25 J. W. Berry, Uichol Kim, Thomas Minde and Doris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21. No.3 (1988), pp. 491-509.

이와 같이 적응의 과정은 주로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 적응 그리고 정신건강의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결국 적응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특성과 이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응을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지식, 태도, 감정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나. 적응이론

일반적으로 적응의 개념은,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여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²⁶ 따라서 적응의 영역은 크게 사회와 문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적응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⁷

<표 III-1> 적응의 영역과 측면

영역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사 회	생태적 정착, 주거안정 고용과 직업, 생계안정 사회적 지위획득, 계층적 사회이동 조직적 귀속과 참여 원초적 유대형성과 집단참여	객관적 영역의 모든 부문에서 만족감과 동일시, 일체감 성취
문 화	언어습득, 생활양식 수용, 일상적 형태습득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지향 습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

26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서울: 나남, 1993), pp. 403-406.

27 이은숙, “탈북동포 수용의 제 문제”, 「북한학보」 제18집, 1994, pp. 254-255.

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이 함께 성숙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적응은 태도변용의 한 형태이면서 그 지향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적응의 의미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응이란 개념에서 유래되어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차원의 적응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 실제로 적응은 두 가지 종류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2. 태도변용이론

태도는 학술적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적 용어로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태도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신체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학술적으로 사용되면서 신체적 자세보다는 심리적 자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태도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보편화 된 것은 20세기 초 개인차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이후 인간의 태도가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태도에 대한 정의와 그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⁹ 태도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담고 있는 것은 알포트(G. W. Allport)의 정의라 하겠다.³⁰

28 Richard S. Lazarus,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acgrow-Hill Book Company, 1976), p. 30.

29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attitud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pp. 449-454.

30 G. W. Allport, “Attitude”, In C. Murchison(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Press, 1935), pp. 798-884.

그는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형성·조직된 준비되어 있는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물 및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시적 또는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태도를 인간, 사물, 장소, 상황 등 사회적 대상물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 위한 인간의 심리적 경향 내지 준비상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는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가치관은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인생목표 또는 인간행동의 기준인 반면에 태도는 바로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개인들이 갖고 있는 판단 내지 평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목적인 반면에 태도는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들의 태도나 신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³¹ 즉 가치관이란 한 인간의 태도 및 신념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태도라는 개념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² 먼저, '태도'는 요약적인 용어으로써 하나의 단일적 태도는 여러 가지의 다른 행동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태도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 행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며, 셋째,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을 설명해 주고, 나아가서 사회의 안정성까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넷째, 태도는 행동과의 관계를 떠나 그 자체로써도 중요성을 갖는다. 즉 다양한 인간들과 상황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는 그들의 세계관과 사회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태도는 행동의 비의식적 결정요인이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상충될 때 중요한 구실을 하기

31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서울: 나남, 1992), p. 36. 가치관(value), 신념(beliefs), 의견(opinion), 태도(attitude)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Milton Rokeach(1972), pp. 454-455 참조

32 Stuart Oskamp, *Attitude and Opin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7), p. 5.

때문이다. 여섯째,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요인들과 환경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을 서로 결합시켜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태도라는 개념은 심리학계에서는 현상론과 행동주의 등 다양한 학파에 공통적 관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학계에서는 ‘태도는 모든 사회적 행동의 기본’이라는 준거들을 제공해 주고, 정치학에도 여론이라는 중요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태도는 행동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간행동의 중요 결정요인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그 대상과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의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는 일정한 틀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³³ 즉 인간은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태도가 바뀐다고 해도 이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태도를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그 반대로 인간의 행동이 태도의 결정요인이라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태도와 행동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³⁴

인간의 태도는 다양하게 변화된다. 즉 인간의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에 따라 폭력, 범죄 등 일탈행위와 함께 수용, 적응, 통합,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태도변용은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 등 인간의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전반적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태도변용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태도변화를 의미한다.

33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attitud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 pp. 455-457.

34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p. 21.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 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의 형성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태도의 강화 또는 약화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태도변용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은 1940년대 초부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소수집단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태도변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태도의 개념, 측정방법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전쟁의 영향으로 인종적 편견과 같은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대적선전과 대내홍보를 위한 효과적 설득방법을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태도변용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 태도변용에 대한 연구는 이론 자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상 태도변용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심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특정한 태도변용 이론에 대한 설정 없이 1950년대는 주로 학습이론적 측면에서 태도변용을 고찰하였으며, 1960년대는 인지균형이론의 도입을 통해 태도변용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태도변용에 관한 이론들은 인근 학문분야의 다양한 이론들의 접목을 통해 발전해 왔다.³⁵ 이와 함께 기능이론, 사회적 판단이론³⁶, 접종이론³⁷ 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태도변용에 관한 이론은 다

35 M. Brewster Smith, "Attitude chang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pp. 460-466.

36 Hovland학파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태도변용과의 관계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높은 공신력을 가진 정보원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태도변화를 더 많이 유발시킨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의 사회적 판단이론은 수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자극을 어떻게 판단하며, 그 판단은 태도변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태도변용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37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은 McGuire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태도변용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유익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습이론

태도변용에 대한 이론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학습과정으로 태도변용을 설명하는 학습이론적 태도변용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태도변용에 사용되는 학습이론은 주로 자극-반응설과 기능주의설이다. 자극-반응설은 자극, 반응 그리고 연결의 세 기본개념으로 학습과정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자극이 있어야 하며, 학습자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이들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어 고정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한 연습과 조건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기능주의설은 학습이 외부자극에 의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개인내의 동인을 매개로 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인식한다. 즉 학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개인의 매개작용을 삽입시킨 '자극-유기체-반응'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Hovland학파는 태도변용은 그와 관련된 의견변화(opinion change)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의 의견도 새로운 학습경험을 체험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개인에게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노출은 그 개인에게 하나의 학습경험을 구성하게 한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었을 때 개인은 이전의 응답 대신에 새로운 응답을 생각하거나 선호하게 된다'³⁸고 밝혀 태도

38 C. I. Hovland, I. L. Janis and H. H. Kelly,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p. 7.

변용을 학습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태도의 학습과 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되는 ‘권고된 의견’과 ‘유발동인’을 들고 있다. 즉 태도변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터가 직접적 방법이나 완곡한 방법으로 수용자로부터 응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하며, 단순히 자극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의견 보다 새로운 의견을 선호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발동인으로서의 제시된 의견을 합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논증(arguments) 또는 논리(reasons) 그리고 호소(appeals)를 들고 있다.³⁹ 또한 태도변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측에 대한 수용자의 공신력과 같은 속성 그리고 상황 역시 새로운 의견을 선택하게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새로운 의견의 수용과정은 주목(attention), 이해(comprehension), 수용(acceptance)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한편 도브(Leonard W. Doob)는 조건형성적 학습원리를 태도변용에 처음 적용하여, 태도는 무언의 관찰가능한 반응으로서 강화를 통하여 학습되거나 변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태도는 행동의 연속적 과정의 일부로서 어떤 행동의 결과로부터 학습되고, 이렇게 학습된 태도는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행동은 다시금 보강되어 비슷한 자극들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질 때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다른 반응들에 대한 행동유발의 단서나 동기가 된다. 따라서 행동의 강화와 외부의 자극, 그리고 행동과의 조건형성을 통해 태도는 형성되거나 변화된다.⁴⁰ 이와 같이 태도는 행동의 강화요인으로서 또는 행동의 방향을 유도, 지시하는 선별적 자극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조건의 형성이 태도변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

39 C. I. Hovland, I. L. Janis and H. H. Kelly,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p. 11.

40 Leonard W. Doob, "The Behavior of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947(54), p. 136.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pp. 64-65 재인용.

고 있다. 태도변용에 대한 학습이론적 방법은 태도변용의 과정과 학습과정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복잡한 인간의 태도변용을 단순화된 학습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습이론들은 태도변용 현상의 설명에 유용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태도형성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인지균형이론

인지균형이론은 인간이 균형, 조화 또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왜 이러한 욕구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인지균형이론은 욕구의 불만족 상태 즉 인지불균형 상태가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러한 긴장감의 해소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요소를 재배치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태도변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인지균형이론은 조건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균형원리에 의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균형이론은 하이더(F. Heider)의 평형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후 다양한 이론들이 발표되었다.⁴¹ 평형이론은 개인들이 다른 사람과 사물 또는 아이디어간의 관계를 지각 내지 판단함에 있어서 균형 또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41 인지균형이론은 Heider의 평형이론 이외에도 Newcomb의 대칭이론(theory of symmetry), Cartwright 등의 구조적 평형이론(structural balance theory), Rosenberg와 Abelson의 감정-인지균형이론(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theory), Osgood와 Tannenbaum의 일치이론(congruity theory), 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dissonance theory), McGuire의 논리적 균형이론(logical consistency theory), Rokeach의 신념일치이론(belief congruence theory) 등이 있다.

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평형이론은 태도변용이 일어나는 경우와 왜 태도변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평형이론에서 ‘평형상태는 인지적 긴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서, 이것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저항이 발생하며, 반대로 불평형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긴장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것을 해소하고 평형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또한 평형이론은 평형상태가 불평형상태보다 심리적 유쾌감을 더욱 느낄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즉 태도변용은 인지체계에 불평형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평형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심리적 긴장이 개인들에게 변화를 동기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결국 불평형상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태도변화를 강요하기 때문에 태도변용이 나타난다. 평형이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탈북 초기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오히려 태도변용을 통해 적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페스팅거(L. Festinger)는 자신이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을 강제적 추종의 문제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강제적 추종이란 사적 의견의 변화 없이 또는 그러한 변화 이전에 공적 또는 외적 압력에 의한 추종 또는 복종을 의미한다. 강제적 추종은 벌의 위협이나 賞의 제공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강제적 추종이 일어나면 의견과 행동간에 인지부조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강제적 추종 역시 태도변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² 강제적 추종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일방적인 순응을 요구할 경우 나타나게 되며, 실제적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부조화이론은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택적 노출현상 즉 수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가치와 일치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페스팅거는 사회적 지지(social

42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pp. 138-139.

support)현상에도 인지부조화이론이 적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타인의 의견과 행위에 대한 동의는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며, 타인에 대한 부동의 또는 반대는 인지부조화를 증가시킨다고 한다.⁴³ 선택적 노출현상과 사회적 지지 현상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노출되는 일반적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태도변용의 원리에 대한 인지균형이론의 설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증적 입증자료의 부족, 인지불균형과 부조화 정도에 대한 수량화 애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정보원에 대한 반응의 정도 및 종류 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개인차에 대한 설명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 기능이론

인간에게 태도변용이 일어나는 원인과 동기, 방법 그리고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인지균형이론은 태도변용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도변용에 관한 기능이론들의 기본입장은 개인들의 욕구를 동기의 구조와 연관시켜 태도변용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기능이론은 개인들의 성격적 욕구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개인의 태도와 그 변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⁴⁴ 그러므로 기능이론은 ‘태도는 개인들의 어떤 욕구나 동기를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구

43 이러한 이론에 대한 타당성 검증결과는 J. L. Freedman and J. Steinbruner, “Involvement, discrepanc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31(1964), pp. 371-385; L. Festinger, H. W. Riecken and S. Schachter, *When Prophecy Fails: A social and psychological study of a modern group that predicted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5) 등을 참조.

44 Stuart Oskamp, *Attitude and Opinions*, p.175.

나 동기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서로 다른 태도를 갖게 되며, 또한 변용시키게 된다. 따라서 태도변용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태도를 변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의 기능을 알아야하며, 결국 태도의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서 개인들의 태도변용이 가능하다⁴⁵는 학설이다. 기능이론은 그 주요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스미스·브루너·화이트의 이론이다. 이들은 태도변용의 원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태도와 의견들이 개인들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태도를 “어떤 대상물들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양태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또한 그러한 대상물들에 의해 동기화 되어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기존성향”⁴⁶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들의 태도나 의견이 개인들의 성격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태도나 의견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과 변경시키는 방법에 도움을 주어서 개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그들의 성격이 계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실을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어떠한 태도나 의견을 견지함으로써 수행되는 기능으로는, 대상물에 대한 평가기능, 사회적 적응기능, 외적 표출기능이 있다고 한다.

평가기능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환경 대상물 즉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일정한 정향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며, 사회적 적응기능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촉진·유지 또는 방해시키는데 있어서의 태도나 의견의 기능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어떠한 사회집단에 소속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집단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태도를 표명하는데 반해 반대의 경우에는 수용되기 어려운 태도나 의견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적 표출기능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내적 문제를

45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p. 160.

46 M. B. Smith, J. S. Bruner and R. W. White,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1956), p. 39.

방어할 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종적 편견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은 ‘태도는 왜 변화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된 태도의 3가지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바뀌게 되면 태도에 변화가 온다고 답하고 있다. 즉 현실의 어떤 측면에 대한 새롭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획득한 경우, 사회적 요인의 수정 또는 우려감을 유발시키는 개인들 내부의 내적 문제들에 대한 변화에 따라 태도변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들은 태도를 변용시키기 위해서는 태도의 기능과 그 본질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카쯔(D. Katz)의 태도변용에 대한 기능이론은 왜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되며, 또한 이러한 태도가 변용되는 이유를 개인들의 심리적 욕구 또는 동기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이다.⁴⁷ 따라서 태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핵심인 감정적 요소들 및 태도의 대상물, 그것의 특성, 그리고 그것과 다른 대상물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인지적 또는 신념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태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수단적, 적응적 내지功利적(instrumental, adjustive or utilitarian)기능, 자아 방어적(ego-defensive) 기능, 가치 표현적(value-expressive) 기능, 지식적(knowledge) 기능 등 4 가지를 들고 있다.

태도변용의 발생원인에 대해 태도변용은 그 태도가 수행해주고 있던 개인들의 기존의 욕구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해 줄 필요가 없거나 또는 수행해 줄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태도의 각 기능별로 그 기능을 수행해 주고 있는 태도들이 어떤 조건에서 변용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7 D. Katz,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1960), p. 170.

<표 III-2> 기능별 태도의 유발 및 변용의 조건

기능별 태도	해당태도의 기능	태도의 유발조건	태도의 변용조건
수단적·적응적·공리적 기능의 태도	욕구만족 즉 외적 상의 극대화와 별의 극소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 수행	① 욕구의 활성화 ② 욕구만족과 관련된 단서의 명료화	① 욕구의 상실 ② 새로운 욕구 및 새로운 기대수준의 조성 ③ 상과 별의 전환 ④ 욕구만족을 위한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강조
자아 방어적 기능의 태도	내적갈등과 외적위협에 대한 방어	① 위협의 출현 ② 적대감 및 억압된 충동에 대한 유발 ③ 욕구불만의 유발 ④ 권위적 암시의 사용	① 위협의 제거 ② 감정정화(catharsis) ③ 자기통찰력 발달
가치표현적 기능의 태도	자아주체성의 유지, 긍정적 자아개념의 제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의 욕구충족	① 가치와 관련된 단서의 명료화 ② 자아 이미지의 주장에 대한 강조 ③ 자아개념을 위협하는 다양성의 존재	①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족 ② 자신을 위한 보다 적절한 새로운 태도의 획득 ③ 기존의 가치관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적 요인 통제
지식적 기능의 태도	이해, 유의미적인 인지조직, 일관성과 명료성에 대한 욕구	① 기존의 문제점들과 연관된 단서 또는 기존의 문제점 그 자체에 대한 재진술 내지 확인	① 새로운 정보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 모호성 ② 주어진 문제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정보 획득

출처: D. Katz,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1960), p. 192 재정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형의 태도가 변용을 일으키는 조건과 그 내적인 태도가 활성화되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태도유발(attitude arousal)의 조건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태도의 유발은 태도와 관련된 환경적 단서에 의한 자극이나, 개인들의 내재적 욕구의 발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며, 태도변용은 하나의 주어진 태도가 그 기존의 욕구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기존 태도의 수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각할 때 더욱 쉽게 태도변용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개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함으로써 태도변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장래에 직면하게 될 상황들을 설명하여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이들의 적응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카프의 기능주의 이론은 개인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측정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태도변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라. 켈만의 기능이론

켈만(H. C. Kelman) 역시 기능적 입장에서 태도변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앞의 이론들과 달리 태도변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된 실험연구를 통해 자신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을 시계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유용성 있는 이론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은 켈만의 태도변용 과정을 원용하여 구성하였다. 그의 이론의 기본가정은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의 조건 아래서 습득되었거나 또는 서로 다른 동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의견이나 태도는 그들의 질적 속성과 후속적 결과상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⁴⁸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특성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는 태도변용을 동기와 선행적인 사회적 영향들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의 과정에 따라 추종(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3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⁹

먼저 사회적 영향에의 추종이다. 추종은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추종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된다. 이 때 개인이 영향을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 내용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그 반대로 어떤 벌이나 배척을 피하려는 희망 때문이다. 따라서 추종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은 그 영향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회적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께만은 추종에 의한 태도는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외적 유발요인(external incentives)을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회적 영향에의 동일시이다. 동일시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하여 스스로 규정한 만족스러운 관계를 수립하거나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관계는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접수하는 것과 같은 고전적 동일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상호적 역할관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개인들은 동일시를 통하여 채택한 반응들은 실제로 믿게되기 때문에 추종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셋째로는 사회적 영향에의 내면화이다. 내면화는 어떤 하나의 태도 내지 의견이 자신의 가치체계와 일치하고 그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받아들일 경우 일어나게

48 H. C. Kelman,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1961), p. 60.

49 H. C. Kelman,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958, p. 53.

된다. 또는 이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맞
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 채택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영향과 태도변용의 과정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3 가지 과정들은 상호배타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단 한가지의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태도나 의견들은 3 가지 과정들의 조합
적 형태로 나타난다.⁵⁰ 인간들의 태도는 실제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용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태도변용의 선행조
건(antecedent conditions)과 후건(consequent conditions)들을 3가지 과
정에 따라 각각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⁵¹

<표 III-3> 태도변용의 3 가지 과정별 선행조건과 후건

	조건들의 유형	추 중	동 일 시	내 면 화
선 행 조 건	① 동기적 조건들	행동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관심	행동의 사회적 정착화에 관한 관심	행동-가치관간의 일치
	② 영향원의 힘에 관련된 조건들	수단의 통제	매력	공신력
	③ 영향발생의 양태 에 관련된 조건들	선택적 행동의 제한	역할의무의 구체화	수단-목적관계의 재조직
후 건	① 외적 표현화의 조건들	영향원에 의한 감시	영향원과의 관계 명료성	가치관과의 유관성
	② 재변화와 소거의 조건들	사회적 상의 조건에 대한 지각의 변화	영향원과의 자기규정적 관계에 대한 지각의 변화	가치극대화의 조건에 대한 지각의 변화
	③ 행동체계의 유형	특정한 상황에 대한 외적 요구	특정한 역할의 규정에 대한 만족	개인의 가치체계

50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p 187.

51 H. C. Kelman, "Proces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1961), p. 67.

먼저 선행조건을 살펴보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영향에 의하여 유발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들의 동기적 조건들, 영향원의 힘에 관련된 조건들, 그리고 주어진 영향이 발생하는 양태에 관련된 조건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추종이라는 태도변용의 과정은 그 추종행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며, 영향원이 상이나 벌을 줄 수 있는 수단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종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동이 거의 없다고 개인들이 생각할 때 쉽게 일어나게 된다. 동일시의 태도변용과정에서는 개인들이 영향원에 대해 신뢰와 매력을 갖고 있어 이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촉진시키려 할 때 태도변용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끝으로 내면화의 태도변용과정에서는 개인들이 영향원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있을 때 태도변용이 일어나며, 그 수준은 공신력의 정도에 달려있다.

선행조건과 함께 후건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후건은 추종, 동일시, 내면화가 이루어진 뒤 그 결과로서의 개인들의 태도나 의견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느냐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것은 유발된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조건들, 변용된 의견이나 태도가 다시 변화되거나 또는 소거되는 조건들 그리고 그 유발된 반응이 깊이 새겨져서 일으키게 되는 행동체계의 유형들로 나누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추종상황에서 습득하거나 형성된 태도나 의견은 영향원에 의한 감시가 존재할 때만 겉으로 표현되며, 동일시 상황에서 습득된 개인들의 태도나 의견은 개인들이 영향원과의 명백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한하여, 그리고 내면화에 의하여 습득된 태도나 의견은 그것이 개인들의 어떤 가치관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개인 자신들이 지각하고 있을 경우에만 겉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⁵² 이와 같이 변용된 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유지

52 H. C. Kelman,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958), p. 54.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태도변용의 유도방법으로서는 부정적 설득문이 긍정적 설득문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 방향의 정보에 기초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사람보다는 상반되는 양방향 모두를 고려한 정보를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는 사람이 더욱 안정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태도의 일시적 이동보다는 지속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태도를 변화시킬 때 감정적 대립을 가져다주는 정보보다는 인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⁵³ 그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변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의 내용은 인지적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사회화 이론

사회화는 인간성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퍼스널리티 형성, 사회적 학습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화는 근본적으로 경험으로부터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학습은 지식(정보), 동기(가치), 태도(의견)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화는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선행요건이다. 그러므로 사회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학제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화는 근본적으로 학습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을 들 수 있다. 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의 학습행동을 이해하는 데 적응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이념과 환경이 다른

53 신건호, “긍정적 설득과 부정적 설득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8, pp. 64-69.

곳으로 이주할 경우 인간 본연의 학습욕구에 따라 적응하여 생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다룬다.⁵⁴ 이를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체계는 주어진 환경적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응(adaptation), 목적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패턴유지(pattern maintenance)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학습이론은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기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적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화에 관한 이론들은 학습이론 뿐만 아니라 성격이론(personality theory)과 역할이론(role theory)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⁵ 학습은 훈련(training)을 통해 습득되는 모든 행태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며, 모방(imitation)에 의해서도 진행된다. 또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화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은 매개변수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할이론가들은 개인의 행태는 사회문화적인 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각 개인의 사회에서의 위치는 집단 구성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되는 역할에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인간의 의식구조나 행동은 어떤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린시절의 사회화는 학습이론이 상대적인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

54 이러한 인식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19세기 이후 하나의 지적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을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 사회적 동물로 설명하고 있다.

55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8-16.

이며, 성인의 사회화는 성격이론과 역할이론이 더 적절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겠다.⁵⁶ 이와 같이 사회화는 복합적 과정이기 때문에 단일이론으로 설명하기는 극히 곤란하며, 사회화에 대한 여러 이론들은 이들의 단순한 절충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의 사회화는 종종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재사회화란 원래의 생활양식을 버리고, 그와는 매우 다른, 흔히 양립할 수 없는 생활양식을 따르기까지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⁵⁷ 이와 같이 재사회화는 대부분 성인이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이전에 받아들인 가치와 행위유형을 파괴하고 전혀 상이한 것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사회화는 개인이 정신병원, 감옥, 군대 또는 그들이 바깥 세계로부터 떨어져 엄격한 새로운 규율과 요구에 종속되는 상황 등과 같은 폐쇄조직에 들어갈 때 주로 일어난다.⁵⁸

재사회화 과정은 신입자가 기존 집단의 규범, 가치 및 조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동화와 신입자의 욕구에 맞추어 기존 집단이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절을 통한 일반적 의미의 사회화 과정보다 오히려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이 원만치 않을 경우 집단은 개인을 거부 또는 추방하려고 하고 개인도 집단을 떠나거나 이탈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사회화 과정의 한 특징이다.⁵⁹ 이처럼 재사회화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개인의 성장 발달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사회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56 이정식, 「정치학」 (서울: 대왕사, 1993), pp. 259-263.

57 이동인 외, 「재사회화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p. 123.

58 Anthony Giddens, *Sociology*, (London: Polity Press, 1993), p. 80.

59 이장호, “남한이주자(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발표논문, (1996. 9. 20), pp. 4-5.

4. 문화접변

문화접변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회가 직접, 간접으로 접촉함으로써 문화변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⁶⁰ 문화접변 과정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교호 작용을 내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용하는 사회와 수용되는 사회라는 힘의 불균형을 통해 일방적인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문화접변에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화 또는 수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⁶¹

문화 접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무어(W. E. Moore)는 접촉의 주요 모형들을 제시하고 각 모형들의 영향력의 폭과 깊이에 따라 그 순위를 열거하였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⁶² ① 제국주의, 식민화와 간접통치 포함, ② 기타 정복·전쟁·군사적 점령, ③ 선교사의 전교, ④ 대규모 인구이동, ⑤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주, ⑥ 경제적인 교역, ⑦ 관광, ⑧ 노동자의 운송(특히 노예·계약노동자·수인노동자 등의 강제출국), ⑨ 지식의 전파, ⑩ 외교·간접적 접촉·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위의 순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수가 증가할 경우 상당 수준의 문화접촉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간 문화접변의 일

60 문화인류학 등에서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는 문화적응으로 번역되고 있다.

61 R.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3), p. 203.

62 Wilbert E. Moore,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4), p. 90.

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접변의 경우, 첫째, 개인의 정체성 문제, 둘째,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 문제, 셋째, 차별과 집단간 갈등의 문제, 넷째, 부적응자 발생의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된다.⁶³ 또한 문화접변은 관련 문화의 체계, 접촉상황의 성질, 접촉관계, 접촉 후 문화과정 등 4가지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갑작스런 문화접변으로 커다란 태도변용을 보이게 된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 출신들은 자본주의 시장법칙을 습득해야 했다. 이들은 직업의 가치, 성취의 가치는 물론 때로는 사회적 관계의 가치까지도 금전적으로 표현되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더구나 이들은 은행업무·보험 등 일상생활의 매우 사소한 일들의 처리방법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했고, 새로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자발성과 솔선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또한 수입과 생활기준에서의 부족함과 무능력의 경험은 이들에게 2등 시민이라는 집합적 열등감 콤플렉스를 초래했다. 사회내에서 특정 집단이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은 심리적 좌절감과 공격성을 가져와 파괴주의와 폭력행위 등을 증가시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⁶⁴

비교문화 심리학에서는 문화접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⁶⁵ 훈련 프로그램은 타문화에 가서 살 예정이거나, 타문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인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⁶⁶ 또 동일 문화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

63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이장호·이춘재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p. 34.

64 Heinz-Ulrich Kohr, “독일통일에서의 심리학적 문제”, 이장호·이춘재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p. 76.

65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R. Brislin, K. Cushner, C. Cherie, and M. Yong, *Intercultural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1986) 참조.

문화를 가진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훈련방법으로는 강의나 책자 등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적 훈련, 행동방식을 바꾸는 행동수정, 역할극 등을 통해 선경험을 해보는 경험훈련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귀인훈련 등이 있다. 특히 귀인훈련의 경우 오해는 하나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귀인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타문화로 이주한 사람이 기존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귀인하며, 왜 그렇게 귀인하는가를 습득하게 되면 문화에 대한 적응이 촉진된다. 귀인훈련의 대표적 방법은 문화이해지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훈련을 통해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해 남한주민들에게 실시되는 교육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해 습득되는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감수성’이다. 즉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야 하며, 이와 함께 자신의 지식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적응적 변동까지 포함하는 문화접변은 문화수용, 동화,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⁶⁸ 문화수용은 두 개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을

66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산하 체제적응연구센터가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남북통합교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67 문화이해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약 100개 정도 선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의 행동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상대방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의 제작방법에 대한 실례는, 정진경, “남북한 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pp. 170-184.

68 문화수용, 동화, 변형의 설명은 고영복·한균자, 「사회학개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0), pp. 91-92 참조. 기든스는 미국에서 가능한 미래의 종족

하면서도 각각 자체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내에 공존하는 문화현상을 의미한다.

동화(assimilation)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와 유사해지거나 지배문화권속으로 흡수되어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에 일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현상이다. 특히 동화는 갈등 없이 융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문화변형(transculturation)은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오랜 기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적 특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문화현상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큰 틀에서 본다면 동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화를 사회구조와 문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⁶⁹ 첫째, 유입되는 측이 기존 문화와 언어 등을 습득하여 문화를 바꾸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가 있다. 둘째, 새로운 사회의 다양한 제도, 조직, 단체 등에 가입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으로서 사회구조적 동화(social structural assimilation)가 있다. 셋째,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반 제도와 상거래 관행의 습득 그리고 합리적 경제행위의 도모를 위한 경제적 동화(economic absorption)를 들 수 있다.

고든(M. Gordon)은 동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⁷⁰ 즉

적 발전모델로 동화(assimilation)모델, 다종족 융합(melting pot)모델,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nthony Giddens(1993), pp. 280-281.

69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p. 69.

70 Milton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각 단계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 결혼 동화(marital assimilation), 정체성 동화(identificational assimilation), 태도수용적 동화(attitude receptional assimilation), 행위수용적 동화(behavior receptional assimilation), 시민적 동화(civic assimilation)의 7단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문화접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을 범주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 따라 동화의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범주화에 포함되는 수를 기준으로 동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위의 7가지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새로운 사회에서 충격과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이한 문화가 접촉할 때 인간은 문화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적응과정에서 문화지체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른 폐쇄적 단절상태에서 나타나는 지역간의 이동은 가장 극적인 개념인 문화충격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⁷¹ 문화충격은 자신이 생활하던 기존 문화권의 생활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권에 유입되었을 경우 겪게 되는 극심한 혼란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문화충격은 원시인에 가까운 부족이 문명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상태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문화지체는 문화변동시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분야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어느 측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에 어느 측면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화부조화 현상이다. 또한 문화지체는 사회와 문화의 각 분야별 적응수준의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 Press, 1964), p. 71.

71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pp. 68-69.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가치관, 사고방식 등 사회심리적 측면의 적응에 비해 경제적 측면의 적응이 더욱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민사회, 동독출신들의 서독 이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의 접변은 문화 적응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문화에서의 급격하면서도 과도한 변화로 야기되는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 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개념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확장시킨 개념으로써, 이는 난민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건강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충격의 대안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합을 어렵게 하고,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이주민은 불안감, 우울, 소외감, 정체성 혼란 등 각종 스트레스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⁷²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이주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조건 즉 문화적응의 유형이나 이주민을 수용하는 사회의 이들에 대한 태도와 특성,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대처 능력 등에 따라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⁷³

5. 동기이론

일반적으로 적응은 개체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 상황과의 조화이다. 그러므로

72 Carolyn L. Williams and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46, No.6, (1991), pp. 633-634.

73 Kamela Libekind, "Acculturation and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7, No.2(1996), p. 161.

인간의 욕구 충족은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인간행동을 이해할 때 ‘왜 그러한 행동이 유발되었는가’의 질문은 동기와 가장 관련성이 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연구와 이론 중 그들의 욕구와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적응문제를 접근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특히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탈출을 감행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의 탈북 동기와 인간으로써 갖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것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으로서의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동기와 욕구를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동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한다.⁷⁴ 첫째, 인간 동기의 표현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문화권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유사한 동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이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반대로 동일하지 않은 동기도 유사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셋째, 동기는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어떤 단순한 행위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동기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동기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모든 사람은 독특하게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동기 이론은 이 같은 특성을 인정한다.

동기(motivation)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통해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자극하고 방향을 지어주며 유지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 ‘어떤 목표나 유인을 향한 행동이나 충동을 일으키는 신체적, 심리적 결핍 또는 욕구에서 시작하는 과정’ 등과 같이 하나의 과정이나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으로 동기는

74 E. R. Hilgard and R. C. Atkinson, *Introduction to Psychology* 4th ed. (Harcourt & Brace, 1967), pp. 141-142.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 방법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지어주고 계속하게 하는 힘’,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며 지속하려는 경향을 뒷받침해 주려는 내적임 힘’과 같이 힘(forces)으로 정의되기도 한다.⁷⁵ 이와 같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유발된 행동을 유지하며, 그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과정이나 상태, 그리고 그 힘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인간행동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심리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욕구이론은 인간의 많은 복잡한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 이론가로는 머레이(H. A. Murray), 맥클리랜드(D. C. McClelland), 아트킨슨(J. W. Atkinson)과 마슬로우(A. H. Maslow)등이 있다. 머레이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하여 30개로 분류한 욕구 리스트를 만들었으며⁷⁶, 인간행동을 욕구의 충족과정이라고 가정하였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만족을 가져오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긴장감이나 불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욕구의 발생과 증감, 그리고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의 전이는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의 개인행동을 설명하는데 흔히 적용되고 있는 동기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 유지시키는 내적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과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75 Lawrence I. O'Kelly, "Motivation: The Concep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0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pp. 507-513.

76 욕구 리스트 내용은 H. A. Murray,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Chap.3. 참조

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내용과 욕구의 조절과 충족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욕구의 내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기의 출발점이 되는 욕구가 발생하면 어떤 행동이 발생하게 되며, 그 행동은 목적을 지향한 활동이 된다. 욕구는 유기체 또는 조직체의 내부에서 어떤 것이 결핍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힘 또는 의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하면 욕구는 충족되고 동기의 매커니즘은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행동의 동기가 되는 욕구의 내용을 밝히고, 욕구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욕구충족 행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내용이론이라 한다. 이러한 욕구중심의 내용이론은 마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need hierarchy theory),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dual-factor theory)⁷⁷,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⁷⁸ 등이 있다. 마슬로우나 알더퍼는 욕구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데 비해, 맥클리랜드에 의하면 욕구는 후천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맥클리랜드는 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성과의 차이는 대부분 성취에 대한 개인적 욕구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슬로우와 알더퍼의 이론을 중심으로 욕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마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이다. 그는 인간이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77 허즈버그이론은 직무에 만족을 주는 요인을 동기요인(motivators),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을 위생요인(hygiene factors)으로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했다. 기업의 직무자료에 기초한 연구의 결과 직무에 대한 만족은 직무의 경험과 직무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나,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직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F. Herzberg, B. Mauser & B. Snyderman,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John Wiley & Son, 1959)

78 맥클리랜드에 의하면 욕구는 생활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인 것으로 학습되고 획득되며, 가르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D. 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N. J: Van Nostrand, 1961)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욕구 충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욕구에 의해 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욕구가 복합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행동과 욕구를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동기를 생물학적 욕구에서부터 가장 상위의 동기인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5개의 범주로 나누고 동기의 위계를 가정하였다. 즉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구는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본능적 및 물질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임을 알 수 있다.⁷⁹

마슬로우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결핍의 존재인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동기화 된다. 그러므로 충족된 욕구는 동기화 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욕구는 중요도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자기실현과 같은 최상위의 욕구까지 일련의 계층제로 배열되어 있다. 셋째, 인간의 욕구는 보다 낮은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욕구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

79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pp. 35-58. 이와 관련하여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적 욕구(survival needs)'와 '초생존적 욕구(trans-survival needs)'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는 생존적 욕구에 속하는 것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 신체적 운동의 욕구를 들고 있으며, 초생존적 욕구로는 종교적 욕구와 예술적 욕구 곧 심미적 욕구를 들고 있다. Erich Fromm, *The Revolution of Hope*, Bantam Books (New York, London, Toronto: Harper & Row, 1968), p. 70.

<표 III-4>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자기실현의 욕구(잠재능력 발휘) (self-actualization needs)
자기존중의 욕구(자존·자율·성취) (esteem needs)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애정·소속감·우정)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안전의 욕구(공포, 위협 및 피해로부터 보호) (safety and security needs)
생리적 욕구(의식주 및 생명유지와 관련된 욕구) (physiological needs)

그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이며,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이 욕구는 육체적 욕구와 물질적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굶주림(음식), 갈증(물), 성, 수면(잠자리), 주거와 의복 등 일반적인 생존의 조건들이 포함된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이 욕구는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함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욕구이다. 이는 생물체로서의 인체에 대한 균형과 외부침입에 대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되며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자기방어의 욕구로써 보호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생명과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 욕구가 포함된다. 이것은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 신변안전, 심리적 안정, 불안과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위협으로부터의 구조, 질서 등의 욕구로 나타난다. 안전의 욕구는 평화롭고 순조로운, 안정된 좋은 사회에 살려는 것으로써, 이런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야생동물, 극한적인 기온, 폭

행, 살인, 혼란, 폭동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을 느끼게 한다. 안전의 욕구는 사회의 법과 질서, 권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매우 위급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나 보호자, 그리고 안정된 사회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 집단에서 준거집단까지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여 귀속감을 갖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나타나는 것으로써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 애정, 소속의 욕구라고 한다. 여기에서 애정 또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 관계나 단순히 성적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고 상호의존적인 신뢰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친구나 연인, 아내, 아이의 부재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며, 외로움, 친근한 사람이 없는, 사회적 연대성이 없는 것의 고통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애정과 친화의 욕구는 인간관계의 사회적 혹은 집단적 성격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며, 자신의 소속집단에서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구성원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집단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실제로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좌절되기 쉬운 욕구이다.

자기존중의 욕구는 명예를 강조하는 사회적 욕구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두 가지의 욕구로 구분된다. 자기존중은 강함, 성취, 타당함, 전문성과 적성, 세상일에 부딪혔을 때의 자신감, 독립성과 자유 등과 같이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구, 자치의 욕구, 성취의 욕구, 능력 신장의 욕구 등이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욕구는 평판, 특권, 신분, 명성과 명예, 우월, 인정, 관심, 중요성, 존엄, 또는 진가의 인정 등을 향한 욕구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열등감, 낙담, 무력감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실현의 욕구는 위의 전 단계가 먼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나타난다. 이것은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이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자신에

게 적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로운 불만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실현은 자아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욕망, 즉 인간이 잠재적인 자기자신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욕구는 외부적 보상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실현의 욕구에 지배되면 이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그 뒤에도 계속하여 이 욕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른 욕구와의 차이점이다. 이 단계의 충족을 위한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한 비록 발전된 사회의 경우에도 자기실현 이하의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사람들은 극히 적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기실현 욕구의 성질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처럼 동기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 혹은 시기적으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욕구의 수준과 순서는 생물학적으로 인간본성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욕구의 계층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생리적 욕구수준과 나머지 포괄적인 욕구수준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한 개인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하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셋째, 한 단계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개인에게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한 가지 행위나 활동의 결과로써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⁸⁰

다음은 알더퍼의 욕구 이론이다. 알더퍼의 욕구 이론은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욕구와 동기를 현실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욕구(existence), 관계욕구(relatedness), 성장욕구(growth)의 3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ERG 이론이라고 한다.⁸¹ 그 주요내용을

80 최재열 외, 「인사관계론」(서울: 학문사, 1999), p. 357.

81 ERG 이론은 Clayton P. Alderfer,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Benjamin Schneider and Clayton

보면 인간의 욕구는 결핍에 의해 동기가 발생하여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각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그 욕구의 중요성은 상승하여 욕구가 더 강해지고, 하위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상위욕구의 자극이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하위욕구는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알더퍼 이론은 마슬로우 이론과는 욕구위계의 구분은 물론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² 첫째, 마슬로우는 하위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상위의 욕구로 진행한다고 보았으나, 알더퍼는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는 그 보다 낮은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해당 욕구가 증가하는 ‘좌절 - 퇴행’의 과정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마슬로우는 다섯 가지 욕구가 구별되고 그 중 우세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알더퍼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정한 시점에서 세 욕구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욕구와 욕구 사이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욕구가 연속되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셋째, 마슬로우는 인간욕구를 무의식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알더퍼는 인간욕구를 의식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욕구는 의식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우세한 욕구는 자신에 의해 잘 인식된다고 한다. 따라서 질문지나 면접 등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관계와 성장욕구는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욱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ERG 이론은 마슬로우의 이론과 유사하지만 욕구분류의 범주를 보다

P. Alderfer, "Three Studies of Need Satisfactions in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8 (December, 1973), pp. 489-505 참조

82 E. J. McCormik and D. R. Ilgen, *Industrial Psychology 7th ed* (Prentice-hall, 1980), pp. 266-267.

크게 하여 복합된 욕구의 종합적 자극의 개념으로 개인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III-5> 마슬로우와 알더퍼의 욕구위계 비교

미슬로우(Maslow) (categories)	알더퍼(Alderfer) (categories)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	성장(Growth: G)
자기확신의 자존심(Esteem-self-confirmed)	
대인관계의 자존심(Esteem-interpersonal)	관계(Relatedness: R)
애정(소속감) (Love (belongingness))	
대인관계의 안전(Safety-interpersonal)	
물질적 안전(Safety-material)	존재(Existence: E)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출처: C. P. Alderfer(1972), p. 25

존재욕구는 굶주림, 갈증, 수면, 거처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물질적 욕구들이 포함된다. 이 영역은 미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해당된다. 이 욕구와 관련된 물질들은 음식, 주거지, 돈 등이 포함된다. 관계욕구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욕구이다. 즉 타인과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핵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부모, 상사, 사장, 직장 동료, 형제와 같이 자신이 가치를 크게 두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성장욕구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본질적인 욕구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창의력 발휘 그리고 자기 능력의 완전한 발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주로 얻어진다. 그러나 알더퍼도 이 욕구의 중요한 개념적 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 욕구의 만족수준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이론이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으나, 많은 행동과학자들에 의해 욕구 개념에 근거를 둔 가장 타당성 있는 연구조사가 가능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⁸³ 오늘날 알더퍼 이론은 마슬로우나 허즈버그 이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의 제공이 용이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이 함께 성숙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적응은 태도변용의 한 형태이면서 그 지향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응 실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6. 전반적인 적응실태

가. 일반적 특성

우편설문대상자 2510명중 설문에 응답한 78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50.8%)과 여성(49.2%)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7%로 가장 많고, 20대(23.7%), 40대(18.9%), 50대(9.4%), 60대(7.7%), 10대(4.6%) 순으로 나타난다.

83 최재열 외, 「인사관계론」, p. 361.; 김원경, 「인적자원관리론」(서울: 형설출판사, 1999), p. 280.

<표 III-6> 성별 분포도

	빈도	유효 퍼센트
남자	393	50.8
여자	380	49.2
합계	773	100.0

<표 III-7> 연령별 분포도

	빈도	유효 퍼센트
10-19세	36	4.6
20-29세	184	23.7
30-39세	278	35.7
40-49세	147	18.9
50-59세	73	9.4
60세 이상	60	7.7
합계	778	100.0

학력별로는 무학(0.5%)과 인민학교졸업(4.3%)이 5%미만이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자(62.0%)가 대부분이며, 전문학교(16.5%), 대학교 이상(16.7%)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8> 학력별 분포도

	빈도	유효 퍼센트
무학	4	.5
인민학교	33	4.3
고등중학교	478	62.0
전문학교	127	16.5
대학교 이상	129	16.7
합계	771	100.0

국내체류기간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년 이하인 경우가 300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며, 2년 미만인 경우 29.2%, 3년 미만인 경우 15.4%를 차지하며, 4년 미만과 5년 미만이 각각 6.7%와 3.3%로 나타난다. 설문대상이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었기 때문에, 11년 이상의 경우로 응답한 2건은 실측값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즉 1998년 이전 입국자의 경우는 43건으로 전체의 5.6%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입국자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체류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설문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입국한 경우 사회적응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더욱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을 파악하여, 해외체류의 경험이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III-9> 한국 거주 기간 (예: 25 24년 초과~25년 이하)

연	빈도	유효 퍼센트
1	300	39.5
2	222	29.2
3	117	15.4
4	51	6.7
5	25	3.3
6	13	1.7
7	13	1.7
8	12	1.6
9	2	.3
10	2	.3
11	1	.1
25	1	.1
29	1	.1
합계	760	100.0

설문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기간은 1년 이하가 160건으로 21.4%, 3년에서 4년 이하가 156건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2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는 17.8%, 4년 이상 5년 이하가 16.4%, 1년 이상 2년 이하의 경우는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도 12.3%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10> 외국의 생활 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1	160	21.4
2	84	11.2
3	133	17.8
4	156	20.9
5	123	16.4
6	59	7.9
7	17	2.3
8	10	1.3
9	5	.7
10	1	.1
합계	748	100.0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432건, 56.7%)가 기혼인 경우(330건, 4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입국 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가 47.8%이며, 친척(0.6%)이나 친구(14.4%)와 같이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는 269건인 34.8%이다. 현재가족과의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신인 경우가 35.7%이며, 가족단위, 부부, 양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40.2%, 19.5%, 1.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63.2%로 그렇지 않은 경우(3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1> 결혼 유무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330	43.3
아니다	432	56.7
합계	762	100.0

<표 III-12> 입국 시 동반

	빈도	유효 퍼센트
가족 모두	162	21.0
가족 중 일부	207	26.8
친척	5	.6
친구	111	14.4
단독(혼자)	209	34.8
기타	19	2.5
합계	773	100.0

<표 III-13> 북한, 제3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유무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475	63.2
그렇지 않다	276	36.8
합계	751	100.0

<표 III-14> 함께 사는 사람

	빈도	유효 퍼센트
가족	311	40.2
양부모	13	1.7
독신	276	35.7
부부	151	19.5
기타	23	3.0
합계	774	100.0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가장 높은 45.0%를 차지하고, 경기, 부산, 대전, 경남, 충남, 강원, 인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구 임대주택의 공급여건 및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높은 비율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거주지역

	빈도	유효 퍼센트
서울	350	45.0
부산	50	6.4
대구	26	3.3
인천	27	3.5
광주	18	2.3
대전	46	5.9
울산	11	1.4
경기	72	9.3
강원	28	3.6
충북	15	1.9
충남	33	4.2
전북	16	2.1
전남	22	2.8
경북	23	3.0
경남	36	4.6
제주	4	.5
합계	777	100.0

나. 주관적 적응도

(1) 현재만족도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사회적응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

민들의 현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60.5%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7%만이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표 III-16> 현재 한국생활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91	24.6
다소 만족	278	35.9
보통	254	32.8
다소 불만족	44	5.7
매우 불만족	8	1.0
합계	775	100.0

<표 III-17> 한국에 올 때 가장 기대한 것

	빈도	유효 퍼센트
신변 불안 해소	167	24.5
물질적 풍요(경제적 여유)	95	13.9
교육의 기회	59	8.7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33	4.8
자유로운 생활	301	44.1
기타	27	4.0
합계	682	100.0

<표 III-18> 현재 가장 필요한 것

	빈도	유효 퍼센트
가족들의 신변확인	197	28.3
물질적 풍요 (경제적 여유)	201	28.8
자신의 학교교육	75	10.8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99	14.2
자녀교육	90	12.9
기타	35	5.0
합계	697	100.0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입국 시에 기대하였던 사항과 현재 필요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44.1%), 신변불안 해소(24.5%), 물질적 풍요(13.9%), 본인의 교육기회(8.7%) 순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 및 경제적 여유(28.8%), 가족들의 신변확인(28.3%)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14.2%), 자녀교육(12.9%), 자신의 학교교육(10.8%) 순이다.

<표 III-19> 현재 직업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43	15.6
다소만족	73	26.4
보통	105	38.0
다소 불만족	39	14.1
매우 불만족	16	5.8
합계	276	100.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42.0%)이 불만족(19.9%)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780명)중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낮아 응답자의 수가 276명에 그치고 있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만족도로 규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도시에서 현재 직업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취업율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현재의 직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무직자들이 오히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2) 건강상태

개인의 사회적응실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건강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1.9%에 그치고 있으며, 나쁘다는 경우가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신체질환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본인들이 느끼는 건강상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중 하나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적응교육, 취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강검진에 나타난 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0> 건강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좋다	63	8.2
다소 좋다	106	13.7
보통이다	269	34.8
다소 나쁘다	249	32.2
매우 나쁘다	86	11.1
합계	773	100.0

다. 객관적 적응도

(1) 경제적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모든 종류의 수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51-100만 원의 경우가 45.6%, 50만 원 이하가 41.3%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665명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월 평균 소득에 생계비보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표 III-21>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월평균소득,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표 III-21> 월평균 수입

	빈도	유효 퍼센트
50만 원 이하	284	41.3
51-100만 원	314	45.6
101-150만 원	61	8.9
151-200만 원	22	3.2
201만 원 이상	7	1.0
합계	688	100.0

<표 III-22> 수입의 충분성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충분하다	22	3.0
충분한 편이다	74	10.0
보통이다	212	28.6
약간 부족하다	282	38.1
매우 부족하다	150	20.3
합계	740	100.0

<표 III-23>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급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1년 미만	349	49.4
1년 이상 - 3년 미만	281	39.7
3년 이상 - 5년 미만	45	6.4
받은 적이 없다	32	4.5
합계	707	100.0

<표 III-24> 자활근로참여경향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147	23.9
자활근로 대상이 아니다	145	23.6
자활근로대상이지만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활근로를 하지 않았다	209	34.0
기타	113	18.4
합계	614	100.0

현재 직종을 묻는 설문에 무직(41.5%), 기타(20.6%), 학생(18.7%) 등 대부분(80.3%)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비율(36.1%)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능력부족(31.9%)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22.5%)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취업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 구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원의 비중이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의 비슷한 분포를 이룬 반면, 30대 이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III-25> 현재직종

	빈도	유효 퍼센트
공무원	4	.5
회사원	87	11.8
연구원	7	.9
자영업	38	5.2
농수산업	5	.7
학생	138	18.7
무직	306	41.5
기타	152	20.6
합계	737	100.0

<표 III-26> 취업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정규직	88	36.1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136	55.7
기타	20	8.2
합계	244	100.0

<표 III-27> 비정규직인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취업난	40	20.9
능력부족	61	31.9
차별대우	24	12.6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43	22.5
기타	23	12.0
합계	191	100.0

(2) 사회동화

<표 III-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잘 어울린다’(13.4%), ‘잘 어울리는 편이다’(34.7%) 등 긍정적 응답자가 어울리지 못한다(8.5%),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4.0%) 등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12.6%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북한이탈 주민들은 이웃, 직장동료들과 대체로 잘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이상 4년 이하 거주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3년 이하 외국에서 생활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가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비중이 결혼한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8> 이웃, 직장동료등과 관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어울린다	101	13.4
잘 어울리는 편이다	262	34.7
보통이다	298	39.4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다	65	8.6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30	4.0
합계	756	100.0

<표 III-29> 동네 이웃과 교류 실태

	빈도	유효 퍼센트
1주일에 한번	281	37.5
1달에 한번	157	21.0
1년에 한번	15	2.0
없다	296	39.5
합계	749	100.0

보호담당관들이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동화 실태는 본인들의 응답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사회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남한 주민들과의 어울림과 관련, ‘조금 잘못 어울림(121명)’과 ‘매우 잘못 어울림(50명)’이 총 153명(72.2%)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잘 어울린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다. 특히 신변 및 취업보호담당자와 50대 이상이 ‘조금 또는 매우 잘 못 어울린다고 지적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75% 이상).

종교를 갖고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69.2%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62.3%를 차지하고 있다. 4년 이상 6년 미만 외국생활 거주자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목적과 관련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7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어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국 과정에서의 도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갖는다’고 더 많이 응답하고 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거주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년 이상 외국거주자의 경우도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주위사람들과 교류하

기 위해 종교를 갖는 비율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도 전체적 기준에서 볼 때 '주위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의 경우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국내거주기간에 따라 '주위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종교를 갖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0> 종교활동 실태

	빈도	유효 퍼센트
기독교	467	62.3
천주교	33	4.4
불교	12	1.6
기타	7	.9
종교 없다	231	30.8
합계	750	100.0

<표 III-31> 종교를 갖는 목적

	빈도	유효 퍼센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377	77.6
한국에 입국하면서 목사나 스님, 신부 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28	5.8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1	.2
나중에 목사나 스님, 신부가 되기 위해서	11	2.3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62	12.8
없다	7	1.4
합계	486	100.0

<표 III-32>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1년 이하	136	21.5
1년-2년	42	6.6
2년-3년	16	2.5
3년 이상	19	3.0
다닌 적이 없다	420	66.4
합계	633	100.0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교육기간에 대해 ‘다닌 적이 없다’가 6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하가 21.5%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이상은 12.1%에 불과하다. 2년 이하 교육을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60대는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전무하다. 그렇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3년 이상 학교를 다닌 기간을 갖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년 초과 2년 이하 외국생활 거주자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학교 다닌 적이 없다보다 1년 이하의 교육기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년 초과 4년 이하 외국생활거주자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1년 이하 교육기간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비율이 낮고 1년 이하 교육기간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1년 이하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단독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은 연령, 국내거주기간, 결혼유무, 동거 형태 등의 요소가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II-33> 여가시간에 하는 일

	빈도	유효 퍼센트
독서	106	16.8
텔레비전 시청	287	45.5
친구만남	58	9.2
컴퓨터	118	18.7
여행	9	1.4
영화	5	.8
기타	48	7.6
합계	631	100.0

남한사회의 적응과 관련한 여가활용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이 45.5%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컴퓨터 18.7%, 독서 16.8%, 친구만남 9.2%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10대는 컴퓨터, 그리고 30대까지는 컴퓨터에 여가를 많이 보내고 있다. 또한 친구를 만나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비율도 10대, 20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친구를 만나서 여가를 보내는 연령층은 30대 까지에 거의 국한되어 응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0대부터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독서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은 독서,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친구만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이 대졸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독서, 시청,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친구만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독서와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는 텔레비전 시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독서와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 일부가 입국한 경우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거주하는 경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중이 낮은 대신 독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텔레비전 시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IV.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북한이탈주민이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정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 긍정(26%)보다는 부정적(45.5%)인 평가가 높다. 유의미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들(25.8%)보다는 여자 응답자들(28.6%)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연령대로는 10대, 20대, 60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40대와 50대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20대, 60대, 10대, 30대, 40대, 50대 등의 순). 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 응답자의 약 55%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는 1년 이하의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의 응답자들도 긍정적이었다. 큰 차이는 없으나 7년 초과 8년 이하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외국생활 기간별로는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6년 이하, 6년 초과 7년 이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이었으며, 외국생활기간 7년 초과 8년 이하 응답자들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IV-1> 한국사회 적응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잘 적응	13	1.7
대체로 잘 적응	110	14.3
보통이다	296	38.5
약간 부적응	251	32.6
매우 부적응	99	12.9
합계	769	100.0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37.7%), ‘삶의 목표 불확실’(22.6%),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15.1%),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11.6%), ‘기타’(6.3%), ‘안이한 삶’(5.6%), ‘죄책감 때문에’(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거주 기간별로 7년 초과-8년 이하 응답자들은 ‘삶의 목표 불확실’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생활 기간별로 6년 초과-7년 이하 응답자들은 ‘삶의 목표 불확실’, ‘안이한 삶’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표 IV-2> 부적응 원인

	빈도	유효 퍼센트
삶의 목표 불확실	154	22.6
안이한 삶(사치와 허영)	38	5.6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	257	37.7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79	11.6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103	15.1
죄책감 때문에	8	1.2
기타	43	6.3
합계	682	100.0

<표 IV-3>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

	빈도	유효 퍼센트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266	38.6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수준 부족	62	9.0
한국 주민의 냉대와 편견	157	22.8
경제적 어려움	106	15.4
가족에 대한 염려	70	10.2
기타	28	4.1
합계	689	100.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요인을 보면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가장 많이 꼽아 약 39%로 나타났으며 ‘한국 주민의 냉대와 편견’은 약 23%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약 15%,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은 9.0%로 분포되었다.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본인의 노력과 인간관계에 있다는 측면이 약 60%이상 지적되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약 2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생활에 큰 어려움

	빈도	유효 퍼센트
외로움 및 고독감	132	18.9
한국사회에서 역할상실	87	12.4
건강상의 문제	108	15.5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101	14.4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8	1.1
여가, 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30	4.3
가족 돌보기의 어려움	28	4.0
특별한 문제가 없다	164	23.5
기타	41	5.9
합계	699	100.0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고민과 관련해서는 취업문제 39.7%, 가족문제 26.6%라고 답변하여 취업과 가족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관계 9%, 진학문제 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족문제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취업문제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대는 압도적으로 진학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답변하고 있다. 20대가

되면서 취업, 가족, 진학의 순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는 압도적으로 취업문제가 가장 고민거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문제에 대한 고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취업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면서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0대에 이르면 취업과 가족이 비슷한 비중을 가지면서 미세하나마 가족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60대 이상이 되면 압도적으로 가족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2년 이상 6년 이하 외국생활 거주자의 경우는 전체비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가족문제보다 취업문제가 고민거리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년 이하 외국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고민이 취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가 가족, 취업문제 모두 상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는 가족, 취업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한 고민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진학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부가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V-5> 어려울 때 의논상대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99	14.0
가족 및 친척	253	35.7
하나원 담당관	9	1.3
신변보호담당관	171	24.2
거주지보호담당관	24	3.4
취업보호담당관	1	.1
탈북동료	78	11.0
민간단체	9	1.3
동네이웃	16	2.3
기타	48	6.8
합계	708	100.0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가족 및 친척’(35.7%), ‘신변보호담당관’(24.2%), ‘없다’(14.0%), ‘탈북동료’(11.0%), ‘기타’(6.8%), ‘거주지보호담당관’(3.4%), ‘동네이웃’(2.3%), ‘하나원 담당관’·‘민간단체’(각 1.3%), ‘취업보호담당관’(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 기간별로 1년 이하 응답자는 ‘신변보호담당관’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친구와 함께 입국한 응답자들과 독신으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신변보호담당관’, ‘없다’, ‘탈북동료’, ‘가족 및 친척’,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단독으로 입국한 응답자들도 ‘신변보호담당관’, ‘가족 및 친척’, ‘없다’, ‘기타’, ‘탈북동료’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표 IV-6> 사회적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빈도	유효퍼센트
정부의 교육과 지원	272	40.2
종교단체	62	9.2
학교나 민간단체	12	1.8
직장동료나 친구	32	4.7
가족	29	4.3
먼저 입국한 동료	28	4.1
TV나 신문	36	5.3
나 자신의 노력	183	27.0
학교	9	1.3
기타	14	2.1
총계	677	100.0

입국 후 현재까지 자내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을 위의 표에서 보면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 약 40%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나 자신의 노력’은 27.0%로 나타났다. 그 외 종교 및 학교, 민간단체가 약 11%이며 가족 및 먼저 입국한 동료는 각각 약 4%정도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표 IV-7>에서 보면 3년 이상이 약 33%로 가장 높고 1년 정도가 약 21%, 3년 정도는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기간이 길수록 적응이 잘 된다고만 볼 수 없으며 개인별 특성과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한국사회적응 소요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6개월 정도	82	11.6
1년 정도	146	20.6
2년 정도	111	15.7
3년 정도	139	19.6
3년 이상	230	32.5
합계	708	100.0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 직업 훈련에 적절한 기간을 알아본 것을 <표 IV-8>에서 보면 1년 정도를 약 37%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정도는 약 27%로 분포되어 약 60%정도가 1년 이하의 직업훈련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년 정도는 약 20%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은 약 16%정도로 분포되었다. 직업훈련의 내용 및 개인의 적성, 소질에 따라 적절한 기간 선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표 IV-8>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소요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6개월 정도	180	27.0
1년 정도	246	36.9
2년 정도	131	19.7
3년 정도	44	6.6
3년 이상	65	9.8
합계	666	100.0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언어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아본 결과를 <표 IV-9>에서 보면 3년 정도와 3년 이상이 약 5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불편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3년 이상 걸리는 것에 응답하였다. 그 밖에 2년 정도는 약 22%, 1년 정도는 약 16%로 나타났다.

<표 IV-9> 불편없는 언어사용 소요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6개월 정도	62	9.1
1년 정도	111	16.3
2년 정도	151	22.2
3년 정도	121	17.8
3년 이상	234	34.5
합계	679	100.0

한국 사회 내에서 불편없이 대인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표 IV-10>에서 보면 3년 이상이 약 35%, 3년 정도가 약 17%로 과반수 이상이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 3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린다고 응답하였다. 2년 정도는 약 19%, 6개월 정도는 약 11%만이 응답하였다.

<표 IV-10> 불편없는 대인관계 소요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6개월 정도	71	10.7
1년 정도	122	18.4
2년 정도	128	19.3
3년 정도	114	17.2
3년 이상	229	34.5
합계	664	100.0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등을 극복해나기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아 본 결과를 보면, 3년 이상이 약 38% 정도로 가장 많고 3년 정도도 약 16%정도로 나타나 3년 정도와 3년 이상이 약 54%로 분포되었다. 1년 정도는 약 18%, 6개월 정도는 약 12%정도로 나타났다.

<표 IV-11>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극복 소요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6개월 정도	82	12.2
1년 정도	121	18.0
2년 정도	108	16.1
3년 정도	108	16.1
3년 이상	252	37.6
합계	671	100.0

2. 세부요인 평가

가. 사회적 편견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51.4%가 ‘무관심’하다고 답하였으며, ‘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41.0%로 나타났다. 한국사람들의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보통’46.1%포함).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23.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9.6%)보다 남자(13.7%)가 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표 IV-12> 본인에 대한 한국사람태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우호적	19	2.5
우호적	200	38.5
무관심	387	51.4
적대적	47	6.2
매우 적대적	10	1.3
합계	753	100.0

<표 IV-13> 한국사람태도가 사회적응에 영향정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52	6.9
다소 긍정적	180	23.7
보통	350	46.1
다소 부정적	147	19.4
매우 부정적	30	4.0
합계	759	100.0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찬성 등 긍정적 응답이 32.9%, 다소 반대 등 부정적 응답이 30.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표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5%로 상당수가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들이 약간 더 무시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력별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의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거주 1년 이하의 응답자는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년 이상 외국생활자는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신으로 입국한 경우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4> ‘한국주민이 무시한다’는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78	10.3
다소 찬성	170	22.5
보통	275	36.5
다소 반대	120	15.9
매우 반대	111	14.7
합계	754	100.0

<표 IV-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말투가 달라서	65	9.9
능력이 부족해서	38	5.8
사고방식이 달라서	181	27.6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70	10.7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263	40.1
별다른 이유 없이	39	5.9
합계	636	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가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여 출신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출신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력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0.7%, ‘말투가 달라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5.6%)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이상 4년 이하 거주자의 경우 ‘북한에서

왔기 때문' 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3년 이상 4년 이하를 제외하면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편견을 당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7.6%를 차지하여 2순위 이유로 꼽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한인의 편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의 차이 극복보다는 '북한출신'이라는 편견의 극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또 하나의 심각한 지역갈등의 요소라고 생각된다. 단독으로 입국한 응답자의 경우 '북한에서 왔기 때문' 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2003)⁸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애를 느낀다'는 비율이 58%,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가 12.9%, '적대감이 느껴진다'의 경우 5.5%, '별감정이 없다'는 21.7%,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9%로 나타난다. 성별 응답비율을 보면, 남성(61.7%)의 경우 여성(54.2%)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32.5%)이라는 평가가 부정적(2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수(40.7%)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태도에 대한 설문에는 '돕겠다'는 응답이 49.5%, '관계기관 통보'가 40.5%,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1%,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경우가 4.9%로 나타난다. 남성(57.8%)이 여성(41%)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84 전국단위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나. 가족의 신변불안

<표 IV-16> 정착금 및 수입을 북한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 데려오기 위해 사용할 의향

	빈도	유효 퍼센트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487	63.5
조금 생각 있다	206	26.9
거의 생각 없다	22	2.9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26	3.4
관심 없다	26	3.4
합계	767	100.0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하고자 한다. 가족들의 신변불안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90.4%)가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입국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본인의 정착금으로 후지불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송금하는데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85명(40.1%)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52명(24.5%)이 민간차원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39명(18.4%)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보호담당관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지율(29.1%)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22명, 40.0%)가

‘비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담당 경험이 4-5년차가 비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본인들도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은데 가족까지 데려 오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취업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이 사회적응과정상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41.5%나 된다. 학생(18.7%)을 제외하면,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39.8%에 불과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4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직의 비율이 11.8%나 높다.

<표 IV-17> 북한에서 주요한일

	빈도	유효 퍼센트
학생	119	16.2
군인	67	9.1
노동자	341	46.3
농장원	33	4.5
당간부	12	1.6
교사	23	3.1
해외근무	14	1.9
기타	127	17.3
합계	736	100.0

<표 IV-18> 현재직종

	빈도	유효 퍼센트
공무원	4	.5
회사원	87	11.8
연구원	7	.9
자영업	38	5.2
농수산업	5	.7
학생	138	18.7
무직	306	41.5
기타	152	20.6
합계	737	100.0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부산 63.8%, 대구 45.8%, 인천 57.7% 등)의 경우, 무직비율이 높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취업률이 높아진다. 서울은 평균 무직비율보다 낮아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지역(수도권)은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무직비율 32.9%)이며 회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율(20%)도 강원(23%), 경남(21%)과 함께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표 IV-19> 직업이 없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자신의 능력 부족	122	23.9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	60	11.8
직업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	30	5.9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	84	16.5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부족	41	8.0
기타	173	33.9
합계	510	100.0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능력부족(23.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16.5%),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11.8%) 등을 지적하였다.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신의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대학 학력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 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1-2년인 경우에는 직업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 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남한생활 초기 1-2년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기다가, 2년이 지나면 '나이'와 같은 다른 변수를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 '나이' 변수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표 IV-20> 취업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정규직	88	36.1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136	55.7
기타	20	8.2
합계	244	100.0

취업자 가운데는 정규직(36.1%)에 비해 비정규직(5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의 비슷한 분포를 이룬 반면, 30대 이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취업형태는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은 정규직이 많은 반면, 고등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비정규직 취업자가 많다.

<표 IV-21> 비정규직인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취업난	40	20.9
능력부족	61	31.9
차별대우	24	12.6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43	22.5
기타	23	12.0
합계	191	100.0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능력부족(31.9%)’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22.5%)’, ‘취업난(20.9%)’을 꼽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졸학력자의 경우는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중학교 학력자나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자신들의 비정규직의 이유를 ‘능력부족’ ‘취업난’ 등으로 응답한 반면, 대학교 학력자들은 ‘차별대우’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한국거주 기간이 1-2년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정규직 원인을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나, 3년 이상된 사람들은 ‘취업난’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처음 1-2년 동안은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들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남한사회의 취업난 때문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변함을 보여준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에 온 경우는 비정규직 취업 원인을 ‘취업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가족의 일부 또는 친구·친척과 함께 왔거나 단독으로 온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보호비 수급’을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았으며, 독신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정부나 민간단체의 도움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노력으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68.2%가 외부의 도움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힘으로 직장을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취업했다는 사람들은 53.4%이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14.8%으로 취업자의 68.2%가 스스로 직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알선해준 외부기관으로는 신변보호담당경찰(9.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7.6%), 종교기관(4.9%), 통일부(3.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안내하는 여러 기관과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하는 길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결과가 현재의 직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최초로 취업한 직장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설문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최초에 직장을 얻는 경우에는 아마도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

<표 IV-22> 취업알선

	빈도	유효 퍼센트
통일부의 직업알선으로	9	3.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20	7.6
담당경찰(신변보호담당관)의 소개로	26	9.8
목사, 수녀 등 종교기관의 추천으로	13	4.9
나 자신이 스스로	141	53.4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39	14.8
기타	16	6.1
합계	264	100.0

그러나 신변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이유 중에서 ‘주위의 권유(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가 91명(42.7%)으로 가장 많고, ‘취업보호제(고용유지지원금)때문’에가 57명(26.9%), 그리고 ‘인력난 때문’으로가 38명(17.9%)이었다. 신변 및 거주지보호 담당관이 ‘주위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반면, 취업보호담당관의 절대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71%)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보호제를 활용하여 취업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직한 경우는 24.4%에 불과하였으며, 75.6%는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표 IV-23> 취업보호제 활용 여부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66	24.4
그렇지 않다	205	75.6
합계	271	100.0

직장생활을 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부족’(24.4%)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14.4%), ‘급여취약’(10.4%), ‘출퇴근 문제’(7.2%)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8.8%나 된다. 36-5의 질문에서 현재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15.6%)과 다소 만족(26.4%)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애로사항이 없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V-24>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움

	빈도	유효 퍼센트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부족	61	24.4
대인(동료, 상사)관계	35	14.0
급여, 복리후생 취약	26	10.4
출, 퇴근 문제	18	7.2
회사 정책(승진에서의 불공정성)	10	4.0
애로사항 없다	72	28.8
기타	28	11.2
합계	250	100.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58.1%)이 받은 사람(41.9%)보다 많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과 대구, 울산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울산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각각 55.5%, 57.1%, 54.5%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5.3%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27.4%)에 비해 많았다.

<표 IV-25> 직업훈련의 취업도움 정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7	14.7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77	30.6
보통이다	69	27.4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35	13.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	13.5
합계	252	100.0

희망하는 직업훈련은 정보처리·컴퓨터가 19.3%로 가장 많았고, 미용·요리(18.1%), 기계·금속(10.3%), 전기·전자(9.6%), 의료·보건(9.3%), 서비스(7.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6> 희망하는 직업훈련 우선순위 2개

(우선순위 없음 총합·응답자*2) 응답자 대부분이 우선순위 표시 안함

	빈도	유효 퍼센트
기계·금속	99	10.3
전기·전자	92	9.6
통신	34	3.5
토목, 건축	38	4.0
정보처리, 컴퓨터	185	19.3
농수산	12	1.3
산업디자인	38	4.0
서비스	74	7.7
의료, 보건	89	9.3
미용, 요리	173	18.1
기타	124	12.9
합계	958	100.0

장래의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3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15.7%), 생산·기술직(14.4%), 사무직(6.3%)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7> 희망하는 장래직업

	빈도	유효 퍼센트
행정관리직	17	2.8
전문직	97	15.7
생산·기술직	89	14.4
사무직	39	6.3
서비스직	20	3.2
판매직	24	3.9
개인사업	194	31.4
여행업	15	2.4
사회사업	27	4.4
방송·연예	29	4.7
기타	66	10.7
합계	617	100.0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래성’(34.2%), ‘임금·수입’(23.8%), ‘적성’(17.9%), ‘안정성’(12.3%), ‘사회적 인정’(1.2%) 등이었다. 직업선택의 기준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0대는 ‘사회적 인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반면, 20대, 30대, 40대는 ‘장래성’을, 50대 이상은 ‘임금·수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선택에서 대학 학력자는 ‘적성’(25.2%), ‘장래성’(25.2%)의 요인들을 중시한 반면, 전문학교 이하 학력자는 ‘장래성’(26.6%), ‘임금·수입’(17.8%), ‘적성’(11.0%) 등의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생활 경험이 1년 이하로 짧은 사람들은 ‘임금·수입’에 응답한 사람이 많고, 2년 이상된 사람들은 임금이나 수입보다는 ‘장래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표 IV-28> 직업선택 기준

	빈도	유효 퍼센트
임금, 수입	149	23.8
적성	112	17.9
안정성	77	12.3
장래성	214	34.2
사회적 인정	70	11.2
기타	4	.6
합계	626	100.0

한국사회에서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이 불리한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소 찬성 등 긍정적 응답이 19.0%, 다소 반대 등 부정적 응답이 18.7%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과반수(52.3%)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9> '취업, 경제지원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한다'에 대한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36	5.2
다소 찬성	96	13.8
보통	363	52.3
다소 반대	118	17.0
매우 반대	81	11.7
합계	694	100.0

라. 결혼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소 찬성 이상이 52.0%로 다소 반대 이상 17.7%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40대 이상이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결혼의 경험이 있으면서 남한사회를 바라보는 연령층이 남한주민과의 결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졸업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 거주자일수록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가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응답자는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단독으로 입국한 응답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와 입국한 응답자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결혼이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응답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 동거자보다 독신자, 미혼자가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대의 선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 27.8%, ‘북한이탈주민’ 28.4%, ‘출신지역이 상관없다’가 27.3%라고 답변하고 있다.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 결혼 상대 선택에서는 남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령층을 볼 때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남한주민과의 결혼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남한주민을 배우자로 택하

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졸 이상은 비율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년 이하 거주자는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남한주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1년 이상 거주자부터 비율이 역전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주민'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년 이하 외국생활거주자의 경우 남한주민과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북한이탈주민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4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응답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같거나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혼한 응답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는 남한주민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혹은 일부, 친구와 입국한 응답자는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자로 단독으로 입국한 응답자는 남한주민을 결혼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남한주민과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배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부로 거주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을 두고 온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남한주민을 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연령이 낮은 20대, 30대와 고학력자, 미혼자 등이 남한주민을 결혼상대자로 선택하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기혼자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나 부부가 거주하는 동거형태의 경우 실제 남한주민과 결혼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30> '남한주민과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	180	24.2
다소 찬성	207	27.8
보통	225	30.2
다소 반대	96	12.9
매우 반대	36	4.8
합계	744	100.0

<표 IV-31> 결혼상대 선택

	빈도	유효 퍼센트
남한주민	176	27.8
북한이탈주민	180	28.4
출신지역은 상관없다	173	27.3
결혼할 의사가 없다	52	8.2
기존 배우자를 기다리겠다	52	8.2
합계	633	100.0

마. 제3국 체류경험

제3국(중국 등) 체류기간이 한국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51.0%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자 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제3국 체류기간이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중국 조선족(43.8%), '선교사(32.8%), '기타(14.4%), '입국브로커'(6.5%), '재외공관원'(2.6%)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는 5년 초과-6년 이하, 7년 초과-8년 이하 응답자들은 '선교사',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제3국 체류기간의 사회적응 영향정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09	14.6
다소 긍정적	271	36.3
보통	256	34.3
다소 부정적	71	9.5
매우 부정적	39	5.2
합계	746	100.0

<표 IV-33> 체류기간 영향이 있다면 누구

	빈도	유효 퍼센트
선교사	218	32.8
중국 조선족	291	43.8
입국브로커	43	6.5
재외공관원	17	2.6
기타	96	14.4
합계	665	100.0

바. 학력과 경력

한국사회 적응에 북한의 학력이 도움된다는 사람(32.6%)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43.9%)이 11% 가량 많았다.

북한의 학력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39.2%가 북한의 학력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데 비해, 여자는 25.3%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한편, 남자의 37.8%는 북한의 학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여자는 50.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북한학력의 역할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학력에 대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의 생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북한의 학력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26.8%)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도움이 된다(55.9%)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아,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북한의 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북한의 학력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거주 기간이 1-2년인 사람들은 북한의 학력이 남한생활 적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남한생활 정착 초기 1-2년간은 북한의 학력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 배운 교육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미혼자들보다는 기혼자들이 북한의 학력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기혼자들은 3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데 비해 미혼자들은 29.9%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혼자들 가운데 39.2%였고, 미혼자들 중에는 47.9%나 되었다.

<표 IV-34> 북한 교육경험과 한국 사회적응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63	8.3
도움이 되는 편이다	185	24.3
보통이다	178	23.4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9	27.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5	16.4
합계	760	100.0

학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도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람(30.0%)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40.2%)이 10%정도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남자는 36.9%가 북한의 직장생활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25.8%만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남자의 36.1%가 응답한데 비해, 여자의 49.7%가 응답함으로써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 직장경력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 직장경력에 대한 평가는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한국거주 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 사람들은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하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급작스런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에서의 경험이 거의 소용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생겨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직장생활 경험이 남한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들이 북한의 직장생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기혼자들은 35.7%가 북한의 직장생활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자들은 27.9%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기혼자들은 38.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데 비해 미혼자들은 46.4%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35> 북한 직장경험과 한국 사회적응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57	7.8
도움이 되는 편이다	173	23.6
보통이다	189	25.8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6	24.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7	18.7
합계	732	100.0

V.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59.8%)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시한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5.8%)보다 남자(7.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내용 중 불만스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없다'(31.6%), '취업보호'(24.9%), '생계비지원'(14.6%), '임대주택'(10.7%), '정착금'(6.5%), '직업훈련'(5.5%), '교육보호'(4.6%), '기타'(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0대 응답자들은 '없다', '취업보호', '교육보호', '생계비지원'·'임대주택', '정착금'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40대 응답자들은 '없다', '취업보호', '임대주택', '정착금', '생계비지원', '교육보호'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50대 응답자들은 '취업보호', '없다', '생계비지원', '임대주택', '직업훈련', '정착금'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60세 이상 응답자들은 '없다', '생계비지원', '임대주택', '정착금', '직업훈련', '기타', '교육보호'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이상 응답자들이 '취업보호'를 첫 번째 불만 분야로 지적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 2년 초과-3년 이하 응답자들은 '취업보호'를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 모두 입국한 응답자들은 '없다', '취업보호', '임대주택', '생계비지원', '직업훈련', '정착금'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가족 중 일부가 입국한 응답자들은 '없다', '생계비지원', '취업보호', '임대주택', '교육보호', '정착금', '직업훈련',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친구와 입국한 응답자들은 '없다', '취업보호', '정착금', '임대주택', '생계비지원', '직업훈련', '교육보호'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불만내용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불만이 취업보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취업

보호제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의무고용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에 대한 기대로 평가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수도권 배정을 선호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따라 개인들의 1차 희망지역에 배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설문조사의 결과 정착지 배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55.6%로 불만족하는 비율(14.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 한국정부 지원수준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30	29.9
다소 만족	230	29.9
보통	210	27.3
다소 불만족	81	10.5
매우 불만족	19	2.5
합계	770	100.0

<표 V-2> 정부지원중 불만요소

	빈도	유효 퍼센트
정착금	45	6.5
임대주택	74	10.7
생계비지원	101	14.6
직업훈련	38	5.5
교육보호	32	4.6
취업보호	173	24.9
기타	12	1.7
없다	219	31.6
합계	694	100.0

<표 V-3> 정착지 배정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37	31.1
다소 만족	187	24.5
보통	228	29.9
다소 불만족	86	11.3
매우 불만족	24	3.1
합계	762	100.0

정부지원(정착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상관없다(31.8%)’, ‘일정기간 분할’(31.1%), ‘일시불’(21.1%), ‘반은 일시불로 나머지 받은 분할’(15.9%)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남자는 ‘일정기간 분할’을 가장 선호했으며, 여자는 ‘상관없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거주 기간별로는 4년 초과-5년 이하, 6년 초과-7년 이하 응답자들은 ‘일시불’·‘일정기간 분할’, ‘반일시, 반분할’, ‘상관없다’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 7년 초과-8년 이하 응답자들은 ‘상관없다’와 ‘일시불’을 같은 비율로 답하였다. 외국생활 기간별로 2년 초과-3년 이하 응답자들은 ‘일정기간 분할’, ‘상관없다’, ‘일시불’, ‘반일시, 반분할’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외국생활 기간별로 6년 초과-7년 이하 응답자들은 ‘일정기간 분할’, ‘일시불’, ‘반일시, 반분할’, ‘상관없다’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결혼한 응답자들은 ‘일정기간 분할’, ‘상관없다’, ‘일시불’ 등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부부가 사는 응답자들은 ‘일정기간 분할’, ‘일시불’, ‘반일시, 반분할’, ‘상관없다’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응답자들은 ‘일정기간 분할’, ‘상관없다’, ‘일시불’, ‘반일시, 반분할’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표 V-4> 지원정착금 받는 방법

	빈도	유효 퍼센트
일시불	158	21.1
일정기간 분할	233	31.1
받은 일시불로 나머지 받은 분할	119	15.9
상관없다	238	31.8
합계	748	100.0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⁸⁵

<표 V-5> 하나원 교육경험유무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701	90.5
없다	74	9.5
합계	775	100

하나원 교육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222명(31.9%), 다소 긍정적이었다는 사람이 216명(31.1%)으로 과반수가 넘는 반면 다소 부정적이었다라는 응답자 49명(7.1%),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자 19명(2.7%)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적지 않고(189명, 27.2%)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63%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원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5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주민들은 대부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75명 가운데 90.5%인 701명이 하나원 교육을 받았으며, 받지 않은 사람은 74명(9.5%)에 불과하였다.

<표 V-6> 하나원 생활과 사회적응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222	31.9
다소 긍정적	216	31.1
보통	189	27.2
다소 부정적	49	7.1
매우 부정적	19	2.7
합계	695	100.0

하나원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198명(31.5%)이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63명(25.9%)이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실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람이 152명(24.2%), 한국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47명(7.5%)의 순이었다. 정보제공이나 기능 실습 등 실용적인 차원의 응답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생활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7> 하나원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

	빈도	유효 퍼센트
한국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 있는 기회	47	7.5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198	31.5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 실습	163	25.9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152	24.2
없다	69	11.0
합계	629	100.0

하나원 생활의 불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교육운영방식을 꼽은 사람들이 228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1명(23.3%)이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미비를 꼽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부족(14.3%), 강의식 수업(11.1%), 폐쇄적 운영방식(9.4%), 관리자리의 태도(6.8%) 등의 순으로 불만 요소를 꼽았다. 관리자리의 태도나 운영방식 등 하나원 운영에 관련된 요소들보다 교육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 양쪽에 고루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8>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불만족스런 요소

	빈도	유효 퍼센트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미비	151	23.3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부족	93	14.3
관리자리의 태도	44	6.8
폐쇄적 운영방식	61	9.4
강의식 수업	72	11.1
교육운영방식	228	35.1
합계	649	100.0

적절한 하나원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2개월이 326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251명이 3개월을 꼽아 6개월 이상을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압도하였다. 이것은 하나원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현재의 교육기간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문제는 하나원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단기간의 하나원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표 V-9> 적절한 하나원 생활기간

	빈도	유효 퍼센트
1-2개월	326	47.9
3개월	251	36.9
6개월	66	9.7
1년이상	11	1.6
기타	26	3.8
합계	680	100.0

하나원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를 꼽도록 하였는데, 한국사회교육이 292명으로 가장 많았고(15.7%), 컴퓨터 교육이 271명(14.6%), 언어교육이 212명(11.4%), 현장체험 학습과 운전이론 교육이 각각 196명(10.6%)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8명(8.0%), 정착사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경우가 144명(7.8%)이었다. 한국 사회 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기는 하였지만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나 운전 등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표 V-10> 하나원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빈도	유효 퍼센트
외국어교육	148	8.0
심리상담 및 정서순화교육	103	5.6
언어교육	212	11.4
한국사회 이해교육	292	15.7
컴퓨터 교육	271	14.6
현장체험 학습	196	10.6
진로 및 직업교육	153	8.3
정신교육	86	4.6
정착경험사례	144	7.8
보호담당관 특강	21	1.1
의·식생활 관리교육	28	1.5
운전이론교육	196	10.6
기타	4	.2
합계	1854	100.0

하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방식의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0.4%,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32.6%로 과반수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불만요소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방식을 꼽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사실과는 다소 상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11> 하나원 교육방식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41	20.4
다소 만족	225	32.6
보통	246	35.6
다소 불만족	64	9.3
매우 불만족	15	2.2
합계	691	100.0

하나원 교육중 한국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64.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하나원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이던지 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4.9%의 비율은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불만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과 관련된 항목(강의 방식, 교육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46.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강의 내용에서 한국사회 이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교육생의 욕구에 비해서는 강의의 내용이나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표 V-12> 하나원교육 중 한국사회이해 강의의 사회적응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된다	158	22.9
어느 정도 된다	290	42.0
보통이다	179	25.9
거의 도움이 안된다	56	8.1
전혀 필요 없다	8	1.2
합계	691	100.0

여성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통일부는 하나원 분원을 설치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북한이탈주민에게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찬성 40.2%, 다소찬성 18.3%). 반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녀를 분리 수용하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하나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혹은 단체의 수준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72.6%라는 대다수가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우만족 280명, 40.5% 다소만족 222명 32.1%).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2.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비교적 하나원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 하나원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80	40.5
다소 만족	222	32.1
보통	175	25.3
다소 불만족	12	1.7
매우 불만족	3	.4
합계	692	100.0

하나원에서는 현재 다양한 종교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각 종교단체에서는 현재 선교활동을 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활동에 만족하고 있다(매우만족 230명, 33.2% 다소만족 160명, 23.1%).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여(다소 불만족 27명, 3.9% 매우 불만족 15명 2.2%) 현재의 종교활동이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4> 하나원 종교활동 실태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30	33.2
다소 만족	160	23.1
보통	260	37.6
다소 불만족	27	3.9
매우 불만족	15	2.2
합계	692	100.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88.9%라는 압도적 다수가 하나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표 V-15> 하나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필요 있다	616	88.9
필요 없다	77	11.1
합계	693	100.0

하나원의 필요없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없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과반수 이상인 39명(55.7%)이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의 비효율성(15.7%), 운영방식의 비합리성(12.9%)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타 응답도 있었다(15.7%). 따라서 비록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없지 않으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현재의 하나원 체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하다는 요인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폐쇄성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은 현재와 같은 폐쇄구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앞의 교육관련 질문이나 불만요소에 대한 질문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내용이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16> 필요 없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운영방식의 비합리성	9	12.9
북한이탈주민들만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폐쇄성	39	55.7
교육의 비효율성	11	15.7
시설이나 비품의 낙후에서 오는 불편함	0	0
기타	11	15.7
합계	70	100.0

한편 하나원 이외의 적응교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순수 민간지원체계를 꼽은 사람이 전체의 35.9%(144명)로 제일 많았고, 북한이탈주민만의 공동체 정착촌을 꼽은 사람도 31.9%(128명)로 적지 않았다. 순수민간 운영의 정착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들만의 공동체 형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역시 같은 탈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한사람과 어울려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V-17> 다른 적응교육지원체계의 대안에 대한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정착촌	128	31.9
순수 민간지원체계	144	35.9
교육없이 일정기간 쉬는 곳	45	11.2
기타	84	20.9
합계	401	100.0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는 사회적응 교육 주체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51.9%), ‘정부 주도’(38.6%), ‘필요없다’(5.1%), ‘민간단체 주도’(2.7%), ‘기타’(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8> 사회적응을 위해 바라는 교육주체

	빈도	유효 퍼센트
정부 주도	290	38.6
민간단체 주도	20	2.7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390	51.9
기타	13	1.7
필요없다	38	5.1
합계	751	100.0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경우가 약 5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포되었으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약 13%정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군,구청)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경우는 약 31%정도이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약 22%정도로 분포되었다. 이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한 경우가 약 29%정도이며 다소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약 26%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신변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만족의 분포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

적인 도움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 V-19>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39	31.0
다소 만족	178	23.1
보통	258	33.5
다소 불만족	53	6.9
매우 불만족	43	5.6
합계	771	100.0

<표 V-20>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군,구청)의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02	13.6
다소 만족	133	17.8
보통	340	45.4
다소 불만족	101	13.5
매우 불만족	73	9.7
합계	749	100.0

<표 V-21>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79	10.9
다소 만족	127	17.6
보통	329	45.5
다소 불만족	111	15.4
매우 불만족	77	10.7
합계	723	100.0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현재 하나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혹은 단체의 수준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72.6%라는 대다수가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우만족 280명, 40.5% 다소만족 222명, 32.1%).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2.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비교적 하나원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2> 하나원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280	40.5
다소 만족	222	32.1
보통	175	25.3
다소 불만족	12	1.7
매우 불만족	3	.4
합계	692	100.0

사회정착단계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3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의 경우는 12.3%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53.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연령대별로 10대 응답자들은 1명(‘매우 불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답하였다.

<표 V-23> 민간단체지원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94	12.7
다소 만족	159	21.5
보통	306	53.5
다소 불만족	63	8.5
매우 불만족	28	3.8
합계	740	100.0

5. 전반적인 정책평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부정책의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교육’(35.3%), ‘직업훈련교육’(24.7%),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14.5%),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14.1%), ‘의식주 등 일상생활 교육’(7.9%), ‘기타’(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응답자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한국거주 기간별로 6년 초과 7년 이하 응답자들은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직업훈련교육’,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 ‘자본주의체제 적응교육’,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외국생활 기간별로 1년 이하 응답자들은 ‘자본주의체제 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외국생활 기간별로 7년 초과 7년 이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직업훈련교육’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결혼한 응답자들과 부부가 사는 응답자들은 ‘자본주의체제 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 ‘기타’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표 V-24> 적응을 위한 정부정책의 증점사항

	빈도	유효 퍼센트
의식주 등 일상생활 교육	55	7.9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 교육	246	35.3
직업훈련교육	172	24.7
정책금 등 지원수준 향상	98	14.1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101	14.5
기타	24	3.4
합계	696	100.0

VI. 세부집단별 적응실태

1. 청소년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2002년도 국내입국한 1,14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19세미만은 210명으로 전체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다.⁸⁶ 따라서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청소년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문제도 점차 다양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0대가 36명으로 4.6%, 20대가 184명으로 23.7%, 30대가 278명으로 35.7%, 40대가 147명으로 18.9%, 50대가 73명으로 9.4% 였으며 60세이상은 60명으로 7.7%였으므로 2002년 입국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한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본 조사의 대상이 1993년대 이후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10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조사의 경우 10대의 절대수가 적은 까닭에 20대까지 포함하여 청소년 집단의 적응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주관적 적응도

86 <http://www.unikorea.go.kr>. 이중 10세 미만은 55명(4.8%).

<표 VI-1>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 입국시 기대 요소

		신변불안 해소	물질적 풍요	교육의 기회	원활한 인간관계	자유로운 생활	기타	
10 대	명수	1	9	12	1	7	2	32
	%	3.1%	28.1%	37.5%	3.1%	21.9%	6.3%	100.0%
	전체 %	.1%	1.3%	1.8%	.1%	1.0%	.3%	4.7%
20 대	명수	42	20	21	11	60	7	161
	%	26.1%	12.4%	13.0%	6.8%	37.3%	4.3%	100.0%
	전체 %	6.2%	2.9%	3.1%	1.6%	8.8%	1.0%	23.7%
전체	명수	167	95	58	33	301	26	680
	%	24.6%	14.0%	8.5%	4.9%	44.3%	3.8%	100.0%
	전체 %	24.6%	14.0%	8.5%	4.9%	44.3%	3.8%	100.0%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대의 경우는 교육의 기회를 제일 많이 기대하였고(37.5%), 다음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였다(28.1%). 반면에 20대 이상(20세-60세 이상)은 자유로운 생활을 가장 많이 기대하였고(37.3%, 51.0%, 50.8%, 41.9%, 35.2%), 다음으로 신분불안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26.1%, 23.9%, 18.5%, 40.3%, 13.5%). 한편 2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를 기대한 반면 60세 이상은 물질적 풍요를 기대한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기대 사항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북한에서 정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중국 등지에서도 신분불안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의 기대 사항과 다소 다른 응답 결과가 도출되었다. 10대의 경우는 자신의 학교교육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고(48.5%), 다음으로 물질적 풍요(33.3%)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30대와 50대는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29.5%, 33.3%) 20대와 40대 그리고 60세이상은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걱정

하고 있다(29.8%, 28.1%, 37.5%) . 20대의 경우는 부모가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40대는 친지가 그리고 60세 이상은 자손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0대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북한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적고<표 VI-2 참조>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I-2>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및 제3국 가족존재여부

		있다	없다	전체
10대	명수	13	20	33
	%	39.4%	60.6%	100.0%
	전체 %	1.7%	2.7%	4.4%
20대	명수	96	85	181
	%	53.0%	47.0%	100.0%
	전체 %	12.8%	11.3%	24.1%
전체	명수	474	276	750
	%	63.2%	36.8%	100.0%
	전체 %	63.2%	36.8%	100.0%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연령대별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대가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낮음에도 나온 결과인데 <표 VI-3 참조>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20대의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직업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3> 북한이탈청소년의 직업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전체
10대	명수	1	4		5
	%	20.0%	80.0%		100.0%
	전체 %	.3%	1.4%		1.7%
20대	명수	18	39	5	62
	%	29.0%	62.9%	8.1%	100.0%
	전체 %	6.2%	13.4%	1.7%	21.2%
전체	명수	97	171	24	292
	%	33.2%	58.6%	8.2%	100.0%
	전체 %	33.2%	58.6%	8.2%	100.0%

연령별 건강상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0대 이상으로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적응도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비교적 높다. 기대수준에 있어서도 물질적 풍요나 학교교육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심리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객관적 적응도

이웃과의 교류 빈도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10대와 6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20대가 교류가 부족한데 20대는 비교적 사회적 활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웃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한국에서의 취학기간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취학 경험이 많았고, 취학기간은 30대 이상이 단기간에 그친 반면 10대와 20대는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활동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는 것(34.8%)과 컴퓨터로 여기활동을 하는 경우가(30.4%)가 많았던 반면 20대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TV시청으로 시간을 소일하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사회동화 문제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장년층이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남한주민과의 동화가 더 쉽고 볼 수도 있지만 이웃과의 접촉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한정적일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가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남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부적응 요인 평가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10대는 근로능력 문제를 어려운 요소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14.7%), 20대와 30대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19.3%, 22.8%). 반면에 40대 이후는 건강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결혼 적령기로서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고민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10대의 경우는 진학문제가 63.6%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 취업 문제를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44.0%, 45.0%, 44.5%). 그러나 50대 이상(50대, 60세 이상)은 가족문제를 현재의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39.7%, 53.8%).

사회적 부적응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세대문제

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20대와 30대가 심리적 고독함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은 이들의 사회활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원하는 결혼상대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10대는 북한이탈주민을 배우자로 고려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은 반면 30대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남한주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20대를 거치면서 30대에 가서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대에서 결혼문제를 경험하면서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의 의논 상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족과 친척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0대와 60대의 경우만 신변보호담당관을 의논 상대로 꼽은 비율이 가장 컸는데(32.3%, 35.5%), 이는 이들 세대가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탈북 동료를 의논 상대로 꼽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호소통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연령대 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1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육보호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17.1%),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원 교육 교육 수행여부는 집단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민족스러운 요소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0대는 직업구체화와 기능실습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30.8%), 다른 집단들은 한국사회 정보획득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0대와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한국사람과의 교류 경험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하나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들 세대와 가장 의사소통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별로 없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10대의 경우는 84.4%의 압도적 다수가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약했다. 상대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연령대 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폐쇄성을 끄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내용이나 구성이 젊은세대와 더욱 어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원의 자원 봉사자나 민간단체가 비교적 젊은세대에 적합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한 민간단체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여론 조사에 의한 탈북청소년 실태 평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적극적으로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직업형태에서도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을 지향한다면 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또한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사회적 인정을 들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남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거나 최소한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도 역시 진학이나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들이 남한에 오기 전에 기대한 것도 학업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고민하는 것도 학업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에 대한 고민도 학업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주민들과 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리감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나 탈북동료와 상의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결혼상대로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러한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 능력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그러하고,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실질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학교교육이나 물질적 풍요를 고려하는 것도 실용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 면접을 통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

(1) 학업능력 부진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무리이다.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학제차이(북한소학교과정 4년제로 인해 2년의 학력격차)로 인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6학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고등중학교 5학년 중퇴인 경우에는 소학교 4학년과 고등중학교 4학년 등 총 8년 학력을 인정하여 남측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을 중퇴한 경우에는 1년 차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치르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입국 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체발육 부진으로 인해 본인들의 연령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취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도 있다. 2002년 서울시 4개구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12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학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52명 중 27명(51.9%)이 정규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력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학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규 학교교육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미취학상태(7명, 5.5%)나 검정고시 준비(20명, 15.7%)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주된 상담 내용은 학업 및 부모 문제와 ‘살기 막막함’에 대한 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⁸⁷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

는 과정을 겪음으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말해도 학력수준은 남한의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 경우가 많다.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운데다 남한 말의 이질성으로 더욱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객관식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검정고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영어하고 역사, 사회 어려움. 특히 영어는 어떻게 손 댈지도 모르겠다. 나 같이 중검부터 안하고 불쑥 대검으로 들어가면 못 따라간다. 학원에서 듣는 것 만으로는 합격 못한다. 과외 선생님 있어야 어느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역사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 어렵다. 역사는 북한에서 배우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역사 모르겠다. 1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단군, 계백 몰라 계백이 뭐예요?하고 학원에서 물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곤 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주 쓰는 말을 했는데도 몰라하니 “그것도 모르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들은 쉬운 것도 모르니까 답답할 때가 많다. 차 종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전 과자이름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티코 이야기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웃는데 나는 몰라 그게 뭐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 해 상처로 다가왔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모르니까 상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 자신감이 없어 수업시간에 가만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웬지 여기 끼면 안되겠다는 소외감이 든다. 혹시 웃음바다 되지 않을까해 가만히 있게 된다.⁸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세계사나 국사를 어려워한다. 북한에서 세계사는 아프리카, 아세아, 유럽 등 지구 표면 적인거 이야기 해주지 그 나라 역사를 안 배운

87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면담, 통일연구원, 2003.3.25.

88 북한이탈청소년 최0회와의 면담, 2003.10.9.

다. 더욱이 고등학교 5학년부터 세계사 배우는데, 난 4학년까지만 다녀 세계사를 안 배워 아예 생소하다.⁸⁹

사회 같은게 제일 어렵다 선생님이 어느 지역이라 하면 애들은 위치 대강 있는데, 난 잘 모르니 어렵다. 선생님이 어느 지역하면 알아듣기 제일 힘들다.⁹⁰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학교 취학의 경우와 달리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당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학력이 인정되나, 검정고시에서는 전과목을 합격해야 해당학교 학력이 인정된다.

영어, 수학이 좀 어려웠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학원비와 차비로 한달에 15만원이 드는데,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학원비 대느라 학원 자주 빠지고 거의 잠을 못자 학원에 나와도 잠을 잤다. 그래서 한 친구가 검정고시에 떨어지자 공부를 포기하고 노가다를 하고 있다.⁹¹

아르바이트 하고 피곤해서 학원에 잘 안나오고, 자주 지각하니까 선생님들이 북한 학생들에 대해 좀 인식이 안좋았다. 솔직히 오히려 북한 애들이 순수하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제일 낫다. 북한 애들이 개네(남한애)들보다 오히려 담배도 더 안판다. 검정고시학원 남한 애들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 애들에 대한 인식이 낫다.

89 북한이탈청소년 고0영과의 면담, 2003.10.10.

90 북한이탈청소년 고0희와의 면담, 2003.10.10.

91 북한이탈청소년 최0천과의 면담, 2003.10.9.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학원수강과 함께 개별적인 학습지도(과외)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늘푸른학교나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복지관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데, 돈 내고 다니는 학원보다 책임적이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일이라서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깐 애들이 복지관에 잘 안나오구 선생님들과 사이가 별로 안좋다. 내 생각에는 좀 책임적이고 체계적인 학원이 있어서 맘껏 배웠으면 좋겠다.⁹²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할 일이 많은데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있다. 지난 날 영어 ABC도 몰랐는데, 노래 부르다 아는 영어 나오면 즐겁다. 선생님이 세상 이야기 하면 즐겁다. 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 일하면서 자급자족한다. 거진다 알바 한다. 한국 애들 배워주는 학원처럼 책임지고 가르쳐 주는 학원 있으면 공부 잘 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 하는 학원은 성에 안찬다. 지금 중국어 과외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편하게 버는 편이다. 학생 입장에서 돈 달라는게 아니라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해달라는 것이다. 공부하기 전에 세상을 비판적으로 봤다. 못산테서 왔으니까 그런게 있다. 배울수록 북한애들 뭐는 괜찮고 잘못됐다는 생각 한다. 공부 안한 애들은 모른다.

선생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 선생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선생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부모같은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별로 정겨운 마음이 없다.⁹³

92 북한이탈청소년 최0천과의 면담, 2003.10.9.

93 북한이탈청소년 김0화와의 면담, 2003.10.9.

(2) 교우관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나보다 3살 어린 애들이랑 학교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았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엄마랑 말도 안하고 말이 없어졌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갖게 되었다. 여기 오면 잘 될거라 생각했는데, 나이도 많건 적건 그냥 수준대로 학교에 넣고 하는 게 너무하다. 공부하는데 무슨 나이냐 하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모른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거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다.⁹⁴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출신에 대해 매우 높은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끼리 응집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 달리 한번 모일 계기가 있으면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거의 다 출석하여 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보다는 나이 많은 직장인 혹은 주부들과 같이 공부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도 하나 또래집단과 같은 교우관계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반은 학생보다 이주머니가 많은데, 한국애들도 다섯, 북한친구도 5명

94 북한이탈청소년 최0천과의 면담, 2003.10.9.

있다. 남한 애들도 그렇고, 북한 남자에게 2명이 복잡했는데, 떠들었다니 북에서는 왜 교양 그렇게 하나고 대뜸 해서 되게 서러웠다. 남한 애들은 떠들어도 귀엽다고 봐준다.⁹⁵

늘푸른학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보였고, 교사들이 볼 때도 이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았으나 돌아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기네끼리 놀고 장난한다,” “재수 없다”는 등 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⁹⁶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동네 깡패와 싸움이 벌인 후에 “남한 애들은 잘 먹어 맷집이 좋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애’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열등감과 이질감을 안고 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검정고시 학원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나쁘게 휩쓸리기 쉽다. 또 검정고시학원에 북한 애 한명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학원 안나왔는데, 여느 남한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남한 아이들이 “왜 북한 애들은 들락날락하나?”고 해서 거의 나와 싸울 뻔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잘 안한다.

북한사람이라면 낮게 본다(이유는 나라가 못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노래 불러 노래 잘부른다 하는데 그걸 북한애들 노래 잘한다 하면 기분 나쁘다. 열등감일 것이다.

하나들학교에서 일년에 한번 남북한 아이들 만나는게 있는데, 거기 갔다온

95 북한이탈청소년 30회와의 면담, 2003.10.10.

96 통일연구원에서 자원봉사자 인터뷰, 2003.3.25.

애들은 남한 애들이 너무 우릴 깔본다. 바보 취급한다 하면서 기분나빠 하는걸 들어서 웬만한 모임은 가지 않는다. 97

(3) 폭력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온 보름에서 한달은 이전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결연하나 두어달 지나면서 해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 문제 발생 빈도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남한사회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심리적 갈등이 고조·심화되면서 사소한일이라도 자극이 올 때 억눌렀던 스트레스를 크게 터뜨리게 된다. 주된 문제 발생은 폭력이었고, 주로 남학생들에 의한 것이다.

좋은벗들에서 체육대회 가서 만난 애가 하나원 1기생 남자애인데(21세) 오래되어 안정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난폭함은 살아 있었다. 말투 속에 혼자서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이 다 배어있었다. 욱하는 성격도 있고, “깡패 다 꿰고 있어 누구한테 해꼬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4~5년 된 애도 그런데 온지 얼마 안되는 애들 얼마나 방황할지...98

또한 이러한 폭력문제 발생계기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녀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TV를 보며 포도를 먹고 있을 때 남학생(20세)이 다가와 여학생의 포도를 계속 먹자 다툼이 일어났던 경우이다. 서로간에 “여자가 감히 어디 대드느냐;” “종간나새끼”라며 폭언과 주먹이 오가다 남학생이 휘두르는 주먹에 여학생이 얼굴과 머리를 여러 대 맞게 되었다. 이에 여

97 북한이탈청소년 100회와의 면담, 2003.10.10.

98 북한이탈청소년 100회와의 면담, 2003.10.9.

학생이 분개하며 담당형사에게 전화했고, 결국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19세 남학생 A의 경우 매춘경험으로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도 남한 깡패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등 방황이 심했었다. A가 성병에 걸려 민감해져 있던 시기 A를 포함한 몇 명의 교육생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술이 과해 함께 마시던 나이 어린 남학생 B-평소 A와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가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자 A가 B를 때리기 시작, 술병이 깨지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A가 B를 밖에 데리고 나가 때리던 중 B가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는 것이 재미없다며 부엌으로 들어와 칼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말리던 중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교사도 한 대 맞게 되었으며, A는 다시 밖으로 나가 B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싸워보자고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인근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폭력은 흔히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애들은 사회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라 한국애가 무조건 건들면 때리라 하면서 북한애들끼리 몽친다. 한 친구는 남한새끼들 상대 안한다고 하는 애들 있다. 한번은 남한 고등학교 3학년 6명이 같은 고등학교 북한애한테(학년은 같아도 남한 아이들보다 나이 2살 많음), 때려서 실신시켰다. 그래서 북한애들 열댓명이 몰려가 때린 애들을 당구장에 데리고 가 패서 특히 북한애 많이 때린 애는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 당구알이고 당구대고 가지고 때렸다. 먼저 때려서 까무라쳤기 때문에 신고도 못한다.⁹⁹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

99 북한이탈청소년 최0천과의 면담, 2003.10.9.

엄마가 애들보다 사회적응하기 힘들다. 오래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서 나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달라서 힘들었다. 엄마 없이 온 애들이 많은데, 엄마랑 같이 와 행운이라 생각한다. 친구들 중에 부모랑 같이 왔는데 북한에서 교육 제대로 못받아 여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많다. 아들이랑 아빠랑 있는데, 아빠가 어떤 북한 사람이랑 싸웠는데, 경찰이 와서 말리자 왜 남 일에 상관하냐고 했다. 오히려 어른들이 적대감이 많은 것 같다. 한국새끼들 하며 부모들이 분리하면 아이들이 따라간다. 어른들이 끼리끼리 모여 술 마시고 내가 볼 때 애들보다 비전 없다고 생각 된다.¹⁰⁰

(4) 성문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퇴소이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영구임대주택은 보호기간이후에 배정 받게 된다. 대부분 기숙사시설을 갖춘 대안학교(현재 ‘늘푸른학교’, ‘마치렐로 센터’, ‘돈보스꼬 센터’, ‘지구촌고등학교’ 등)에서 생활하게 되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 보호단체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탈하여 20세가 되어 주택을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떠돌게 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가 30여명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23~24세까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한명에게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장애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으며, 중국 체류기간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100 북한이탈청소년 최0회와의 면담, 2003.10.9.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이탈주민의 집에 남녀가 혼숙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와 같이 입국한 경우에도 10대 후반의 경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정의 경우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어머니가 이들에게 겁먹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단체의 경우 교육생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여학생들은 모두 산부인과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살된 한 친구(남자)는 빨간 집 가봤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 빨간집이 어떤 밑지 몰랐다. 그런거에(성교육) 대해서 교육 못하고 하니가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돈 쓰고, 이곳저곳 돈 뿌리고 다니는 것 같다.

나이 속여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8살 정도 애인데, 한국 나이 많은 사람처럼 중국에서 같이 살았다고 했다. 한 애는 중국에서 매춘을 시작했다. 돈 얼마씩 받고 한방에 남자 여럿이 있고 혼자 들어가 그랬다.

한 친구 동생은 태국 거쳐서 왔는데, 17살 때 한국에 와 하나원에서 알게 된 두 살 많은 오빠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 그 여자애 오빠가 나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했다. 오빠가 동생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 했다. 혼자 와서 그런 개념이 없다. 그냥 외로우니까 같이 살고 그런다. 오빠는 친 여동생한테 맘이 돌아선 상황이다. 중국에서 잘살자 맘 먹고 왔는데, 그렇게 달라지니 실망했다고 하더라.¹⁰¹

101 북한이탈청소년 최0희와의 면담, 2008.10.9.

(5) 불안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와 같이 입국이후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불안한 게 많았다. 처음 왔을 때는 어안이 병병해 몰랐는데, 1~2년 지나니 뉴스가 보이고, 사회가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겪기에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살던 사회랑 너무 달랐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많고, 택해야 할 것이 많아서 굉장히 불안했다. 몸은 피곤한데 한주일간 잠을 못 잤다.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빈부 차이 많은 것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사회에 대한 적대감도 생겼다. 북쪽에서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하나로 통합이 안되나? 싫다. 생각 들었다. 이 말 저 말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사회라는 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¹⁰²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원 갔다 오면 머리아프다면서 약을 먹고 자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애들 게임중독 많은데, 하루에 6~7시간 한다. 개네들 집에 가보면 맨날 게임하고 있다. 다른 거에 사회적으로 관심 없다. 동네 사람들이 애들 나쁘게 보니까 흥미 잃어서 게임만 재밌다하게 된다.¹⁰³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며, 피부알레르기나 구상탈모증,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건강했는데

102 북한이탈청소년 취회와의 면담, 2003.10.9.

103 북한이탈청소년 취회와의 면담, 2003.10.9.

남한에 와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국이후 신변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 당시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꾸 눈물이 난다”거나, 여학생의 경우 손에 십자모양의 칼집을 내는 형태로 자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¹⁰⁴

(6)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미성년인 경우에도 중국 등에서의 음주 및 흡연 경험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후에도 음주나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 몇 명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며, 남한의 법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오토바이에 대한 집착이 큰데, ‘집단폭주’를 즐기다 이웃 어른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오히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선창하면서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¹⁰⁵ 북한이탈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특히 남자 아이들, 여자도 그렇고 줄담배 피운다. 내가 봐도 한숨 나올 정도로 핀다. 남자아이들은 비전이 없고, 공부도 머리에 안들어 오고 학교에 가서도 내가 세면 짱으로 사는데, 순한 애들은 매도 맞았다. 거지같은 놈아, 밥도 못먹었지 그런 소리 들어서 적응 못한다.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도 타서 한번은 사고 난 적도 있었다.

104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통일연구원 2003.3.25.

105 통일연구원에서 실무자 인터뷰, 2003.9.16.

부천에 사는 한 남자애는 혼자 왔는데, 친구들끼리 같이 살았다. 몇 시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 없이 막 살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아이를 쳤는데 사고 피해자가 중학생인데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사고 낸 애는 감옥에 들어갔다. 사고 낸 애가 폐결핵인데, 담배도 계속 피고 자기 몸을 막 굴린다. 옆에서 도와 빼 내왔는데, 북에서 왔다하면 비준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서도 교훈 못 얻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오토바이를 샀다.

오토바이 산 애들은 대개 사고가 많이 난다. 한명은 제주도 사는 남자애 데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 전봇대에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 친구가 그 애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한다. 남자애들 무리져서 30명 정도 모여 줄담배 피면서 오토바이 문다. 무면허오토바이운전하면 두려워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¹⁰⁶

대부분 엄마, 아빠 없이 홀로 온 애들이 거의다 오토바이 있다고 보면 되고 거의 다 면허 없다. 술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 죽고, 거의 다 한번씩 사고난다.¹⁰⁷

(7) 탈북청소년 부적응의 원인

탈북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제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NGO들이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⁰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106 북한이탈청소년 최0희와의 면담, 2003.10.9.

107 북한이탈청소년 최0천과의 면담, 2003.10.9.

대안을 제시한 것도 NGO들이며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청소년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습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단체 등에서 별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정책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청소년 또래의 일반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개인적 배경 즉, 탈북의 동기, 제3국에 체류 기간 및 경험, 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방식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형편이다.

셋째, 적지 않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불안정한 가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난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일부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 식량난으로 북한을 벗어난 사람들로서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거나, 북한이탈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이 같이 북한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중국등지에서 장기간에 걸친 불법체류 상황으

108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통일백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항목을 보면 북한이탈청소년관련 정책의 예로서 하나들 학교를 들고 있다. 『통일백서 2003』, (서울: 통일부, 2003) 참조 ‘하나들 학교’는 하나원 내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운용되는 적응 프로그램으로 남북문화통합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 단독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늘푸른학교’, ‘한누리학교’ 등도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NGO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하고 운용되는 과정이다.

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비록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북 출신 배우자들 간 갈등이 적지 않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족 구조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입국자들도 남한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은 청소년 일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 단위로 입국하여 가족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적응속도가 빠른 젊은 세대에 비하여 나이든 세대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가치관과 같이 변화에 저항적인 문화적 요소들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가 많아질 수 있으며, 가족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급속히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청소년들과 이를 이해 못하는 부모들의 간격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체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체제는 여러 차원에서 차이가 적지 않고,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체제의 차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어 등 언어의 차이, 학력수준의 차이 그리고 학교 생활관행의 차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력차이로 자신의 연령대의 교과과정에 편입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학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생활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북한이탈청소년이 제3국에서 생존의 문제에 내몰려있다. 학교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경험을 적

지 않게 하게 된다. 범법행위를 포함해서 청소년 시기에 겪지 말아야 할 각종 경험들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¹⁰⁹

일곱째,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사람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낮은 학교, 쫓아가기 힘든 교과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남한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지만, 도리어 남한 학생들은 이들을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집단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⁰

2. 여성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이번 조사에서 여성은 총 응답자의 49.2%(376명)에 달한다. 여성응답자들 가운데 다수(63.2%)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36.1%)와 20대(27.1%)이며, 다음으로는 40대(14.7%), 60세 이상(9.2%), 50대(7.6%), 10대(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대 분포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에 있어, 최근 들어 특히 20대와 30

109 폭력의 일상화가 하나의 예가 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폭력적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10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2001). p. 22.

대 여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¹¹¹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자(66.7%)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학교(16.4%), 대학교이상(10.3%), 인민학교(5.6%), 무학(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여성응답자의 90%이상이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음은 북한의 11년제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여성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5.8%)가 한국거주기간이 1년 이하이며, 다음으로는 1년 초과 2년 이하(29.1%), 2년 초과 3년 이하(15.1%), 3년 초과 4년 이하(4.0%), 4년 초과 5년 이하(2.4%), 6년 초과 7년 이하(1.6%), 5년 초과 6년 이하(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의 생활기간은 1년 이하(24.0%)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3년 초과 4년 이하(20.2%), 4년 초과 5년 이하(18.8%), 2년 초과 3년 이하(15.8%), 1년 초과 2년 이하(9.3%), 5년 초과 6년 이하(8.4%), 6년 초과 7년 이하(1.9%), 7년 초과 8년 이하(1.1%), 8년 초과 9년 이하(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43.4%가 결혼한 상태이며, 56.6%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여성응답자의 33.1%가 단독으로 입국했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중 일부(30.7%), 가족 모두(22.8%), 친구(10.8%), 기타(2.4%), 친척(0.3%)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가족 중 일부, 또는 가족 모두와 함께 입국한 여성의 수가 절반이상(53.5%)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43.0%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나, 독신으로 살고 있는 응답자도 33.8%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부(18.7%),

111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도서출판 세명, 2001), p.

기타(3.4%), 양부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응답자들의 절반이상(56.5%)이 서울(46.2%), 경기(10.3%)지역에서 살고 있다. 부산·대전(각5.5%)을 제외한 충남(4.5%), 인천(4.0%), 대구(3.7%), 경북·경남·강원(각3.4%), 전북(2.6%), 충북(2.1%), 전남(1.8%), 울산(1.6%), 광주(1.3%), 제주(0.5%) 등에는 각 지역마다 5%미만의 소수인원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여성응답자의 62.4%가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37.6%는 없다고 답하였다.

나. 주관적 적응도

(1) 현재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총 여성응답자의 61.1%가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34.7%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¹¹² ‘매우만족’과 ‘다소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로 보았을 때,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65.7%)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대(64.2%), 50대(62.0%), 20대(61.8%), 40대(55.4%), 10대(4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한 여성들(54.4%)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66.2%)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72.5%)이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들(56.2%)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설문에 답한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으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42.6%), ‘신변불안 해

112 1988년의 한 조사에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64.7%가 남한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8%, 그저 그렇다는 26.5%로 나타났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99), p. 34

소'(28.0%)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설문에 답한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현재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4명의 여성면접자¹³ 모두 한국 생활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거주기간별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1년 이하(4.7%), 1년 초과-2년 이하(2.8%), 2년 초과-3년 이하(5.4%), 4년 초과-5년 이하(11.1%), 6년 초과-7년 이하(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족들의 신변확인’(30.6%), ‘물질적 풍요’(27.1%), ‘자녀교육’(15.3%) 등이다. ‘가족들의 신변확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은 단독, 또는 남편을 따라 탈북, 입국한 여성들이 재북 가족, 또는 친정식구들의 신변에 이상이 없기를 걱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응답자들은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물음에서 ‘가족에 대한 염려’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또는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염려’는 소수의 60세 이상 응답자와 무학력 응답자, 외국생활기간 6년 초과-7년 이하, 7년 초과-8년 이하의 응답자들만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또는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응답자의 18.4%만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에 답한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족들의 신변안전 여부를 크게 걱정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

113 50세여성('97탈북/02.9입국), 41세여성('02.8탈북·입국), 40세여성('02.1탈북/02.9입국), 22세여성('98탈북/01.6입국)

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응답자들이 ‘자녀 교육’을 낮은 비율로 지적하고 있음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비중을 낮게 두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녀를 둔 3명의 면접자 모두 자녀교육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막연하게 자녀의 진학 및 취업문제, 장래 진로문제 등을 언급했을 뿐이다. 한 신변보호담당관도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 지도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직업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37.9%가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41.7%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41.7%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모두가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응답자에 따라서는 ‘보통’이라는 답이 “답변유보, 또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감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총 여성응답자의 37.9%만이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총 여성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1%(‘보통’34.7%포함)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통’이라는 답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여성응답자의 16.4%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25.0%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도 2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근로 능력 상실’(15.3%), ‘외로움 및 고독감’(14.5%), ‘한국사회에서 역할상

살(11.8%) 등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수가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

(3)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한국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불만족이 나이가 탈북 후 한국사회에 편입된 것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입국 당시 한국사회에 대해 너무 막연한 기대를 했거나, 사선을 넘어 온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다고 느낀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입국 후 수년이 지나도 기대했던 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거나, 점차 자신 또는 자녀의 교육 및 사회진출문제, 결혼문제 등에 당면하게 되면서 한국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적응 기간에 대한 물음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절반 정도(48.1%)가 3년 정도와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이 수월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있어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또는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언어문제이다. 4명의 여성면접자들은 하나 같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였다.¹¹⁴ 이들은 남북한간 이질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은 특히 취업 및 직장생활과 관련해 심각성을 더하는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일하는 곳을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여성면접자도 있었다.

한국사회 적응상의 어려움은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면접자가 심각하게 토로하였다. 이 면접자는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몰이해와 불친절도 한국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와 같은 자신의 견해는 20대 북한이탈여성들 대부분의 견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딸과 함께 탈북, 입국한 50세 여성면접자도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질적 언어로 인해 취업 및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것과 앞으로의 경제문제 해결이라고 토로하였다.

언어사용 및 대인관계, 소외감·좌절감·외로움 등은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며, 특히 언어는 나머지 두 요인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테면 북한이탈여성이 언어의 이질화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이로 인해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곧 소외감 내지 좌절감을 초래하여 북한이탈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 객관적 적응도

(1) 경제적 실태

114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총 응답자의 58.8%가 일상적 문화생활에서의 어려움들 가운데 언어를 지적하였는바, 언어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음식, 의상, 화장 등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p. 23.

1998년의 한 조사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47.1%(‘아주 못사는 편’ 5.9%포함)가 자신들은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못사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총 여성응답자의 91.3%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돈벌기와 취직은 어렵다고 답하였다.¹¹⁵ 북한이탈여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입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편인가에 대해 총 여성응답자의 11.0%만이 충분하다고 답하였으며, 59.0%는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총 여성응답자의 93.9%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상은 6.0%에 불과하다. 월평균 수입이 201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총 응답자의 80.5%가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이며, 19.5%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1만 원 이상도 7.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의 기초생계보장 수급 기간은 절반이상(52.6%)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직자가 47.6%에 달한다. 여성 응답자들의 일부가 자신의 직종과 관련해 강연 또는 일용직 등을 기타에 포함시켜 답하였다고 한다면, 여성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무직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의 월평균 수입은 남성들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낮은 월평균 수입은 그들의 대부분이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또는 강연이나 일용직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사실상 취업형태와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수가 비정규직(총 여성응답자의 68.0%)에 속해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들의 거의 절반(49.0%)정도가 스스로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14.7%), 담당경찰의 소개(8.8%), 통일부의 직업알선(2.9%), 목사, 수녀 등

115 남한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총 응답자의 반수(50.0%)가 경제적 문제라고 답하였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pp. 12-13.

종교기관의 추천(2.9%) 등, 외부의 도움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취업보호제를 활용하여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도 많지 않다. 총 여성응답자의 18.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22.0%가 한국사회에서의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답하였으며 50.0%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1998년의 조사에서도 정부의 알선으로 취직한 여성은 총 여성응답자의 28.6%에 불과하였는바, 정부가 취업알선이나 경제적 지원을 가족단위로 사고함으로써 남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여성을 이차적으로 배제하는 점은 없는지 제고해볼 일이다.¹¹⁶

북한이탈여성들의 낮은 월평균 수입은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이 근원일 수도 있다.¹¹⁷ 이번 조사에서도 남성의 경우에는 총 응답자의 37.9%가 북한에서의 학력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비해 총 여성응답자의 50.8%가 북한에서의 학력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여성응답자들 가운데 거의 50%가 북한에서의 경력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설문에 답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자신들의 취업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인 것은 자신들의 능력부족(32.9%)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도 그들의 낮은 월평균 수입이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러나 총 여성응답자의 27.8%는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서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11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pp. 14-15.

117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총 여성응답자의 73.4%(고등중학교66.7%포함)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에서의 직업은 총 여성응답자의 74.9%(기타19.4%포함)가 노동자, 농장원 등이었다.

(2) 사회동화

이번 조사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74.9%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어울리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총 여성응답자의 62.6%(1주일에 한번) 41.6%(포함)가 1달에 한번 이상은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73.8%(기타0.5%포함)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기독교(66.4%), 천주교(5.0%), 불교(1.9%), 기타(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갖는 목적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81.0%)라고 답함으로써, 재북 가족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와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종교를 통해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엿보였다. 알려진 바로는 종교단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특정종교를 갖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서'(0.4%) 종교를 갖는다고 답한 여성응답자는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73.8%)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취학했던 여성들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응답자들 가운데 초·중·고 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10대 응답자가 소수(5.3%)이며, 여성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여성의 대부분이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학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의 여가활동은 절반(52.1%)정도가 텔레비전 시청이며, 다음으로는 컴퓨터(19.3%), 독서(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주로 실내에서 여가를 즐기는 편이며, 운동, 여행, 쇼핑 등과 같은 외부활동에는 소극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3) 평가

취업률, 취업형태, 취업경로, 직종, 월평균 수입 등으로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제적 실태는 열악한 편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수년 전의 조사 결과와 거의 같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낮지 않다.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은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 내지 동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제실태 개선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여성응답자의 다수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며, 1달에 한번 이상은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여성응답자의 81.0%(‘보통’52%(포함)가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총 여성응답자의 51.0%가 무관심이라고 답하였으며, 8.0%가 적대적이라고 답하였다. ‘한국 주민의 냉대와 편견’ 때문에 사회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도 25.4%를 차지했으며, 여성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37.0%), 사고방식이 달라서(27.6%), 말투가 달라서(13.2%), 노력 없이 기대 수준이 높아서(9.7%), 능력이 부족해서(6.6%) 등의 이유로 주변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갖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동네 이웃’을 의논 상대로 찾게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은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 및 태도가 자신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며,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일종의 선입견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면접조사에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은 주변사람

들과의 교류에 있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며,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면접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여성면접자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는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여성들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여가활동을 하기보다는 실내(주로 자신들의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역시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내지 동화에 있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라. 부적응 요인 평가

설문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다수가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36.4%),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25.4%)을 지적하였다.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한 응답자들은 전문학교 학력과 대학교 이상 학력 응답자, 한국거주기간 2년 초과 3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7년 초과 8년 이하 응답자, 외국생활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응답자, 기혼 응답자, 가족과 함께 사는 응답자, 서울과 전북지역 거주 응답자 등이었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수준 부족'(5.9%)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36.4%), '가족에 대한 염려'(12.4%)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응답자, 무학력 응답자, 외국생활기간 6년 초과 8년 이하 응답자, 울산지역 거주 응답자 등은 '가족에 대한 염려'를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에 관한 물음에서도 총 여성응답자의 41.0%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36.0%), ‘삶의 목표 불확실’(25.0%), ‘안이한 삶’(7.0%), ‘죄책감 때문에’(1.0%) 등 내부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여성응답자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문제(20.4%), 근로능력 상실(15.3%), 외로움 및 고독감(14.5%), 한국사회에서 역할상실(11.8%) 등을 지적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도 25.0%에 달했다. 부적응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67.9%(‘보통’38.6%포함)가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는 70.5%(‘보통’34.2%포함)에 달하는 남성응답자의 비율보다는 낮다. 주변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37.0%)를 첫 번째로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사고방식이 달라서(27.6%), 말투가 달라서(13.2%) 등,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총 여성응답자의 88.8%(‘조금 생각있다’28.6%포함)가 정착금이나 수입을 재북, 또는 재증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남겨두고 온 가족의 신변안전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신변안전 확인 및 보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보였다. 여성응답자들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서도 ‘가족들의 신변확인’(30.6%)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51.5%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35.8%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제3국 체류기간에 가장 영향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들의 절반(50.9%) 정도가 ‘중국조선족’이라고 답함으로써 탈북과정에서 중국조선족의 도움이 컸으며, 자신들이 중국조선족들에게 많이 의지했음을 말해 주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원인 역시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크거나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인이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응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20대 여성들이 그러하다고 토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다수가 사회적 편견의 첫 번째 이유로 단지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일면 '북한이탈주민'라는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의 발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여성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는 말과 억양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매우 당혹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무시로 느껴진다고 한다.

여성응답자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문제(20.4%), 근로능력 상실(15.3%), 외로움 및 고독감(14.5%) 한국사회에서 역할상실(11.8%)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여성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근로능력 상실, 외로움 및 고독감,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 등이 당사자의 정신건강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때,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은 남겨두고 온 가족의 신변안전 여부 확인 및 경제적 지원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는바, 이를 위해 정착금이나 수입을사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면접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히 남편을 따라 자녀들과 탈북, 입국한 한 여성은 재북 친정가족들을 데려오는 데에 정착금을 다 쓸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혔듯이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가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

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또는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응답자들도 그 가운데 18.4%만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중요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죄책감 때문'이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총 여성응답자의 1.0%에 불과하다.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51.5%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35.8%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제3국 체류과정을 거치지 않고 탈북 후 곧바로 입국한 한 여성면접자는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체류 자체를 매우 부정적,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제3국 체류가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에서의 행적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족단위로 탈북, 입국한 2명의 여성면접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남편의 잦은 구타라고 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도 남편의 구타가 잦았으며, 한국에 정착한 후로도 남편의 구타행위가 지속되는바, 북한에 비해 여성을 존중하는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구타는 참아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한국사회 적응에도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¹¹⁸ 또한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내지 동등한 부부관계에 대해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다.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1998년의 설문조사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118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동등한 위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60.

82.4%가 일하고 싶다고 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여성은 총 응답자의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⁹ 이번에 행한 설문 및 면접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들은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문제라고 답하였다. 사실상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 대부분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이하이며,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무직자로 살아가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의 다수도 비정규직으로 있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의 거의 절반정도가 스스로 직장을 구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총 여성응답자의 50.1%가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찬성하였으며, 32.8%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은 원하는 결혼상대와 관련해 남한주민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성면접자들은 남한남성들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실제 결혼상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취업실태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재북시절 학력 및 경력,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한 비정규직 선택,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취업 등 여성 자신의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능력부족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부족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감안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⁰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적 상태는

119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p. 14.

120 이번 조사에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42.0%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75.0%(‘보통’31.0%포함)가 직업훈련을 받은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와 그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 연관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업 여부, 직업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의 수입이 낮고 스스로 그것에 불만을 느낄 때 이들은 그로 인한 좌절감으로 많은 정신건강적인 문제점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¹²¹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는 그들의 사회적응 정도를 기능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취업 및 직장생활은 그들의 자존(自存)의지를 강화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을 통해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점차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나가려는 의지를 보다 더 다질 수 있을 것이며,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추구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의의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²²

여성면접자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자유체제에 편입

121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25-126.

122 1998년의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94.2%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반대한다할지라도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100%가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 여성은 남성처럼 직장을 가져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p. 14; 또한 1999년의 한 논문에서는 80% 이상의 탈북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취업은 30%이하로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문화적·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9), pp. 1-2.

된 이상, 북한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특히 극심한 가부장문화에서 벗어나, 한국여성들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여성 면접자들 가운데 특히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정에서는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편 중심의 가부장문화에 살고 있으나, 한국여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하는 회의와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고 밝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여성응답자들은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면접결과에 따르면, 3명의 기혼여성들은 결혼을 가정한다면, 남한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답하였는데 반해 20대 초반의 미혼여성들은 북한남성과 결혼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남한남성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기는 하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가정생활이 힘들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남한 남성과 결혼한 북한여성들의 이혼율이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3명의 기혼여성들도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것은 막연한 기대에 따른 희망을 말한 것이며, 막상 결혼하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여성응답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의논상대를 ‘가족 및 친척’(39.0%), ‘신변보호담당관’(20.8%), ‘없다’(11.4%), ‘탈북동료’(10.9%), ‘기타’(8.2%), ‘거주지보호담당관’(4.1%), ‘동네이웃’(2.3%), ‘하나원 담당관’(1.8%), ‘민간단체’(1.2%), ‘취업보호담당관’(0.3%)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가족 및 친척’을 첫 번째 의논상대로 하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응답자의 절반이상(53.5%)이 가족 중 일부, 또는 가족 모두와 함께 입국하였으며, 여성응답자의 43.0%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면접조사에서는 가족단위로 탈북, 입국한 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족 및 친척과 의논하며, 다음으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 또는 나이 어린 자녀와 함께 탈북, 입국한 여

성인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을 가장 먼저 찾으며, 다음으로 탈북동료들과 의논한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응답자들이 ‘취업보호담당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취업보호담당관’을 의논상대로 찾는 응답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절반정도가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즐긴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곧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해 텔레비전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들은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의 교육과 지원’(42.0%), ‘나 자신의 노력’(27.0%), ‘종교단체’(10.0%) 등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TV나 신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에 불과했다.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과 관련해 총 여성응답자들의 62.0%가 한국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26.3%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정부의 지원내용 중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36.1%)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취업보호’(20.4%), ‘생계비지원’(15.5%), ‘임대주택’(10.5%), ‘정착금’(6.1%), ‘직업훈련’(4.7%), ‘교육보호’(4.4%), ‘기타’(2.3%)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정부지원(정착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상관없다’(34.7%), ‘일정기간 분할’(28.2%), ‘일시불’(20.0%), ‘받은 일시불로 나머지 받은 분할’(17.0%)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면접조사에서도 여성면접자 4명 모두 한국 정부의 지원수준에 불만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정부지원(정착금)을 받는 방법도 현행 방법을 유지하

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내용 중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내지 취업보호라고 답하였다.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총 여성응답자의 93.6%가 하나원 교육을 받았으며, 62.3%가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31.9%),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 실습’(25.0%),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24.8%)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요소가 ‘없다’고 답한 사람도 11.1%를 차지했으며, ‘한국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적한 사람은 7.1%에 불과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서는 ‘없다’(37.6%)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22.7%), ‘한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12.1%), ‘강의식 수업 등 교육운영 방식’(11.5%)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가장 적당한 하나원 생활 기간을 3개월 이하(88.2%)라고 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약 52%가 ‘1-2개월’이라고 답함으로써 현행기간에 불만이 없음을 나타냈다. 하나원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53.9%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36.1%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하나원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족은 고등중학교(8.4%), 전문학교(10.6%), 대학교이상(30.3%) 등의 순으로 학력이 높아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사회이해에 관한 강의와 관련해서도 총 여성응답자의 63.8%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0%였다. 독신 입국 여성들의 별도시설(분원) 교육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65.0%가 찬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46.0%

는 ‘매우 찬성’이라고 답하였다.

하나원에서의 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70.6%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하나원에서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총 여성응답자의 54.2%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39.8%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총 여성응답자의 90.1%가 하나원이라는 정부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북한이탈주민들만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폐쇄성(49.0%), ‘교육의 비효율성(22.0%), ‘운영방식의 비합리성·‘기타(각 16.0%)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여성응답자들이 원하는 사회적교육 주체는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53.2%), ‘정부주도’(37.2%) 등으로 나타났다.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총 여성응답자의 51.6%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38.4%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31.9%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49.3%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취업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서는 총 여성응답자의 31.2%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46.7%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보호담당관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4명의 여성면접자들 모두도 신변보호담당관이 사회적응과정에서 만난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도움이 되었던 지원자라고 밝혔다.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총 여성응답자의 37.5%가 만족한다고 답하

였으며, 54.4%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5) 평가

이번 조사에서 여성응답자들은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라고 답하였으며, 여성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교육 및 지원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은 정부의 정착지(거주지) 배정에 대해서도 총 여성응답자의 58.0%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30.0%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특히 취업보호 및 생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낮지 않았다. 또한 여성응답자들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정부 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교육’(33.7%), ‘직업훈련교육’(23.9%),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15.3%),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15.0%),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8.6%), ‘기타’(3.5%) 등의 순으로 답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응답자들은 하나원 생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특히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31.9%),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 실습’(25.0%) 등이라고 답함으로써, 하나원에서의 실생활 관련 교육 및 실습이 그들의 사회적응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여성응답자들은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 ‘없다’(37.6%)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22.7%),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12.1%), ‘강의식 수업 등 교육운영 방식’(11.5%)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기대 수준에서 볼 때, 하나원 교육이 아직은 미흡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여성응답자들이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 호의적·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하나원 퇴소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일대일의 관계에서 잦은 접촉 및 대화를 통해 일상적인 일에 직접적·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데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¹²³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취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보다 더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⁴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성인남성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는 780명이었다. 그중 시스템 결측값 7명을 제외한 응답자 773명 중 남성은 39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8%를 차지하

123 한 설문조사에서 보호경찰관(신변보호담당관)이 자신이 담당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방법은 인간적 접근(53.4%), 잦은 대화와 접촉의 시도(16.7%), 애로사항 해결(직장 및 병원소개, 자원봉사자 연결 등)(11.1%), 남한 적응교육(9.9%), 경제적 도움(경찰관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우택 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 39.

124 1999년의 한 면접조사에서도 총 여성응답자의 80%가 남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직업에 관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김숙임,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p. 53.

고 있다. 이러한 남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4.1%, 20대 20.6%, 30대 35.6%, 40대 22.6%, 50대 11.2%, 60대 이상 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집단별 분석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될 30대, 40대 성인남성은 전체 남성 응답자 중 58.2%를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 성인남성 위주로 입국이 이루어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남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인민학교 2.8%, 고등중학교 57.6%, 전문학교 16.5%, 대학교 이상 23.1%로 나타나고 있는바,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성인남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57.9%, 전문학교 18.2%, 대학교 이상 23.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 33.2%, 2년 미만 29.8%, 3년 미만 15.7%, 4년 미만 9.4%, 5년 미만 4.2%, 6년 미만 1.8%, 7년 미만 1.8%, 8년 미만 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비율과 비교할 때 1년 미만이 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은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북 초기에 남성 위주로 탈북이 이루어졌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남성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해 1년 미만 37.5%, 2년 미만 28.2%, 3년 미만 14.6%, 4년 미만 7.5%, 5년 미만 4.3%, 6년 미만 1.4%, 7년 미만 1.4%, 8년 미만 2.9%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유무와 관련하여 기혼이 42.4%, 미혼이 57.6%로 전체적인 비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결혼 유무에 대해 기혼 48%, 미혼 52%로 나타나고 있는바, 30대, 40대라는 연령을 고려할 때 기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국 시 동반 형태와 관련하여 가족 모두 18.8%, 가족 중 일부 23.1%, 친척 1.0%, 친구 18.0%, 단독 36.5%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족과 동반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친구와 동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가족 모두 18.6%, 가족 중 일부 18.2%, 친척 1.1%, 친구 21.4%, 독신 38.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성인 남성의 경우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하여도 가족 일부와 입국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친구 및 단독으로 입국하는 비율은 여성을 포함한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인남성의 경우 친구와 입국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동거 형태와 관련하여 가족 37.5%, 양부모 2.3%, 독신 38%, 부부 19.5%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의 동거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독신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34.2%, 양부모 0.7%, 독신 40.1%, 부부 22.2%로 나타나고 있다. 입국형태와 마찬가지로 성인남성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낮으며 전체남성과 비교해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마찬가지로 독신의 비율이 높고 연령을 고려할 때 부부 동거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 유무에 대해 있다 63.9%, 없다가 36.1%로 나타나 전체적인 비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다 66.2%, 없다 33.8%로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점, 친구와 함께 입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독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성인남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주관적 적응도

(1) 현재 만족도

현재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만족 23.8%, 다소 만족

36.2%, 보통 31%, 다소 불만족 7.7%, 매우 불만족 1.3%로 60%가 만족, 9%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적인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다만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불만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매우 만족 24.6%, 다소 만족 32.7%, 보통 33.5%, 다소 불만족 7.4%, 매우 불만족 1.8%로 응답하고 있다. 만족스럽다는 비율은 57.3%로 전체응답자 및 전체남성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생활의 만족여부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인민학교의 경우 보통이 18.2%, 매우 만족 36.4%, 다소 만족 45.5%로 다른 경우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보통이 약간 높은 가운데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경우에 비해서는 매우 만족이 높게 나타나나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으며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년 미만의 경우 다소 만족이 낮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5년 미만과 비슷하게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년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5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우 만족이 크게 낮은 가운데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의 경우 3년 미만과 6년 미만이 전체적으로 다른 거주기간에 비해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년 미만

의 경우 보통이 낮은 가운데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20% 정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스럽다는 전 기간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만족스럽다는 비율의 차이는 대체로 보통이라는 비율에서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결혼 유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친구와 입국한 경우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 일부, 친구와 입국한 경우 매우 만족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다소 만족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동반, 단독 입국의 경우 불만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부의 경우 매우 만족이 다른 거주 형태에 비해 8% 정도 낮게 나타나면서 다소 만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 유무는 상관성이 낮은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만족도 속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의 기대사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 45.4%, 신변불안 해소 21.4%, 물질적 풍요 14.2%, 교육의 기회 8.1%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자유와 신변불안 해소를 기대하고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신변불안 해소를 위해 입국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 51.4%, 신변불안 해소 18.1%, 물질적 풍요 13.3%, 교육의 기회 6.8%,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5.6%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전체 남성에 비해 성인남성들은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변불안 해소는 2순위이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입국시의 기대치와 대비하여 현재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비교하여 보면 물질적 풍요 30.5%, 가족들의 신변확인 26.5%,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15.1%, 자신의 학교교육 11.7%, 자녀교육 1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국 이후 남성들은 물질적 풍요가 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신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남성은 자신의 학교교육을 자녀교육보다 우선시 하는 역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물질적 풍요를 보다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물질적 풍요 30.7%, 가족들의 신변확인 24.1%,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17.1%, 자녀교육 16.7%, 자신의 학교교육 5.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풍요가 가장 우선적인 필요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의 신변확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원활한 인간관계와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체 남성과 비교할 때 성인남성은 자신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으며 전체남성의 비율과는 달리 자녀교육이 자신의 교육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대치 속에서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보통 36.3%, 다소 만족 26.9%, 매우 만족 17%, 다소 불만족 12.3%, 매우 불만족 7.6%의 비율로 응답하고 있는 바,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매우 만족 12.9%, 다소 만족 25%, 보통 37.9%, 다소 불만족 16.7%, 매우 불만족 7.6%라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은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남성과 비교할 때에 매

우 만족이 낮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비중이 성인남성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남성과 비교하여 다소 만족이 높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한국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자유와 신분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국 이후에는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시 하며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하는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는 비율이 높지만 보통이라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만족도라는 차원에서 성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성인남성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학력을 고려한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남성, 특히 성인남성의 경우 입국시 자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내 거주기간이 만족도와 상관성을 갖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바, 민간단체와의 연계 속에 거주기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독 또는 친구와 입국한 남성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건강상태

탈북에 따른 신분불안, 제3국 체류과정에서의 체포송환의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 입국과정에서의 심리 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적응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남성들은 매우 좋다 10.5%, 다소 좋다 16.4%, 보통이다 34.6%, 다소 나쁘다 29.2%, 매우 나쁘다 9.2%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들도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다소 나쁘다 이상의 부정적 답변이 5%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30, 40대 성인남성들은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 8.8%, 다소 좋다 14.7%, 보통 34.7%, 다소 나쁘다 31.9%, 매우 나쁘다 9.8%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성인남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인남성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여성과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신체질환유무와는 관계없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성인남성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하여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인남성에 대해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에 대한 상담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분야별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남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적응, 불편 없는 언어 사용, 불편 없는 대인관계,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공통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1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인식이 37.9%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가지 항목에 걸친 적응기간과 관련하여 전체비율과 비교할 때 한국사회 적응, 불편 없는 대인관계, 소외감·외로움·좌절감 극복 항목에서 남성이 3년 및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높게 응답하고 있는바, 여성에 비해 남한 사회 적응에 더 오래 걸린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6개월 정도가 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년 정도 이상이 낮게 나타나 직업훈련에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불편 없는 언어사용에서 3년 이상이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편 없는 대인관계에서도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목별 적응기간을 볼 때 대인관계, 소외감 극복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대한 특별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4> 항목별 적응기간 비교

항목/기간		6개월 정도	1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3년 이상
한국사회 적응	전체응답자	11.5	20.7	15.5	19.7	32.5
	전체남성	12.1	19.7	11.8	23.6	32.9
	성인남성	12.7	17.0	13.1	22.4	34.7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전체응답자	27.0	37	19.5	6.6	9.8
	전체남성	27.7	38	17.3	7.5	9.5
	성인남성	32.9	36.9	17.7	6.0	6.4
불편 없는 언어 사용	전체응답자	9.1	16.5	22.4	17.8	34.3
	전체남성	8.5	17.4	21.5	16.8	35.9
	성인남성	7.7	17.4	18.6	17.4	38.9
불편 없는 대인관계	전체응답자	10.6	18.5	19.2	17.3	34.4
	전체남성	11.1	16.8	18.3	15.3	38.6
	성인남성	11.3	15.0	19.2	13.8	40.8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극복	전체응답자	12.1	18.1	16	16	37.6
	전체남성	12.1	14.2	14.8	17.5	41.4
	성인남성	12.4	16.1	15.7	15.7	40.1

다. 객관적 적응도

(1) 경제적 실태

배급제도에 따라 국가에 의존적인 생활을 하여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에 따라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수입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남성들의 수입상황을 살

펴보면 50만 원 이하가 34.4%, 5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가 46.1%, 10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가 12.3%, 151만 원 이상 200만 원 5.2%, 201만 원 이상 2% 등의 수입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80.4%가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남성은 19.6%에 불과하다. 다만, 전체적인 수입상황과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비율이 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남한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직장 내에서의 역할구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대, 40대 성인남성의 경우 월 수입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가 28.3%, 51만 원에서 100만 원이 51.7%, 101만 원에서 150만 원이 12.8%, 151만 원에서 200만 원 4.9%, 201만 원 이상 2.3%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의 수입상황을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대체로 남성 중 수입이 있는 경우 대부분 30대, 40대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50만 원 이하는 전체응답자 및 전체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는 전체응답자 및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입구조에는 기초생계보장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실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생계보장의 수급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생활보장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이 46%, 1년 이상 3년 미만이 42.1%로 3년 미만 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남성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기초생계보장에 경제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기초생계보장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년 미만 49.4%, 1년 이상 3년 미만 40.9%, 3년 이상 5년 미만 4.3%, 받은 적 없다 5.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 남성전체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필요한 요소

이다. 이러한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무직 35.8%, 학생 20.5%, 회사원 16.8%, 자영업 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취직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원의 비중이 높다. 성인남성의 경우 무직 39%, 회사원 17.3%, 학생 13.7%, 자영업 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무직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인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무능하기보다는 학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학생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남성에 비해 회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무직이 무능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성인남성의 경우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는 취업과 함께 남한사회 내부에서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취업의 형태가 중요한 고려변수라고 하겠다. 남성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41.4%, 비정규직 48.3%로 취업형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정규직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정규직 45.2%, 비정규직 48.1%로 비정규직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으나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남성에 비해 정규직이 약간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직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능력부족 31.3%, 취업난 20.5%, 생계비 수급을 위해 18.8%, 차별대우 17%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할 때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생계비 수급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체남성의 경우 전체응답자외는 달리 2순위 취업난, 3순위 생계비라고 인식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인 이유에 대하여 능력부족 28.2%,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23.1%, 취업난

21.8% 차별대우 17.9%로 답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우선순위면에서 전체 응답자와 동일하지만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전체남성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느끼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56.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14.4%, 담당경찰 소개 10.6%, 종교기관 추천 6.3%, 통일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이 각각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있으며 통일부나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직업을 구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직과정에서 담당경찰관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남성들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직업을 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현재의 직장에 취직한 방법에 대하여 스스로 56%,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13.6%, 담당경찰 8.0%, 종교기관 추천 8.0%, 통일부 직업알선 4.0%,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 4.8%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성인남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 고용안정센터 등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설문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취업보호제도 활용에서도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72% 이상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취업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에 비해 취업보호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약 4%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보호제 활용여부에 대하여 31%가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전체남성에 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남한사회 내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능력부족 26.4%, 나이 18.0%,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 13.8%, 적극적인 구직활동 부족 10.0%, 직업훈련 미이수 6.7%라고 답하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능력부족을 취업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꼽고 있으며 남한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취업구조를 반영하여 나이를 다음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능력부족 25.3%,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 15.9%, 적극적 구직활동 부족 12.1%, 나이 8.8%, 직업훈련 미이수 8.2%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을 2순위, 적극적 구직활동 부족을 3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은 낮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남성(성인남성)들은 정부의 취업알선이 더 활성화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보호제도를 활용하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직업알선, 취업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건 조성시 성인남성의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취업 이후 차별대우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경력과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의 교육경험과 관련하여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12.3%, 도움이 되는 편이다 26.9%, 보통 2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8%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혼재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약 6%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인남성의 경우 북한에서의 학력이 한국사회적응 도움 여부에 대해 매우 많이 도움 10.7%, 도움이 되는 편 28.5%, 보통 22.4%,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5%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성인남성의 인식에서 커다란 차이는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직장경험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9.2%, 도움이 되는 편이다 27.8%, 보통 27%,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4%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교육경험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혼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북한에서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직장경험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북한에서의 직장생활경험이 한국사회적응 도움 여부에 대해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8.5%, 도움이 되는 편 28.4%, 보통 27.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성인남성의 인식에서 커다란 차이는 없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경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성 응답자의 북한 내 직업을 살펴보면 노동자 43.7%, 학생 16.8%, 군인 13.5%, 해외근무 3.8%, 교사 2.7%, 농장원 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군인과 해외근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북한에서의 직업에 대해 노동자 52.8%, 군인 14%, 교사 4.2%, 농장원, 해외근무 각 3.8%, 당간부 2.6%, 학생 1.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는 없다. 다만, 연령을 감안할 때 학생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성인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북한 내 교육과 경력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북한 내 교육경험과 경력이 남한사회 적응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내 직종에 따른 남한 내 적응의 상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적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들이 실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없다 28.8%, 업무수행능력 부족 26.2%, 대인관계 15.7%, 급여 및 복리후생 취약 8.5%, 출퇴근 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응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업무수행능력에서 가장 커다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대인관계도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없다 25%, 능력부족 24.2%, 대인관계 15%, 급여 및 복리후생 취약 11.7%, 출퇴근 문제 8.3%로 나타나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사회동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하여 남한주민과의 교류 등 친화정도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웃,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동화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잘 어울린다 13.1%, 잘 어울리는 편이다 35.5%, 보통이다 37.3%,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다 9.9%,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4.2%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어울리지 못하는 비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웃과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이웃 및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잘

어울린다 13%, 잘 어울리는 편이다 32.3%, 보통이다 41.1%,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다 9.1%,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46%로 답변하고 있다.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별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인식에 대해 교류빈도는 사회동화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동네 이웃들과의 교류빈도는 없다 42.7%, 1주일에 한번 33.5%, 1달에 한번 20.7%, 1년에 한번 3.1%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잘 어울린다는 응답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없다는 비율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남성이 약 4% 정도 동네이웃과의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류빈도를 볼 때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회동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남성의 경우 동네이웃들과의 교류빈도에 대하여 1주일에 한번 31.5%, 1달에 한번 21.1%, 1년에 한번 3.2%, 없다 4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비교하여 1주일에 한번 교류한다는 비율이 약 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동화 정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58.5%, 종교 없다 34.9%, 천주교 3.9%, 불교 1.3% 순으로 답하고 있다. 65%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별로 보면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구조를 살펴볼 때 남성이 상대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비율이 약 5%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갖는 목적과 관련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해 73.6%, 주위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 16.9%, 한국에 입국할 때 종교인의 도움 때문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종교본래의 목적인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주위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이 약 4%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종교활동에 대해 기독교 59.1%, 천주교 4.7%, 불교 1.1%, 없다 33.7%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갖는 목적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위

해서 77.9%,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13.4%, 목사나 스님,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5.8%,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어 2.3%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할 때 주위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취학기간을 통하여 사회동화 정도를 살펴보면 다닌 적이 없다 59.6%, 1년 이하 23.9%, 1년에서 2년 이하가 10.4%, 2년에서 3년 이하가 2.4%, 3년 이상이 3.7%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약 6% 정도 학교를 다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취학기간에 대해 없다 64.5%, 1년 이하 23.4%, 1년에서 2년 6.5%, 3년 이상 3.0%, 2년에서 3년 2.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성인남성은 연령으로 인해 취학기간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39.0%, 독서 19.8%, 컴퓨터 18.0%, 친구만남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독서와 친구만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해 텔레비전 시청 45.0%, 독서 18.2%, 컴퓨터 16.9%, 친구만남 9.9%, 여행 2.5%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응답자와 비슷한 여가활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20대 이하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은 낮고 컴퓨터, 독서, 친구만남을 통하여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화가 부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지역사회 차원 보다 좁게는 마을의 차원에서 남성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다양한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 부적응 요인 평가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41.0%,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 20.2%, 경제적 어려움 15.3%, 지원수준의 부족 12.1%, 가족에 대한 염려 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신의 태도와 무능력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가족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원수준에 대해서도 여성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대해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38.6%,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 22.3%, 경제적 어려움 15.9%,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 11.6%, 가족에 대한 염려 8.8%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은 전체응답자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무능력, 지원수준, 가족에 대한 염려는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한국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40%정도로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1순위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소에 대하여 학력에 따라 2, 3, 4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민학교 학력의 경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 학력의 경우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서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 1순위라는 점에

서는 공통적인데, 1년 미만의 경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이 낮게 나타나다가 1년 이상이 되면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은 3, 4순위가 거주기간에 따라 혼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결혼 유무는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이 1, 2순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기혼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3순위, 미혼자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이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에 대해 12% 정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입국형태와 관련하여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 35%대로 1순위,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 모두, 가족 중 일부와 입국한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친구,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가족 일부가 입국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가족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 의외로 가족에 대한 염려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동거 형태에서도 1, 2순위는 공통적이나 동거형태에 따라 3, 4순위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수준 부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13% 이상 높게 나타나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은 상대적으로 다른 거주형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 유무는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 경제적 어려움,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수준 부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 높게 나고 있다.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염려가 5순위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보호 이후 적응과정에서는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되, 학력, 거주기간, 결혼 유무, 입국형태를 고려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점과 관련하여 외로움 및 고독감 23.4%, 없다 22.0%, 한국사회 역할 상실 13.0%,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13.0%, 건강 11.0%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경우 없다, 외로움 및 고독감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외로움 및 고독감을 더 심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없다 22.0%, 외로움 및 고독감 21.6%,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 건강상의 문제 각각 14.4%, 경제적인 어려움 10.2%, 여가, 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부족, 가족돌보기의 어려움이 각각 4.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교할 때 건강문제에 대한 애로를 더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인남성은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인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인남성의 경우 역할 상실과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 취업문제 41.3%, 가족문제 21.9%, 이성문제 11.5%, 없다 9.8%, 진학문제 6.7%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남성은 전체응답자와 비교할 때 여성에 비해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현재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 취업문제 45.9%, 가족문제 20.8%, 없다 10.8%, 이성문제 10.8%, 진학문제 2.3%, 친구관계 0.8%로 나타나고 있다. 전

채용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취업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체남성, 성인남성은 가족문제에 대해 여성에 비해 고민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성인남성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진학문제에 대한 고민은 낮으며 전체남성보다는 낮지만 여성에 비해 이성에 대해 보다 고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사회적 편견

앞에서 살펴본 한국주민의 냉대, 편견과 관련하여 한국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 10.2%, 다소 찬성 26.1%, 보통 34.2%, 다소 반대 15.9%, 매우 반대 13.6%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치를 통해 볼 때 찬성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와 비교하여 다소 찬성 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약간 높게 나타나 차별인식을 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남성의 경우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 10.0%, 다소 찬성 24.2%, 보통 34.9%, 다소 반대 14.9%, 매우 반대 16.0%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는 바, 30대, 40대 이외의 남성들이 더 차별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주변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42.8%, 사고방식이 달라서 28.0%, 노력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1.7%, 말투가 달라서 6.6% 순으로 답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대부분 북한에서 왔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성에 비해 말투가 달라서 편견을 갖는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

인남성의 경우 주변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40.1%, 사고방식이 달라서 25.9%, 노력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2.6%, 말투가 달라서 7.7%, 능력이 부족해서 7.3%, 별다른 이유없이 6.5%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와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다.

(2) 가족의 신변불안

제3국이나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다양한 연락통로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정착금이나 수입을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신변에 대한 걱정과 관련하여 정착금이나 수입을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용할 의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사용 67.1%, 조금 생각 있다 24.9%로 90% 이상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정착금이나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응답자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정착금이나 수입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사용할 의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65%, 조금 생각 있다 27.2%, 거의 생각 없다 2.5%,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1.8%, 관심 없다 3.5%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별다른 인식의 차이는 없으나 성인남성을 포함하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탈북과정

탈북과정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관련하여 3국에서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 13%, 다소 긍정적 36%, 다소 부정적 10%, 매우 부정적 5%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인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인남성의 경우 제3국 체류기간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 15.9%, 다소 긍정적 35.4%, 보통 32.5%, 다소 부정적 10.5%, 매우 부정적 5.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응답자 및 전체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체류기간 동안 남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 인물과 관련하여 선교사 38%, 중국 조선족 37%, 입국브로커 5%, 재외공관원 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조선족과 선교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조선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제3국 체류기간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할 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 조선족 39.9%, 선교사 37.9%, 입국브로커 5.6%, 재외공관원 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선교사보다 조선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사회 적응에서 성인남성의 경우 조선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도움이 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찬성 26%, 다소 찬성 27%, 보통 27%, 다소 반대 12%, 매우 반대 5%의 반응을 보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 22.9%, 다소 찬성 29.3%, 보통 25.4%, 다소 반대 15.4%, 매우 반대 7.1%로 응답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응답자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낮으며 그 비율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인남성은 전체응답자 및 다른 연령의 남성에게 비해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결혼하게 될 경우 선택할 상대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31%, 출신지역이 상관없다 28%, 남한주민 27%, 기존 배우자를 기다리겠다 9%, 결혼할 의사가 없다 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실제 결혼상대 선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이 상관없다가 상위에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전체적인 인식들과 차이는 없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인식이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5%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결혼상대자 선택에 대해서는 남한주민 24.9%, 북한이탈주민 34.9%, 출신지역 상관없다 24.5%, 결혼의사 없다 5.8%, 기존 배우자 기다리겠다 1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에서 보듯이 성인남성은 전체응답자 및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한주민과의 결혼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을 실제 결혼상대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울 때 의논하는 상대와 관련하여 가족 및 친척 32%, 신변보호담당관 27%, 없다 16%, 탈북동료 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및 친척, 거주지보호담당관, 없다, 탈북동료 순으로 85%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적인 인식들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어려울 때 의논상대에 대해 신변보호담당관 31.2%, 가족 및 친척 25.4%, 없다 18.8%, 탈북동료 10.8%, 거주지보호담당관 2.3%, 하나원 담당관 1.2%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

며, 취업담당보호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가족 및 친척보다는 신변보호담당관에 의지하는 비율이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비율자체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없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적응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제대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남성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남성의 학력과 어려울 때 의논하는 상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척이 1순위, 신변보호담당관이 2순위, 3순위 없다는 순으로 순서상으로 차이는 없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은 가족 및 친척과 의논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신변보호담당자와 의논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이상이 탈북동료와 의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주기간과 의논상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척과 의논하는 비율이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가족 및 친척보다 신변보호담당관과 의논하는 비율이 높는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가족 및 친척과 상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탈북동료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논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4년 이상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없다는 12%에서 20%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의논상대와의 연관성은 체류기간상 가족 및 친척이 신변보호담당관보다 의논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체류기간과 이들 양자간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체류기간이 길수록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수록 탈북동료와 의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유무와 의논상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기혼자는 1순위 가족 및 친척, 2순

위 신변보호담당관, 미혼자의 경우 1순위 신변보호담당관, 2순위 가족 및 친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 및 친척의 경우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20%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10%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약 5% 정도 탈북 동료에 대한 의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국 시 동반 형태와 의논상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가족 모두 61.2%, 가족 중 일부 49.4%로 압도적으로 가족 및 친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친구 6.6%, 단독 22.2%로 가족 및 친척에 대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친구 34.4%, 단독 33.3%로 압도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 모두 14.9%, 가족 중 일부는 20.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없다는 비율의 경우 가족 모두, 가족 중 일부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친구와 단독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거 형태와 의논상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가족 57.6%, 양부모 88.9%, 부부 34.3%, 독신 7.2%로 가족 및 친척과 의논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가족 18.2%, 독신 38.1%, 부부 22.9%로 답변하고 있다. 가족 모두 사는 경우 없다는 비율과 탈북동료와 의논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들은 남한사회 동화과정에서 여성에 비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차별대우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외감과 차별대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화상대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남성과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분야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29%, 없다 26%, 생계비 지원 13%, 임대주택 10%, 정착금, 직업훈련 각 6%, 교육보호 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전체적으로 없다는 비율보다 취업보호에 더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정부의 지원내용 중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 취업보호 30.2%, 없다 28.6%, 생계비 지원 11.9%, 임대주택 10.3%, 정착금 7.1%, 직업훈련, 교육보호 각 4.8%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도 전체남성과 마찬가지로 취업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일정기간 분할 33%, 상환 없다 29%, 일시불 22%, 일시불 반 분할 반 14%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일정기간 분할을 약간 더 선호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착금)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분할 34.3%, 상환없다 28.6%, 일시불 22.9%, 받은 일시불 받은 분할 14.3%로 나타나 전체남성과 커다란 인식의 차이는 없다.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전체 응답자의 90.5%가 하나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은 87%가 하나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교육 이수 유무에 대해 있다가 87.4%, 없다가 12.6%로 나타나 전체남성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나원 생활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34% 다소 긍정적 30% 보통 26% 다소 부정적 6% 매우 부정적 3%로 전체적으로 다소 긍정적 이상의 긍정적 응답이 64%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율과 큰 차이는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생활이 한국사회적응에 도움 여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 36% 다소 긍정적 29.6% 보통 24.7% 다소 부정적 6.5% 매우 부정적 3.2%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보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만큼 매우 긍정적이라는 적극적인 평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31% 직업·진로에 대한 구체화 및 기능실습 26%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3% 없다 1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생활 중 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31.1%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실습 28.9%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1.3% 없다 12.9% 한국사람과 친밀한 관계 기회 제공 5.8%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직업진로 등에 대해 유용한 요소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요소로는 없다 32%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 24% 한국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16% 폐쇄적 운영방식 11% 교육운영방식 10%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생활 중 불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 없다 33.6%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 26.3%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16.4% 교육운영방식 9.5% 폐쇄적 운영 9.1% 관리자들의 태도 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진로, 마음의 안정 등의 요소에

하나원 교육이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이하라는 강좌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반면 8%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방식에 대해 51%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는 11%에 그치고 있어 여성과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교육방식에 대해 매우 만족 25.4%, 다소 만족 27.8%, 보통 32.3%, 다소 불만족 12.1%, 매우 불만족 2.4%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비율이 전체응답자 및 전체남성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적극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교육 방식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학력의 경우 인민학교 학력 10명 중 다소불만족 이하는 전혀 없으며 다소 만족 70%, 매우 만족 10%로 만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학교의 경우 다소 만족 이상이 6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등중학교의 경우 매우 만족이 높은 가운데 다소 만족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보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매우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소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인 학력상 대학교 이상에서 불만족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보통과 불만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년미만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보통이 높아지면서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미만의 경우 매우 만족이 낮아지면서 보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년 미만이 되면 보통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년 미만을 제외하면 다소만족은 35%로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4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만족의 비율이 높으며 불만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5년 미만의 경우 보통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다소 불만족 등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미만의 경우 만족이 낮으며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년 미만의 경우 매우 만족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혼 유무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나원 교육방식에 대해 친구와 입국한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만족이 다른 형태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 보통이 높게 나타나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고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모두 거주하는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신과 부부 거주 중 가족 모두 경우보다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 거주 중 경우 보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우 높다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계가족 유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하나원 생활기간과 관련하여 1-2개월 44%, 3개월 37%, 6개월 10%, 1년 이상 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선호하는 인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에 비해 1-2개월 미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적절한 하나원 생활 기간에 대해 1-2개월 49%, 3개월 35.3%, 6개월 9.1%, 1년 이상 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분석할 때 성인남성 이외의 다른 연령의 남성들은 1-2개월 보다는 3개월 미만의 교육기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신으로 입국한 여성을 현재와 같이 하나원 본원과 분리된 별도 시설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33%, 다소 찬성 17%, 보통 19%, 다소 반대 13%, 매우 반대 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50%가 찬성, 19%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찬반비율을 비교할 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독신 여성에 대한 별도 시설 운영에 대해 매우 찬성 39.9%, 다소 찬성 13.9%, 보통 16%, 다소 반대 16%, 매우 반대 14.3%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전체남성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인남성 이외의 다른 연령층의 남성들이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우 반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88%가 하나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필요 여부에 대해 필요 있다 84.6%, 없다 15.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성인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하나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63%가 북한주민들만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폐쇄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 비율보다 동 항목에 대해 7% 정도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필요없는 이유에 대해 집단생활에서 오는 폐쇄성 65.7%, 운영방식의 비합리성 14.3%, 교육의 비효율성 11.4%, 시설에서 오는 불편함 8.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마찬가지로 집단생활의 폐쇄성을 가장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시설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여성에 비해 커다란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나원 내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73%가 만족스럽다는 견해

를 밝히고 있으며 전체적인 반응과 비교할 때 남성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견해가 약 5%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에서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 46.5%, 다소 만족 26.5%, 보통 26.5%, 다소 불만족 2%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와 비교하여 만족스럽다는 비율에는 차이는 없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적극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원 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58%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고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약 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 38%, 다소 만족 20.8%, 보통 34.7%, 다소 불만족 2.9%, 매우 불만족 3.7%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남성과 비슷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해 바라는 교육주체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50%, 정부주도가 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주체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으로 52.2%, 정부 주도 38.5%, 민간단체 주도 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을 포함한 남성들은 여성과 커다란 인식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원 이외 다른 적응교육 및 정착지원체계를 만든다는 가정을 할 때 순수 민간지원체계(34%)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정착촌(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없이 쉬어가는 곳을 바라는 응답자도 9%에 이르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하나원 이외의 다른 적응교육 및 정착지원체계에 대해 순수 민간지원체계 36.7%,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정착촌 35.4%, 교육 없이 일정기간 쉬는 곳 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다른 응답자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정착촌에 대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6%를 차지하고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하여 남성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매우 만족 35.1%, 다소 만족 23.8%, 보통 27%, 다소 불만족 7.4%, 매우 불만족 6.7%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전체응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0%,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6%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1%에 달해 중간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견해가 전체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매우 만족 15%, 다소 만족 20.4%, 보통 39.1%, 다소 불만족 13.1%, 매우 불만족 1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남성과 비교하여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없다.

취업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견해가 25%, 불만족스럽다는 견해가 28%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4%를 차지해 중간수준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취업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하여 매우 만족 12%, 다소 만족 16.7%, 보통 44%, 다소 불만족 15.3%, 매우 불만족 12%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응답자와 커다란 인식의 차가 없다.

전체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거주지 및 취업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민간단체 지원의 지원에 대하여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0%,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6%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52%를 차지하여 중간수준의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남성의 경우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 12.1%, 다소 만족 20.9%, 보통 52.4%, 다소 불만족 9.9%, 매우 불만족 4.8%로 나타나고 있다.

4. 노인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조사대상 772명 중 50세 이상 계층은 133명으로 전체 표본집단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성별구조는 남녀비율이 약 51% : 49%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학력은 고등중학교가 약 37%로 가장 많으며 대학교 이상이 25%, 전문학교가 약 24%순이며, 무학 및 인민학교는 약 13%정도이나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계층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한국의 거주기간은 평균 2년 4개월 정도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생활기간은 평균 2년 8개월 정도로 분포되었는데 특히 60대 이상은 50대 계층에 비해 외국거주기간이 약 14개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은 가족의 기획입국에 따라 온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이상 계층의 결혼상태 분포를 보면 결혼 유무가 6 : 4 정도로 기혼이 많았으나 50대의 경우는 5 : 5 정도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약 7 : 3 정도로 결혼한 경우가 더 높게 분포되었다.

<표 VI-5> 50대이상 계층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분포(%)
성별	남	67	51.1
	여	64	49.9
	계	131	100.0
학력	무학	3	2.3
	인민학교	14	10.7
	고등중학교	48	36.9
	전문학교	32	24.6
	대학교이상	33	25.5
	계	130	100.0
결혼	유	75	60.0
	무	50	40.0
	계	125	100.0
가족형태	가족	75	57.2
	양부모	0	0
	독신	33	25.2
	부부	23	17.6
	기타	0	0
	계	131	100.0
북한가족 유:무	있다	87	70.7
	없다	36	29.3
	계	123	100.0

남한에 입국할 때 동반한 사람의 분포를 보면 가족전부 혹은 가족 중 일부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는 1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분포를 보면 가족 혹은 부부가 각각 57%, 18%로 약 75% 이상이 가족 등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약 25% 정도는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의 경우를 볼 때 60대 이상 인구 중 약 30% 정도가 단독으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생활 및 적응관련 대응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서울 및 경기지역이 약 64%로 대부분이어서 대도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은 약 71%가 분포되어 있다.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대도시에 지내는 것은 편리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60대이상의 인구증가는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북한 및 제3국 등에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유무 관련 분포를 보면 가족이 있는 경우가 약 67%로 나타났고 특히 60대 이상은 약 76%가 가족이 있는 것으로 분포되어 또 다른 신이산가족의 아픔과 과제를 야기하게 된다.

나. 주관적 적응도

<표 VI-6> 북한이탈노인의 주관적 적응관련 만족도

	현재한국생활	현재직업	건강상태
매우만족	35(26.5)	6(18.7)	7(5.3)
다소만족	46(34.5)	7(21.8)	12(9.0)
보통	45(33.8)	13(40.7)	26(19.7)
다소불만족	6(4.5)	3(9.4)	60(45.5)
매우불만족	1(0.7)	3(9.4)	27(20.5)
계	133(100.0)	32(100.0)	132(100.0)

(1) 현재 만족도

50대이상 계층 중 북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평가한 분포를 보면 약 39% 정도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약 33%는 부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p = 0.02$)

현재 한국 생활의 만족 정도를 보면 다소 만족이 35%, 매우 만족이 26%로

약 61%정도가 만족하고 있었고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은 약 5%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생활의 만족 정도는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p = 0.000$)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한국 생활의 만족이 높아져 50대 이상 계층이 다른 연령에 비해 한국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과 관련된 분포를 보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 약 39%, '신변불안 해소'가 약 36%정도로 나타났고 '물질적 풍요'는 약 18%인 것으로 분포되었다.

한편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의 분포를 보면 '물질적 풍요'가 약 34%로 가장 높고, 가족들의 신변확인이 약 33%정도 분포되고 있어 한국에 들어올 때와 한국에서 현재 생활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문제가 되었던 신변불안, 은둔생활 등은 해결되었으나 생활에서 필요한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높고 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의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분포보다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보면 50대 이상 계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이 '다소 나쁘다' 및 '매우 나쁘다'가 약 66%로 분포되어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쁠 때 보살펴 줄 사람과 관련된 분포를 보면 '없다'의 경우는 약 21%이며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가족과 함께 입국하거나,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간호의 문제는 다른 연령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명 중 1명은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보살펴 줄 사람으로는 '가족 및 친척'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계층의 일반적 사항을 볼 때 실제적인 자립의 조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즉, 연령은 높고 학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높았으나 60대 이상 중 1/3정도는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계층의 단독세대와는 의미가 다르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및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온 비율도 높아 신이산가족의 과제와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5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관적 적응은 현재 한국 생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약 61%이며, 불만족은 약 5% 정도로 만족하는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사항 충족도의 경우는 한국에 들어 올 때는 물질적 풍요, 신변 불안해소, 자유로운 생활 등을 기대했으며, 반면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경제적 여유, 가족의 신변확인, 자녀교육 등을 들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입국 후 생활 과정에서의 기대사항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높긴했으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는 만족하는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건강상태는 특히 다른계층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중 1명은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표 VI-7> 북한이탈노인의 한국사회 적응기간 분포

	한국사회 적응기간	취업위한 직업훈련	불편없는 언어사용	불편없는 대인관계	소외감,좌절감, 외로움 극복
6개월정 도	12(10.2)	19(18.9)	6(5.4)	5(4.6)	8(7.3)
1년정도	18(15.3)	39(38.6)	17(15.3)	21(19.4)	13(12.2)
2년정도	20(17.0)	22(21.7)	26(23.4)	22(20.3)	20(18.5)
3년정도	20(17.0)	8(7.9)	14(12.6)	13(12.2)	20(18.5)
3년이상	47(40.5)	13(12.9)	48(43.3)	47(43.5)	47(43.5)
계	117(100.0)	101(100.0)	111(100.0)	108(100.0)	108(100.0)

한국사회 적응기간과 관련한 분포를 보면 3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경우는 1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불편없는 언어사용도 2년 정도 및 3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불편없는 대인관계 및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극복 등은 대체로 다른 연령에 비해 50대 이상의 경우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객관적 적응도

(1) 경제적 실태

<표 VI-8> 북한이탈노인의 월평균소득분포

	빈도	분포(%)
50만 원 이하	64	53.7
51~100만 원	44	36.9
101~150만 원	5	4.3
151~200만 원	5	4.3
201만 원 이상	1	0.8
계	119	100.0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 원 이하가 약 54%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소득 수준인 '151~200만 원' 이상은 약 5%정도에 불과했다. 월평균 수입의 정도를 보면 약 74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계층의 평균 약 9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 50대는 약 89만 원, 60대는 약 60만 원 정도의 수입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은 '보통이다'와 '약간 부족하다'는 분포가 가장 많아 각각 약 33%정도로 나타났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약 13%에 불과하다.

<표 VI-9> 북한이탈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현황

	빈도	분포
1년 미만	48	38.4
1년 이상 3년 미만	52	41.6
3년 이상 5년 미만	19	15.2
받은 적이 없다	6	4.8
계	125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기간 관련 분포를 보면 1년 이상 - 3년 미만이 약 42%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약 38%정도 분포되었다.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약 5%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급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서 자활근로 참여경향을 보면 ‘참여하는 분포’가 약 22%정도이며 ‘자활근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약 31%정도 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근로 대상이지만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약 41%로 높게 분포되었다. 다른 계층에 비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자활근로를 하지 않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현재의 직종 분포를 보면 ‘무직인 경우’가 약 66%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원,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의 형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높은 분포를 보여 직업의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 그 이유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가 약 68%로 분포되었고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약 12%순으로 나타났다. 한에서 주로 한 일은 노동자가 약 48%로 가장 높고 군인이 약 5%정도로 분포되었다.

(2) 사회적 동화

동네이웃과의 교류 정도에 관한 분포를 보면 1주일에 1번 정도가 약 50%정도로 가장 높았고, 없다는 분포는 약 27%정도로 나타나 50대이상 연령계층 중 1/3정도는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령계층과는 의미 있는 차이($p = 0.017$)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 정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웃, 직장동료 등과의 관계에서는 ‘보통’이 4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잘 어울리는 편이다’ 이상이 약 39%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해서 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가 약 28%정도이며, 종교가 있는 경

우에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는 목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약 85%로 대다수이며, ‘주위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면서 목사나 스님, 신부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면 ‘텔레비전 시청’이 약 68%정도로 가장 많았고, 독서가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계층이 컴퓨터, 친구만남 등 다양한 것에 비해 노인계층은 보내야 할 시간은 많은데 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월평균 수입은 약 74만 원 정도이며(전체계층 월평균수입은 약 90만 원) 이는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어 50대는 약 89만 원, 60대는 약 60만 원정도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제적 실태를 보면 소득의 경우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인 50만 원 이하가 약 54%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수준인 151만 원 이상은 약 5% 정도에 불과 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간의 다른 연령 계층의 소득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생계보장수급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95%로 대다수 였으며, 이중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약 42%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은 약 38%정도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급 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자활근로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의 34%만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는 87%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회사원, 자영업 순의 직종 형태를 보였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있다.

한국 사회 동화를 보면 이웃 및 직장동료와는 대체로 잘 어울린다는 분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네 이웃과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약 27%정도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28%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의 92%는 기독교를 갖고 있었다. 종교를 갖는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가 85%로 가장 많고, 종교인의 도움, 주위 사람과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부적응 요인 평가

<표 VI-10> 북한이탈노인의 제3국 체류, 정착금을 가족에 사용, 한국주민의 무시 관련분포

	제3국체류기간	정착금을 가족에 사용	한국주민이 무시
매우긍정적(찬성)	15(11.9)	86(65.1)	16(12.5)
다소긍정적(찬성)	44(34.9)	31(23.4)	23(17.9)
보통	49(38.8)	5(3.8)	50(39.2)
다소부정적(반대)	11(8.8)	7(5.4)	23(17.9)
매우부정적(반대)	7(5.6)	3(2.3)	16(12.5)
계	126(100.0)	132(100.0)	128(100.0)

부적응 상태로 있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분포를 보면 다른 연령계층과는 다르게 ‘죄책감 때문’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 및 제 3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가 70%를 육박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남한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60대 이후 노인 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스스로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한국 국민의 냉대와 편견이 각각 30%, 23%정도로 나타나 경제 지원 등 보다도 사회적 관계 및 본인의 태도가 사회 적응을 결정짓는 것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남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의 의논 상대로는 가족 및 친척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신변보호담당관, 탈북 동료 등의 순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적응을 위한 정부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과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를 꼽고 있다.

사회적응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는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 약 47%, ‘나 자신의 노력’이 약 20%, ‘종교단체’가 약 17%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및 민간단체의 도움은 0%인 것으로 분포되어 50대이상 계층의 민간단체 및 학교와 관련한 연계체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포를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1> 북한이탈노인의 북한 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서의 교육경험	북한에서의 직장생활경험
매우 많이 도움	10(7.8)	10(7.6)
도움이 되는 편	28(21.8)	26(20.0)
보통	28(21.8)	31(23.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35(27.3)	33(25.3)
전혀 도움되지 않음	27(21.3)	30(23.3)
계	128(100.0)	130(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

에가 약 44%로 가장 높아 북한에서 온 것 자체가 선입견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다음 '사고방식이 달라서'가 약 28%, '말투가 달라서'가 약 12%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큰 고민으로는 '가족 문제가 약 46%로 가장 높고 취업문제가 약 24%정도로 나타났다.

정착금 및 수입을 북한 및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데려오는데 사용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분포를 보면 '최우선적으로 사용'이 약 65%이며 '조금 생각있다'가 약 23%로 나타나 약 88%이상이 떨어져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와 입국을 위한 노력을 생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3국의 체류기간이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보통이 가장 많았고 긍정적이었다는 분포는 약 47%로 부정적이라는 분포 약 14%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남한으로 오기 전에 겪는 혼돈이 남한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국의 체류기간 중 영향이 가장 컸던 사람은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선교사, 입국브로커 순으로, 주로 민간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외공관원 등의 분포는 낮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계층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정부의 교육과 지원, 민간단체, 직장 동료와 친구 및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편견으로 '한국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죄책감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가 70%이상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응상에 심리적 어려움이 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보다도 사회적 관계 및 본인의 태도가 사회적응을 결정짓는 것으로 분포되

었다. 실제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 것은 정부의 교육과 지원을 들고 있으며 민간 단체의 도움이 실제 적응에는 도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원인은 '북한에서 온 것 자체가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고, 사고방식, 말투 등이 다른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신변불안은 남한 사회의 부적응의 요인으로 볼 수 있어서 정착금 및 수입을 북한 및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사용할 의향이 있는 지에 긍정적인 응답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어 심리적 불안과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 평가

생활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약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의 문제가 약 20%로 나타났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분포도 약 19%정도였으나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직업훈련을 받았는가와 관련해서는 약 75%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연령 계층보다 높은 분포이다. ($p=0.000$)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분포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다른 연령계층은 '장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임금 및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대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출신지역과 상관없다'가 약 32%로 가장 높고 남한주민이 약 24%의 순으로 나타나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남한 주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는 취업, 직업훈련, 결혼 등의 변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 모두 나이가 든 계층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

재 무직이 약 66%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으며, 취업의 형태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많았다. 나이가 많고,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직업이 없다고 80%정도가 생각하고 있었고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도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또한 실제 직업 훈련의 도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상대의 선택으로는 출신지역과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남한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위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 등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2> 북한이탈노인의 한국사람태도 및 적응의 영향 관련분포

	한국사람의 태도	한국사람의 태도가 적응에 영향
매우긍정적	2(1.5)	7(5.5)
다소긍정적	46(35.4)	25(19.6)
보통(무관심)	74(36.9)	57(44.9)
다소부정적	7(5.4)	32(26.0)
매우부정적	1(0.8)	5(4.0)
계	130(100.0)	127(100.0)

한국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하다가 약 57%로 가장 높았고 우호적이 약 35%이며 적대적은 약 5%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사람 태도가 본인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분포를 보면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50대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면, 만족하는 분포가 약 57%로 나타났고 불만족 이하는 약 16%정도 분포되었다.

<표 VI-13> 북한이탈노인의 정부지원의 불만 관련 분포

	빈도	분포
정착금	7	61
임대주택	12	104
생계비지원	22	189
직업훈련	8	69
교육보호	3	26
취업보호	27	233
기타	3	25
없다	34	293
계	116	100.0

정부의 지원 내용 중의 불만스러운 부분은 취업보호, 생계비 지원, 임대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은 비생산연령계층인 고령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표 VI-14> 북한이탈노인의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만족분포

	한국정부의 지원수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
매우만족	32(24.8)	21(16.7)
다소만족	41(31.8)	24(19.0)
보통	36(27.9)	63(50.0)
다소불만족	17(13.2)	11(8.8)
매우불만족	3(2.3)	7(5.5)
계	129(100.0)	126(100.0)

(2) 하나원 교육에 대한 평가

하나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I-15> 북한이탈노인의 하나원 생활 관련 분포

	하나원 생활의 사회적응 도움	하나원 교육방식	한국사회이해 관련강의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종교활동
매우 만족	34(31.4)	18(16.7)	21(19.8)	50(45.6)	35(32.6)
다소 만족	37(34.2)	43(39.9)	49(46.4)	35(31.8)	31(28.7)
보통	32(29.6)	36(33.3)	28(26.4)	20(18.1)	34(31.4)
다소 불만족	4(3.9)	11(10.1)	6(5.6)	3(2.7)	5(4.6)
매우 불만족	1(0.9)	0	2(1.8)	2(1.8)	3(2.7)
계	108(100.0)	108(100.0)	106(100.0)	110(100.0)	108(100.0)

하나원 생활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해서는 약 65%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하나원의 교육 방식은 다소 만족이 약 40%, 보통이 약 33%정도이다. 하나원의 한국사회 이해에 관한 강의는 약 65%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내의 민간단체 자원봉사는 약 87%정도가 만족이상의 응답을 하고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에 긍정적이었다. 종교생활의 경우는 6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하나원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교육방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이 낮았고 민간단체 및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표 VI-16> 북한이탈노인의 담당관 도움 만족 분포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	취업보호담당관의 도움
매우 만족	42(31.8)	16(12.5)	9(7.5)
다소 만족	36(27.2)	19(14.9)	11(9.2)
보통	40(30.3)	55(43.5)	56(47.2)
다소 불만족	8(6.2)	22(17.3)	28(23.5)
매우 불만족	6(4.5)	15(11.8)	15(12.6)
계	132(100.0)	127(100.0)	119(100.0)

보호담당관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위의 표와 같다. 보호담당관 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는 분포가 높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은 신변보호담당관보다는 낮게 나왔으며, 취업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만족 분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도움은 신변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평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보면 보통이 50%로 가장 많았으나 다소 만족 이상이 약 36%이며 다소 불만족 이하는 약 14%정도로 만족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의 주체로는 주로 정부단독 혹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동추진을 원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교육은 거의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국정부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는 약 57%이며 불만족은 약 16%정도이다. 지원 내용 중 불만스러운 부분은 취업보호, 생계비지원, 임대주택 순으로 나왔고, 특히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노인의 경우에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한국 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는 다소 만족한다가 32%로 가장 많고 보통이 약 28%로 나타났다. 다소 불만족한 의견도 약 13%정도로 분포되었다. 특히 60대이상 계층만 볼 때는 다소 불만족한 의견이 약 22%로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 계층 중 하나원 교육을 받은 분포는 약 83%정도로 나타났으며, 하나원 생활에 대해서는 약 66%가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부정적인 견해는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들고 있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 강의식 수업등 교육 운영 방식이 지적되었다. 하나원 생활 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약 48%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민간지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이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필

요없다고 생각하거나 보통이라는 의견도 3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50대 이상 전체적으로는 다소 만족 이상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형태의 정부교육기관의 필요성은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만족 이상이 약 59%정도이며, 불만족 이하는 약 11%정도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보호담당관(지역 시, 군, 구청)의 도움의 만족 정도를 보면 만족 이상은 약 28%, 불만족 미만은 약 29%로 분포되어 다른 연령층보다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현저히 낮은 분포이다.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 이상이 약 7%, 불만족 미만이 약 36%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신변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만족의 분포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도움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만족 이상은 약 28%, 불만족 이하도 약 14%정도 분포하고 있어 개인별로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북한이탈노인 적응평가 및 지원방안

한국의 노인인구가 2003년도에 이미 8%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분류되고 노인의 문제가 생활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특히 노인계층의 증가추세가 갖는 의미는 복잡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특성과 한국사회 내에서 노인이 갖는 문제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과 대응정책에 관한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중 노인세대(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연령계층)중심의 적응상황의 파악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세부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한다. 이들

의 적응상황을 설문분석에 기초하여 분석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을 보면 50대 이상의 계층은 연령은 높는데 반해 학력은 낮아 실제적인 자립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높았으나 1/3정도는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계층의 단독세대와는 의미가 달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대응한 지원도 다각도로 필요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50세 이상의 건강상태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명 중 1명꼴로는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제3국 및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나타나 신이산가족의 과제와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둘째, 50대 이상 계층의 주관적인 적응도와 관련해서보면 전체적인 한국생활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60%이상으로 분포되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만족보다는 보통이하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사회의 적응기간과 관련해보면 전반적인 적응기간, 직업훈련기간, 언어사용, 대인관계, 소외, 좌절, 외로움 등의 극복 등에 있어서 대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 이상의 경우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0대 이상 연령계층의 객관적 적응도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동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월평균수입은 약 74만 원정도로 전체 평균소득 약 90만 원보다 적었으며 이는 50대보다 60대(약 60만 원정도)가 더 적어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95%로 대다수였으며, 이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자활근로의 경우도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경우를 보면 34%정도만이 취업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은 13%정도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직종의 형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아 경제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동화와 관련된 적응도를 볼 때 이웃 및 직장동료와 어울리는 분포는 비교적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이웃과의 교류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동화의 방법으로 종교적 활동을 72%정도가 하고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갖고 있었다. 즉, 50대 이상 계층의 객관적 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적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기본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계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교류 등이 원활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응과정에서의 부적응 요인으로는 사회적 편견, 가족의 신변불안,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두고 온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특히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은 남한사회 부적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적 관계 및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장기적 적응을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체는 정부의 지원과 교육을 들고 있고, 민간의 역할은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적절한 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취업, 직업훈련, 결혼 등의 변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 모두 나이가 든 계층에는 불리한 것으로 분포되어졌다. 즉 직업이 없는 경우가 거의 70%를 육박하며, 80%이상이 스스로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경우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통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적합한 자

립연계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의 측면을 재정지원, 하나원 생활보호담당관제, 민간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요인으로는 취업보호, 생계비지원, 임대주택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특히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 연령별 특화된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하나원 교육의 경우는 약 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하나원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장 불만스러운 요소는 기술교육미비, 강의식 교육방법 등을 들고 있다. 민간지원봉사 및 종교활동은 대체로 긍정적 이었고 하나원형태의 교육기관은 95%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는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보호 및 취업보호담당관의 경우 불만족 분포가 크게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연령별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VII. 적응지원인력의 평가

1. 보호담당관의 평가

가. 보호담당관의 인구학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보호담당관은 총 212명이고, 응답 내용 중 몇 개 항목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각 항목별 총 응답자 수가 212명이지만 않은 경우가 있다.

조사에 응답한 보호담당관 중 신변보호담당관은 56명(26.4%), 거주지보호담당관은 115명(54.2%), 취업보호담당관은 33명(15.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성이 165명(77.8%)이며, 여성은 40명(18.9%)이다.

보호담당관의 연령 대는 20대가 89명(42%), 30대가 79명(37.3%), 40대가 94명(44.3%), 50대가 20명(9.4%) 60대가 1명(0.5%)으로 보호담당관의 80%정도가 30대와 40대로 절대 다수(81%)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은 2003년 5월-7월에 행해졌다.

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가 71명(33.5%), '조금 도움이 된다'가 68명(32.1%) '보통이다'가 29명(13.7%)이고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다.

모든 보호담당관의 절대 다수가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취업보호담당관(25.9%)과 신변보호담당관(19.6%)은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지급된 현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안정된 직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현금급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의지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정착 지원제도에 대한 민족도에서 민족과 불민족이 양분되어 있다. '대체로 불만'이 82명(38.7%)이고, '대체로 만족'이 78명(36.8%)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 불만도 없다'는 35명(16.5%)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불만족(44.7%)은 신변 및 취업보호담당관(각각 34.5%와 2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으로 위임사항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과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부처간 협조에 대해서는 '중간수준'이라는 대답이 86명(40%), '조금 잘못되고 있다'가 74명(34.9%), '조금 잘되고 있음'이 30명(14.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 담당업무에 4년-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담당관들은 정부 관련 부처간 협조에 부정적인 지적이 많아 부처간 협조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도 정부 부처간 협조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나 정보 교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현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갈라져 있는바, 특히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규정 상 업무가 가장 많으나 실제 하는 일은 가장 적다. 또한 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착지원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원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정착업무의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지원 업무가 보호담당관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평가

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거주지보호업무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112명(52.8%), ‘매우 도움이 된다’가 19명(9.0%)으로 절대 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보통이다’가 59명(27.8%)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다.

또한 취업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3명(53.3%)이 ‘도움이 된다’, 17명(8.1%)이 ‘많이 도움이 된다’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 ‘보통이다’가 71명(33.5%)이고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다.

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과반수(103명, 48.6%)가 보호담당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동료 이탈주민’의 중요성은 50명(24.1%), 그리고 ‘남한 동료’가 22명(10.4%)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지보호 및 취업보호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지원에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와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101명, 47.6%). 그 다음이 심리적 적응 방법 교육(65명, 30.7%), 정착 지원상의 실무 절차(17명, 8.0%)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보호담당관은 다른 연령 대와 달리 심리적 적응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은 20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다루는데 경험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호담당관의 담당 업무에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41.0%, ‘매우 만족’이 26.4%, ‘만족도 불만도 없음’이 28.3%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만족 한다’고 지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 보호담당업무에 만족하는 빈도수는 과반수가 넘고 있으나, 이 중 신변보호담당관의 만족도는 다른 보호담당관에 비해 낮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고유 업무인 신변보호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생활 일체(30여 가지의 업무로 파악)를 관여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차적 상담역으로 업무의 과중에서 오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보호담당관의 만족도(33.3%)는 남성 보호담당관(42.7%)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여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업무 만족도에서도 20대 보호담당관의 불만(44.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인관계의 미숙과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의 역할과 관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별로 보면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136명, 64.2%),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및 ‘취업 알선자’(각각 20명, 9.4%), ‘문제해결사(일종의 패키지 서비스)’(17명, 8.0%)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신변보호자’로서의 역할은 가장 낮게(12명, 5.7%) 지적되고 있다.

보호담당관 모두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 등 교육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1999년 민성길, 전우택, 윤덕룡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연구와 흡사하게 보호담당관은 “문제해결사” 보다 “교육자”로 역할 규정이 더 성공적이고, 또한 애로 사항의 직접 해결보다 전문기관에 연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바 있다.¹²⁵

그러나 신변보호담당관(15.4%)은 취업보호담당관(9.1%)에 비해서 취업알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적응에 취업이 우선과제라고

125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출판사, 2002), p.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취업보호담당관은 연계자의 역할을 취업알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업무 자체가 연계 역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여성 보호담당관은 조연자 및 연계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고, 남성 보호담당관은 취업알선과 신변보호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보호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주요 기능이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건설한 교육자 및 조연자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담당업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대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의지 부족’을 지적한 담당관이 가장 많은 103명(48.6%)이고, 그 다음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저항 및 돌출행위’가 34명(16.0%), 그리고 ‘담당관의 북한 사회 및 주민들의 이해 부족’이라는 대답이 33명(15.6%)으로 나타났다. 보호담당관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개인적인 신뢰도 문제로 현재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담당관의 신뢰도에서 ‘대체로 신뢰’가 91명(42.9%), ‘신뢰도 불신도 아님’이 91명(42.9%), ‘대체로 불신’이 21명(9.9%)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체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담당관을 대체로 신뢰하는 편으로, ‘대체로 신뢰’는 91명(42.9%), ‘신뢰도 불신도 아님’이 91명(42.9%)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불신’은 9.9%로 나타나고 있다. 교차분석에 의하면 이 중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보호담당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매우 또는 대체로 신뢰’가 61.5%).¹²⁶ 한편, 여성보호담당관에 대한 신뢰(7.3%)는 남성 보호담당관

126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17.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대 이상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33.3%). 담당경험이 4년 이상 6년 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66%)가 3년 이하(47%)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은 다분히 여성과 젊은 층을 낮게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보호담당관의 경험 및 자신감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호담당관 업무에 적합한 사회적 배경 요인으로는 연령적으로 30대 이상으로 보호담당 업무 경험이 있고, 대인관계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독실한 종교인 등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신뢰 관계 설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보호담당관의 전반적인 평가는 '사회적응을 못한다'가 140명(66%), 그 다음이 '보통이다'가 57명(26.9%)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잘 한다'는 경우는 한 건의 경우도 없었고, '적응 한다'가 11명(5.2%)으로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응 평가에 있어서 여성 보호담당관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바, '적응 한다'에서 여성 담당관(12.5%)이 남성 담당관(3.6%)보

533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pp. 170-171. 이 연구(2001년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려울 때 상담 받고 싶은 사람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한 비율이 45.6%(241명)로 가장 많아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호담당관의 연령이 40-50대의 70% 이상이 '적응을 못한다'를 지적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보호담당관은 33.3%가 '적응 한다'를 지적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다른 담당관들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잦은 접촉으로 그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변보호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능력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놀고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17%), 그 다음이 '가족동반 여부'가 31명(14.6%), '중국 체류경험'이 11명(5.2%)로 나타났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 내 학력 및 경력'(37.3%)과 '가족동반 여부'(29.4%)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취업보호담당관은 '중국 내 체류경험'이 사회적응과정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과 특히 여성 보호담당관은 '중국 내 체류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50대 보호담당관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보호담당관은 '중국 내 체류 경험'이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많은 보호담당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체류 시 가진 직장이나 생활 양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중국 체류 시 습득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개인관계의 문제점 또는 중국 등에서 습득한 좋지 않은 사고나 행동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²⁷

127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전우택·윤덕룡·민성길, 『탈북자와 통일준비』, 제2장 참조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111명, 53.3%)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능력부족’(40명, 18.9%)과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및 편견’(33명, 17%)을 들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데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보호 및 취업 보호담당관(20%, 21%)은 신변보호담당관(10.9%)보다 사회적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빈도수가 많았다. 이러한 지적은 지역별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서울, 경기지역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 다음으로 능력부족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특이 사항은 보호담당관의 연령별 차이로는 20대-30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 태도 다음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반면에 40대-50대는 능력 부족을 들고 있다. 보호담당관 경험 기간이 5년 이상 6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 태도보다 사회적응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 태도나 의지 부족은 곧 정부와 남한 사회에 대한 의존과 막연한 기대로 간주되기 쉬우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보호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러한 태도는 과도기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와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남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전반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다수인 55.7%이고, ‘직업훈련’은 27.4%, ‘심리적 안정’은 9.9%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부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 북한식의 ‘보호 및 의존적’

인 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담당관들은 예외 없이 여성 북한이탈주민(125명, 59%)이 남성 북한이탈주민(79명, 37.3%)보다 사회적응이 용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연구(민성길·전우택·윤덕용의 「탈북자와 통일준비」)와 2명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심층 면접(2003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에서 얻은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¹²⁸, 기존조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책임감이 있고 활동적이라 적응이 빠르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는 첫째, 민성길(외)의 1999년 조사 등 기존의 조사에서 대상자의 절대다수(80%)가 남성이어서 결과가 남성에 편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대되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틈새시장이 많아(정규직이 아니라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직장을 얻는 기회가 남성들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남성에 복종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한의 활동적인 문화에 접해서 적극성을 띠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여성들이 장사에 나서서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이에 큰 몫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응을 잘하는 연령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대(87명, 41.0%)가 가장 잘하고, 그 다음이 20대(61명, 28.8%), 10대(25명, 11.8%), 40대(23명, 10.8%) 마지막으로 50대(10명, 4.7%)로 나타나고 있다. 적응정도는 30대와 20대가 총 148명(69.8%)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8 민성길·전우택·윤덕용, 「탈북자와 통일준비」(제2장)에서는 보호경찰관과의 인간관계 설정에 남녀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경찰관인 정0준과 김0수와 심층면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응이 용이하다고 증언하였다.

보호담당관 모두가 20대와 30대가 비교적 사회적응에 용이하고, 10대와 40대는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30대 북한이탈주민은 가정
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정착의 필요성이 급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20대는 특유의 도
전과 기회를 활용하려는 진취적인 사고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10대는 심리적인 반항기, 40대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오랜 경험에 의한 경직
성 때문에 적응에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여성 보호담당관(55.2%)은 남성 보호담당관(38.4%)보다 10대와 20대가
용이하다고 지적하는 수가 많은 반면, 남성 보호담당관(17.7%)은 여성 보호담당
관(7.9%)보다 40대와 50대가 적응에 용이하다고 지적하는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 차이로는 50대 보호담당관은 4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10
대보다 적응이 용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호담당관의 성별, 세
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¹²⁹ 한편, 신변보호담당관(2명)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가 적응이 빠르고, 30대와 40대가 적응에 적극적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가
족부양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
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거나, 20대의 젊은 층과 가족의 책임을 지는 30대, 여
성들이 사회적응에 용이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의 요인으로는 북
한이탈주민의 '의지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사
회주의체제의 '보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체제가 다른 남한 사

129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p. 40-41. 1999년 10월 조
사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들은 10대-20대가 적응이 빠르고 30대 이상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변
보호담당관들의 이념적인 편향을 반영하거나, 또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이념
이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회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교육에서 남한 사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경제문제(76명, 35.8%)였고, 그 다음이 가족문제(53명, 25.1%)와 교육문제(39명, 18.4%)였다. 경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³⁰

그러나 50대 보호담당관은 경제문제보다 가족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가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문제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충청, 전라도, 제주지역 보호담당관은 중요성에서 역순으로 교육, 가족, 경제문제를 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방의 교육 환경에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취업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는 사회적응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정부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 사례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사회적 통합은 취업과 함께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에서 ‘별로 없다’가 95명(44.8%), ‘보통이다’가 67명(31.6%), 그리고 능력이 ‘조금 있

130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p. 173. 전우택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p. 65.

다가 27명(12.7%)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담당관 모두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하나, 신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¹³¹ 한편, 여성, 20대, 2년 이하 경험의 보호담당관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40대 이상의 보호담당관은 ‘별로 없다’가 55% 이상이나, 20대는 ‘조금 있다’와 ‘많이 있다’ 등 긍정적 평가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20대와 경험이 적은 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을 다분히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경우에 사장 및 주변 동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경우가 67명(31.6%), 긍정적인 경우는 27명(12.7%), 보통인 경우가 101명(47.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평가이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많다.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이유 중에서 ‘주위의 권유’(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가 91명(42.7%)으로 가장 많고, ‘취업보호제(고용지원금)때문’이 57명(26.9%), 그리고 ‘인력난 때문’으로가 38명(17.9%)이었다.

신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위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반면, 취업보호담당관의 절대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71%)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담당관의 개인적인 차이 또는 직업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보호담당관도 취업보호담당관처럼 고용유지지원금(51.4%)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능력 때문이 아니고 권유나 취업보호제 때문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불안정하다

131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 59. 1999년 조사에서 윤덕용은 신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에 대해 가장 부정적 평가(85.2%)를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서울, 경상도 지역의 순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력난을 지적하는 경향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직업능력 부족’이 86명(40.6%),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55명(25.9%), ‘사회복지적인 수혜로 어려움이 없어서’가 31명(14.6%)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는 ‘조금있다’가 82명(38.7%)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고, ‘별로없다’가 52명(24.5%), ‘보통이다’가 47명(22.2%)으로 나타났다. ‘전혀없다’가 11명(5.2%), ‘많이있다’가 13명(6.1%)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차별이 있다는 수는 95명(44.8%)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별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생활의 문제점은 우선 본인들의 직업능력 부족과 이와 관련된 직장과 주변동료들의 차별이 직장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직업 능력과 관련,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102명(48.1%), ‘많이 도움이 된다’가 28명(13.1%)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130명(61.2%)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다’가 73명(34.4%)이다. 한편 ‘도움이 안된다 또는’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다.

보호담당관의 과반수 이상이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취업보호담당관은 가장 적은 수가 이에 동의하였고(51.5%), 이 중 45.5%는 ‘보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다른 보호담당관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으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과 관련,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에서 종사하기 쉬운 업종과 직종을 선택해보라는 설문에 대부분이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 제조업(비전문), 3D업종, 운수업, 요식업 등 대다수가 단순 업

무에 종사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전산업 등은 소수에 그쳤다. 이것은 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문 기술을 요구하거나 경쟁이 심한 직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도 단순노무방향으로 취업지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희망자에게는 전문적인 직업기술교육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에 문제가 있고, 직장을 얻은 이후에도 능력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차별 또는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도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적하듯이 직장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것은 취업의 불안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기업들에 대한 고용관련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의 지매결연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수는 155명(73.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정적인 수는 34명(16.0%)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²

사회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남한 주민들과의 어울리는 정도와 관련, ‘조금 잘못 어울림(121명)’과 ‘매우 잘못 어울림(50명)’이 총 153명(72.2%)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잘 어울린다’는 지적이 한 건도 없다. 특히 신변 및 취업보호담당자와 50대 이상이 ‘조금 또는 매우 잘 못 어울린다’고 지적하는

132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3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pp. 167-168. 2001년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율이 매우 높다(75% 이상).

이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 구축이 가장 급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기회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신변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85명(40.1%)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52명(24.5%)이 민간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39명(18.4%)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보호담당관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지율(29.1%)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22명, 40.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담당 경험이 4-5년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본인들도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은데 가족까지 데려 오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주변사람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것을 교정하여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남한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화 과정을 교육과정이나 보호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남한사회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결합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사. 보호담당관의 제안

(1) 보호담당관이 지적한 문제점

(가) 제도적 문제점

보호담당관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보호담당관(신변, 거주지, 취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간담회 등 정례적인 모임 또는 정보 교환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도 형식적이고 관계부처의 관심도 부족하여 지원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자격증에 대한 인성문제와 주위의 편견 등으로 사회적응에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및 의식의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와 성취동기가 약하고, 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기초생활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을 얻으려는 동기 부족의 요인인 기초생활보호제에 따른 현금급여와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가 문제로 남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보호담당관의 제안

(가) 제도적 측면

1)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권한 위임과 함께 예산도 시급히 위임하는 제도적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과로 업무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정착지원과 국민기초생활법상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응 정도에 따라 지원제도에 차등을 두어서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활동연령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기초생활보장을 5년에서 3년으로), 남한의 영세민에 준하는 지원 또는 지원 중단 등을 통해서 정착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극한 처방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착금은 과도하고 이를 장기저리 대부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관민기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적응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관(신변, 거주, 취업업무를 통합)을 설립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변보호와 관련, 일정기간이 지나면(일반보호 또는 5년 경과 후)보호에서 제외시키고 일반국민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2) 하나원에 대한 요구 사항

하나원의 교육기간이 짧고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퇴소 후에도 6개월-1년 정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내용에서도 남한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간 중 남한의 민박가정에 투숙시키는 과정을 두어 남한사람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주변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변화 유도

사회적응에 대한 능력 개발과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배양 및 훈련도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시험적으로 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알선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배정 시에 취업이 용이한 공장 등이 많은 곳으로 우선 배정하고 배정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실무자의 평가

가. 조사개요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와 사회적응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등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¹³³. 따라서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설문 조사 대상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실제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근무자이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본원과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분원 근무자 모두가 대상이다. 조사 참여자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8명, 하나원 분원 10명, 그리고 하나원 본원 33명으로써 전체 51명이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업무 실무자 전수에 해당된다.

설문참여자의 성비율은 남성 82%, 여성 18%로써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들의 현재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은 1-12개월 44%, 13-24개월 22%, 25-36개월 10%, 37-48개월 18%, 그리고 그 이상이 6%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2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다. 연령 분포는 20대 6%, 30대 54%, 40대 34%, 50대 6%로써 30-40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시점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통일부 정착지원과, 하나원, 대성공사 업무 담당자 각 1인을 2003년 8월 27-28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그리고 정책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지

133 기존의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담당 정부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는 전우택, “공무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윤여상·김입태,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의 인식과 업무실태 및 개선방안-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하나원, 2001) 참조

원 실무자들의 실태와 요구,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실무자들의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 조사결과

(1) 적응 수준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51명 중 적응을 못한다는 응답은 54.9%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3.5%에 불과하다. 응답결과는 하나원 근무지와 정착지원과 근무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나원 개소 1주년인 지난 2000년 8월 하나원 근무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윤여상의 동일 조사결과(대체로 적응 20%, 대체로 부적응 80%)와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³⁴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담당부서 실무자들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적응' 1.7%, '대체로 잘 적응' 14.3%, '보통이다' 38.5%, '약간 부적응' 32.6%, '매우 부적응' 12.9%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적응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4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 하나원 담당자」 (2000. 10) (미발간자료) 참조

<표 VII-1> 적응수준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적응을 아주 잘 한다	2	3.9
적응 한다	10	19.6
보통이다	11	21.6
적응을 못 한다	28	54.9
합 계	51	100.0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 48.9%, 능력부족 25.5%,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대우 8.5%, 정부의 지원미흡 0%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 어울림 0%, 조금 잘 어울림 5.9%, 중간 수준임 29.4%, 조금 잘못 어울림 45.1%, 매우 잘못 어울림 19.6%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담당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자신에게 있으며, 남한사회와 정부의 책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 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응의 원인으로 생활적응 교육 부족을 15.1%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또한 2000년 조사결과 부적응의 원인으로 93.3%가 자신의 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하나원 개소 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VII-2> 부적응 원인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정부지원 미흡	0	0.0
남한사회의 차별대우와 편견	4	8.5
자신의 소극적 태도	23	48.9
자신의 능력부족	12	25.5
잔여가족의 신변불안	1	2.1
기타	7	14.9
합 계	47	100.0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39.6%, 가족문제 20.8%, 교육문제 6.3%, 언어문제 4.2%, 주거문제 0%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¹³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와 교육문제는 지원정책의 제도적 접근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경제문제와 가족문제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된 것을 순위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1순위로 제시된 것은 중국내 체류경험(30.6%), 가족동반 여부(22.2%), 연령(11.1%), 출신성분(8.3%), 그리고 성별과 북한내 학력 및 경력(2.8%)의 순서이다. 그러나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북한내 학력 및 경력(39.4%)과 가족동반 여부(30.3%)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내 체류경험, 가족동반 여부, 북한내 학력과 경력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출신지역, 성별, 출신성분,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13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12), p. 75.

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VIII-3> 사회적응 영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무자 평가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유효비율)	빈도(유효비율)	빈도(유효비율)
성별	1(28)	3(9.1)	2(6.1)
출신지역	0(0.0)	0(0.0)	1(3.0)
연령	4(11.1)	5(15.2)	5(15.2)
북한내 학력 및 경력	1(28)	13(39.4)	5(15.2)
출신성분	3(8.3)	0(0.0)	0(0.0)
중국내 체류경험	11(30.6)	5(15.2)	6(18.2)
종교	1(0.0)	2(6.1)	3(9.1)
가족동반 여부	8(22.2)	4(12.1)	10(30.3)
기타	8(22.2)	1(3.0)	1(3.0)
합 계	37(100.0)	33(100.0)	33(100.0)

(2) 지원정책과 정책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및 애로사항

정부 실무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5.9%, 대체로 만족 58.8%, 만족도 불만도 없음 17.6%, 대체로 불만 15.7%, 매우 불만 2.0%로 나타나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매우 만족 29.9%, 대체로 만족 29.9%)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자와 정책대상자 모두가 상당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VII-4>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매우 만족할 것이다	3	5.9
대체로 만족할 것이다	30	58.8
만족도 불만도 없을 것이다	9	17.6
대체로 불만족할 것이다	8	15.7
매우 불만족할 것이다	1	2.0
합 계	51	100.0

현재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호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실무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9.4%에 불과한 반면에 신뢰도 불만도 아님 45.1%, 대체로 불신 23.5%, 매우 불신 2.0%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착지원 업무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무자들의 불신 수준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방법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대상자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자신들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 9.8%, 대체로 신뢰 58.8%, 신뢰도 불신도 아님 27.5%, 대체로 불신 3.9%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정착지원 실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지만 자신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6 2003년 8월 27일 하나원과 정착지원과 실무자 면접 결과(통일연구원내 면접 실시).

<표 VII-5>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수준	지원 실무자에 대한 신뢰수준
	빈도(유효비율)	빈도(유효비율)
매우 신뢰	0(0.0)	5(9.8)
대체로 신뢰	15(29.4)	30(58.8)
신뢰도 불신도 없음	23(45.1)	14(27.5)
대체로 불신	12(23.5)	2(3.9)
매우 불신	1(2.0)	0(0.0)
합 계	51(100.0)	51(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만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54.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 당시 만족하는 비율 73.3%와 비교하면 더욱 낮아진 것이다. 실무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과 이들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관리가 어렵고, 이들의 과잉 기대수준과 심리적 불안정성, 공격적 성향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을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¹³⁷ 또한 업무 만족도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본원과 분원 근무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획부서와 실제 집행부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의 업무 만족 수준은 전체 공무원 업무 만족도와와의 비교가 필요한 사항이다.

137 2003년 8월 27일 하나원과 정착지원과 실무자 면접 결과(통일연구원내 면접 실시).

<표 VII-6> 실무자의 업무 만족도

	빈도	유효비율
매우 만족	5	9.8
대체로 만족	23	45.1
만족도 불만도 없음	18	35.3
대체로 불만	4	7.8
매우 불만	1	2.0
합 계	51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정부 내 10여개 유관기관들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정착 지원 실무자들은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3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는 통일부가 총괄을 맡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각 기관별 수직적 위계구조보다는 상호 수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의 총괄 기능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7> 정부부처간 업무협조 수준에 대한 실무자 평가

업무 협조 수준	빈도	유효비율
매우 잘되고 있음	4	7.8
조금 잘되고 있음	16	31.4
중간수준임	21	41.2
조금 잘못되고 있음	6	11.8
매우 잘못되고 있음	4	7.8
합 계	51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실무자들은 취업보호제도와 거주지보호제도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거주지보호제도의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취업보호제도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전혀 없지만 거주지보호제도는 11.7%가 제시되고 있다. 업무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의 인식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표 VII-8> 거주지보호제도와 취업보호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실무자 평가

	거주지보호제도	취업보호제도
	빈도(유효비율)	빈도(유효비율)
매우 도움이 된다	5(9.8)	9(17.6)
도움이 된다	36(70.6)	32(62.7)
보통이다	4(7.8)	10(19.6)
도움이 안된다	4(7.8)	
전혀 도움이 안된다	2(3.9)	
합 계	51(100.0)	51(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실무자들은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지 부족(53.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동과 이들에 대한 불신을 다음 순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저항과 돌출행위, 그리고 이들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부족을 지적한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업무 대상자 이해를 위한 심층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 VII-9> 실무자의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유효비율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지에 대한 불신	9	19.1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	12	25.5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부족	1	2.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지 부족	25	53.2
합 계	47	100.0

(3) 정착지원을 위한 역할과 교육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자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보호담당관(56.3%)과 동료 이탈주민(29.2%)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동료(8.3%)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4.2%), 사회복지관(2.1%)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의 순위는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58.3%), 취업알선자(25%), 문제해결사(10.4%)로 제시하였으며, 신변보호자와 민간단체와의 연계자로서의 역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변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역할은 사회적응 가이드와 취업알선자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 가이드와 취업알선자 역할을 신변보호담당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역할 중에서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역할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지만 도움이 된

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실무 담당자들은 민간과의 자매결연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조사당시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 80%보다 다소 상향된 것이다.

<표 VII-10>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역할에 대한 실무자 평가

중요 역할 수행자	빈도(유효비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	빈도(유효비율)
동료 이탈주민	14(29.2)	신변보호자	1(2.1)
보호담당관	27(56.3)	사회적응안내 및 조연자	28(58.3)
사회단체(자원봉사자)	2(4.2)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2(2.1)
남한동료(친구포함)	4(8.3)	취업알선자	12(25.0)
사회복지기관	1(2.1)	문제해결사	5(10.4)
기타		기타	1(2.1)
합 계	48(100.0)	합계	49(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직업훈련(56.5%)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개선 시 직업훈련과 취업제고가 중요한 항목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6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적응방법(18.4%)과 정착지원 실무절차(8.2%)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II-11>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실무자 평가

북한이탈주민 대상	빈도(유효비율)	정부나 민간단체	빈도(유효비율)
남한사회 이해	9(19.6)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	32(65.3)
심리안정	5(10.9)	북한체제 이해	2(4.1)
생활 및 사교예절	3(6.5)	심리적 적응방법 교육	9(18.4)
직업훈련	26(56.5)	남북관계 이해	1(2.0)
		정착지원상의 실무절차	4(8.2)
기타	3(6.5)	기타	1(2.0)
합 계	46(100.0)	합계	49(100.0)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중국과 북한지역에 잔여가족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잔여 가족을 국내 입국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4%,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0%,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28%로 나타나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8%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관계자들이 잔여가족의 입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가족의 재결합이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하며 직업능력이 없다는 평가는 4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직업능력이 낮거나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I-12>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 평가

	빈도	유효비율
많이 있다	2	3.9
조금 있다	7	13.7
보통이다	18	35.3
별로 없다	23	45.1
전혀 없다	2	2.0
합 계	51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실무자들은 이들이 직장에서 상당 수준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이 있다는 응답은 41.2%인 반면에 차별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25.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료들의 태도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0%, 긍정적이다 18.4%, 그저 그렇다 49%, 부정적이다 28.6%, 매우 부정적이다 4.1%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내의 생활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힘들어 한다는 응답이 38.3%로써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복지적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약하다는 응답이 36.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들의 직장생활 어려움은 자신의 능력부족과 취업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VII-13> 직장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많이 있다	4	7.8
조금 있다	17	33.3
보통이다	17	33.3
별로 없다	13	25.5
전혀 없다	0	0.0
합 계	51	100.0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32.7%)과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의 권유(30.6%)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것은 자체의 인력난 때문보다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주변 인사들의 사적 부탁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14> 채용 이유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인력난 때문에	11	22.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5	10.2
고용유지 지원금 때문에	16	32.7
주위(보호담당관)의 권유 때문에	15	30.6
기타	2	4.1
합 계	49	100.0

현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는 이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

기하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실무자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가 매우 도움이 된다 9.8%, 조금 도움이 된다 21.6%, 보통이다 7.8%, 도움이 안된다 31.4%, 전혀 도움이 안된다 29.4%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 방식은 긍정적 결과보다는 자립의지를 약화시켜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심층면접 결과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취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많이 도움된다 31.4%, 도움된다 52.9%, 보통이다 15.7%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7%,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0.6%, 보통이다 13.9%이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사후 평가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20대(34.7%)와 30대(57.1%)가 가장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0대 이후가 될 경우 취업난이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40대 이후 연령대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취업은 남성(17.6%)보다는 여성(82.4%)이 월등히 용이할 것이라는 결과이다.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과 단순 노동직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II-15> 채용 용이 연령에 대한 실무자 평가

	빈도	유효비율
10대	2	41
20대	17	347
30대	28	57.1
40대	2	41
50대	0	0.0
합 계	49	100.0

다.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하나원 담당자, 그리고 대성공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북한이탈주민과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내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체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은 본인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세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신뢰도와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해 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직장내 차별대우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자의 평가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러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반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표본대상으로 설정하고, 2008년 8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민간단체의 여러 활동기들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지원사업의 일선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는 재정적인 자립성이 취약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공적인 책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보호경찰관과는 달리, 민간인으로서 자발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매우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수년의 경험을 가진 경력자로서 이들의 눈에 비춰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평가하는 작업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이 51명으로 작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일부 문항에 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도 있어 통계해석상의 한계도 있다. 특히 기본 독립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자원봉사 기간, 근무지역 등의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에서 별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수년 동안의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40-50대의 중년 여성이라는 점이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을 제외한 38명의 응답자 가운데 1명(2.6%)만이 남성이었고, 37명(97.4%)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응답자 35명 가운데 71%인 25명이 40대로 가장 많고 50대(14.3%)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주로 40대-50대의 중년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2-3년의 경력자들이었다. 자원봉사 기간에 응답한 19명 가운데 24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응답자가 5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7개월(10.5%), 36개월(10.5%) 등의 순이었다. 1년 미만 경력자는 4명 뿐이었다. 무응답자들의 경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지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2년에서 3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들을 고려할 때,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의견은 2-3년의 지원경험을 가진 40-50대 중년 여성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⁸ 즉 젊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이나 지원경력이 별로 없는 초급 자원봉사자들의 평가, 그리고 남성 자원봉사자의 시각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하여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해석되어야 한다.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11명(21.6%), 충청지역 5명(9.8%) 등으로 서울(수도권)지역이 다수인 것은 기존 조사와 유사하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실무자들은 단체 혹은 조직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평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면접조사 1인은 3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또 다른 1인은 직원이 10여명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민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면접은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에 대한 전반적 평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은 응답자의 52.9%인 27명이 '적응을 못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적응한다'는 응답은 7명(13.7%)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4명(27.5%)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북

138 2000년 9월 실시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여성(41.5%)보다 남성(58.5%)이 많았고, 20대 이하의 청소년들(34.1%)이 많았다. 또 조사대상자들의 상당수(64.6%)가 1년 이하의 지원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1년 이상의 경력자는 오히려 소수(35.4%)였다.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p. 75-93.

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에 응한 민간단체의 한 실무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를 백분율로 표현하면 가장 높게 잡아 30%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13.7%만이 북한이탈주민가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눈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어울림’(28명, 54.9%)과 ‘매우 잘못 어울림’(5명, 9.8%) 등 총 33명(64.7%)이 남한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남한주민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5.9%)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실무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을 매우 선별적으로 사귀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여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부적응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정착 지원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매우 만족’(9명, 17.6%)과 ‘대체로 만족’(21명, 41%)을 합하여 총 30명(58.8%)으로, 불만(15명, 29.5%)이라는 응답자보다 두 배가 많았다. ‘만족도 불만도 없다’는 응답은 6명(11.8%)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는 사람은 9명(17.6%)인 반면 ‘매우 불만’인 경우는 1명(2.0%)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제도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정착지원제도를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남한사회에도 거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응한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원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자신의 소극적 태도’(26명, 51.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9명, 17.6%),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편견’(8명, 15.7%) 등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을 남한사회의 내적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앞 장에 분석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 원인을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크다’(37.7%)는 점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적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자 면담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받기 때문에 처음 1-2년간은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며, 3-4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뀐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족문제’(22명, 43.1%), ‘경제문제’(9명, 17.6%) 등이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족문제’(25.3%)와 ‘경제문제’(25.8%)로 비슷하게 응답한 반면, 보호담당관들은 경제문제(35.8%), 가족문제(25.1%)로 보았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문제’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실무자들도 현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앞서 지적한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40-50대 중년 여성들로 가족의 유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동반여부'(17명, 33.3%)를 가장 중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에 중요한 변수는 '북한 내 학력 및 경력'(11명, 21.6%), 연령(7명, 13.7%) 등이 지적되었다. 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북한 내 학력 및 경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동반여부'를 주요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가족문제'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가족동반여부'를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점이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동반여부'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주로 40-50대 여성들이라는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40-50대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으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서 가족의 역할을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동반 여부가 남한생활 적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가족'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33.3%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동반여부'를 꼽았고, 43.1%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로 '가족문제'라고 하는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적응과정에서 가족변수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경제문제'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에서 '가족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가족동반 여부의 중요성은 최근 중국

과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기획탈북이 성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중국과 북한에 일부 가족을 남겨두고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든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과도한 재정을 소비하고 있다. 기획탈북의 배경에는 가족 구성원의 입국에 따른 지원금 혜택이 자신이 직장에 취직하여 얻게 되는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54.9%)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기획탈북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잘되고 있음’(8명, 15.7%)와 ‘조금 잘되고 있음’(17명, 33.3%)을 포함하여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49.0%(25명)였고, ‘조금 잘못되고 있음’(5명, 9.8%)과 ‘매우 잘못되고 있음’(1명, 2.0%) 등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11.8%를 차지했다. ‘중간수준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5%(12명)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정부부처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24명, 47.1%)와 ‘조금 도움이 된다’(12명, 23.5%) 등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반면, ‘도움이 안된다’(4명, 7.8%)와 ‘전혀 도움이 안된다’(2명, 3.%) 등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1.7%이며, 3명(5.9%)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70%라

는 높은 공감대를 표시했다.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현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은 남한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한 거주지보호업무 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4명, 7.8%), ‘도움이 된다’(28명, 54.9%) 등 62.7%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 ‘도움이 안된다’(3명, 5.9%)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1명, 2.0%) 등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는 7.9%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절대 다수가 거주지보호업무 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많이 도움이 된다’(5명, 9.8%)와 ‘도움이 된다’(32명, 62.7%)를 합하여 총 37명 (72.5%)이며,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취업보호제도의 역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취업보호제도 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이 전무하였으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72.5%라는 높은 평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민간단체 실무자는 보호담당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보호담당관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외에 다른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한 보호담당관에게 너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단체 실무자가 보기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보호담당관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마.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35명(68.6%)으로 가장 많고, 1명은 ‘매우 만족(20%)하였으며, ‘만족도 불만도 없음(7명, 13.7%), ‘매우 불만(2명, 3.9%) 등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2-3년의 경력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35명, 68.6%)로서의 역할이며, ‘민간단체와의 연계자(7명, 13.7%) 혹은 ‘문제해결사(3.9%), ‘신변보호자(1명, 2.0%) 등의 역할을 거론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대면하여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로서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데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13명, 25.5%)이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8명, 15.7%),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7명, 13.7%), ‘본인의 북한사회 및 주민에대한 이해 부족(7명, 13.7%)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의 애로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지 부족이 가장 높게 지적된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이 비교적 낮게 지적된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안과 불신(41.1%)이었으며, ‘지립의지 부족은 7.2%에 불과하였다.¹³⁹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불안과 불신은 15.7%로 감소한 반면, ‘적응의지 부족은 25.5%로 높아졌다. 지난 3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입

장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과의 불신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 부족’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요인으로 부상한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면담에 참여한 실무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 1-2년간은 일하려는 의욕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에 지원받는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등으로 인해 일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생각이 바뀌어 일하려는 의식도 갖게되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불신감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가 응답자인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도 불신도 아님’(17명, 3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신뢰’(7명, 13.7%)하거나 ‘매우 신뢰’(1명, 2.0%)를 포함하여 신뢰할 것이라는 응답이 8명(15.7%)이었고, ‘대체로 불신’한다는 응답은 5명(9.8%)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불신한다는 응답(9.8%)보다는 신뢰(15.7%)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물론 많은 의견(33.3%)이 신뢰도 불신도 아닌 보통의 관계라고 응답했지만, 불신한다는 응답이 현저히 낮은 것은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41.0%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¹⁴⁰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가 불신보다 신뢰 혹은 보통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40-50대의 중년 경력자라는 사실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봉사자(33.3%)는 20대의 봉사자(53.6%)보다 “불안과 불신”을 훨씬 적게

139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p. 80-82.

140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 91.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50대의 중년 경력자들은 인간관계의 풍부한 경험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편에서 보더라도 자원봉사자의 나이가 많고 경력자일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가지고 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가 불안과 불신의 골이 깊었던 데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체로 불신’한다는 응답이 9.8%로 나타났는데,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이 조사한 33.3%(50대)나 36.4%(30-40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¹⁴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원봉사 활동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가 2000년 9월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간에 아직 신뢰의 관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관계가 ‘신뢰도 불신도 아님’의 관계로 바뀐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신뢰도 불신도 아님’(28명, 54.9%)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불신’(8명, 15.7%)하는 사람보다는 ‘신뢰’(12명, 23.6%)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과반수 이상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141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 91.

위에서 설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과 거의 일치하였다. ‘불신’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나 ‘신뢰도 불신도 아닌’ 보통의 관계가 일반적이다.

민간단체 실무자 면담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40%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23.6%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면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개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과는 달리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신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70.6%가 자신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응 안내자와 조연자로서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불신 등이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아직 신뢰의 관계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불신의 정도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 취업문제에 관한 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취업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실무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직업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봉사자들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적응과 취업능력, 직업훈련 등의 실태가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많이 있다’(20명, 39.2%), ‘조금 있다’(9명, 17.6%) 등 직업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6.8%였으며,

‘별로 없다’(4명, 7.8%)거나 ‘전혀 없다’(1명, 2.0%) 등 직업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9.8%를 차지했다. 직업능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19.6%(10명)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적용에 실패하는 원인을 앞에서 지적한대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한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3년 전의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성길·전우택·윤덕룡의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이유로 “직업수행 능력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38.5%에 불과하였으며, 30-40대와 50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각각 15.2%, 9.5%에 불과하였다.¹⁴² 질문의 맥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56.8%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연령층이 40-50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6.8%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자체평가와는 상당히 다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업무수행 능력 부족’(24.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인관계(14.4%), 급여취약(10.4%), 출퇴근 문제(7.2%) 등을 열거하였다. 자원봉사자는 56.8%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은 직장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담당관의 권유나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호담당관’의 권유에 의한

142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p. 84.

것(12명, 23.5%)이 가장 많았으며, ‘고용유지지원금’(10명, 19.6%)과 ‘인력난’(9명, 17.6%),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9명, 17.6%)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물론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직업능력과 무관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보호당기관의 역할과 고용지원금이라는 취업보호 제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취업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9%인 28명이 ‘조금 있다’고 대답했으며, ‘많이 있다’고 답한 사람(3명, 5.9%)을 포함하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60.8%를 차지한다. 또 ‘보통이다’(9명, 17.6%), ‘별로 없다’(4명, 7.8%)고 응답하여,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60.8%의 의견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전반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53%의 응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은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동료직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동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7명(33.3%)으로 가장 많고, ‘긍정적이다’(11명, 21.6%), ‘부정적이다’(8명, 15.7%), ‘매우 부정적이다’(1명,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대인관계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임금이나 승진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는 역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생활 애로점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교회 등에서 재정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15명)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9명, 17.6%),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힘들어한다(7명, 13.7%), ‘남한사람들이 차별대우한다(4명, 7.8%) 등이 지적되었다. 실무자 면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형편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계급여나 훈련수당, 교회 등의 지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14명, 27.5%)와 ‘도움이 된다(22명, 43%) 등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6%를 차지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보호담당관의 소개나 권유, 고용지원금제도 등의 혜택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적절한 직업능력을 갖춘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취업이 용이한 성별은 ‘남성(5명, 9.8%)에 비해 ‘여성(38명, 74.5%)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다. 또한 취업이 용이한 연령대는 ‘30대(20명, 39.2%), ‘20대(16명, 31.4%), ‘40대(5명, 9.8%), ‘60대(1명,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취업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취직하기에 가장 어려움이 없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적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6.8%의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51.0%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70.6%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직장에서 사업주나 동료들이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담당보호관의 소개나 혹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기 위해 취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

(1) 정부정책과 제도적 측면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사회단체'(19명, 37.3%), '보호담당관'(14명, 27.5%), '사회복지기관'(6명, 11.8%), '동료 이탈주민'(5명, 9.8%)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49.1%가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단체를 꼽은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착지원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협조에 대해 49.0%가 대체

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거주보호 제도나 취업보호 제도 및 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준비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3억 정도의 예산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에 속한 44개 단체 중 현재 1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하여 300-500만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쉼터 및 생활공동체 운영 기관에 한 단체당 각각 1,000만원 혹은 1,300만원씩 지급한다. 학습쉼터로는 공릉종합복지관, 가양7복지관, 한빛종합복지관 등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생활공동체로는 하늘꿈학교, 늘푸른학교, 마자렐로센타, 공릉종합복지관, 다리공동체 등이 대안학교 형태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⁴³ 법인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재정확보가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는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힘든 형편이다. 때문에 특별행사를 기획하여 그 명분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143 전우택·강성록·윤덕룡·김형중·민성길, “비정부기구(NGO)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및 개선 방향,” 『탈북자와 통일준비』, p. 102.

(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연구 지원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 지나친 기관의 규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민간단체는 북한 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소위 ‘북한이탈주민 위로회’ 등의 이름으로 주로 음악회를 개최한다거나 선물을 주고 식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유적지 견학 및 관광과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행사와 사업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지원의 형태도 달라져야 하며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인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협력연구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고안할 능력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통일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기관과 관련 학자들의 협력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개발해야 한다. 성인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실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9%인 27명이 ‘예’라고 대답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7%인 9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지역의 민간단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연구사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기획탈북 및 입국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가족동반여부를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부 가족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경우, 모든 관심이 남은 가족에 쏠려 있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재산을 투입하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적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정부나 민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기획탈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15명, 29.4%),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13명, 25.5%) 등 정부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54.9%로 많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8명(15.7%)이었고,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는 의견은 6명(11.8%)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의 동반 여부를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은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획탈북을 정부차

원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성격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일선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가까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직업훈련 지원

북한이탈주민 적응에서 가장 핵심은 취업과 창업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질문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된다’(14명, 27.5%)와 ‘도움이 된다’(22명, 43%) 등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6%를 차지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을 하는데 취업은 중요한 변수이고, 취업을 하는데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70%의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직업훈련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단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외에는 ‘굿피플대학’ 한 단체뿐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는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에 4회,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한사람들’ 내에 있는 ‘굿피플대학’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창업교육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면담에 참여한 민간단체 실무자들에 의하면 직업교육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직업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취직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훈련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하니원에서부터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전문

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을 받는 동안 희망 분야의 직종을 선택하게 하고 1지망, 2지망, 3지망 등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은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한 실무자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훈련과정이 2년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 35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경우에는 기능대학 등을 활용하여 무상학업과 직업훈련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간단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의식 차원

(가) 적극적 사고방식의 함양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로 꼽았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생활에서도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생계급여다 훈련수당이다, 교회지원이다 하여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 나머지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실무자 면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형편은 오히려 적응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자신들의 적응의지가 부족함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태도와 의식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게 이러한 자립의지를 어떻게 불어넣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극기훈련이나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 사고방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남한사회 이해 교육의 확대

자원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남한사회의 이해'(28명, 54.9%)를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안정'(9명, 17.6%), '직업훈련'(8명, 15.7%) 등을 꼽았다. 즉 심리안정과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남한사회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 부적응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피부에 와 닿게 소개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한사회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로또복권의 대박을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황된 기대 속에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지 않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공식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에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는 '심리적 적응 방법 교육'(21명, 41.2%),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17명, 33.3%)를 지적하였다. 2-3년의 지원경험을 가진 40-50대의 경력자들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는 훈련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및 향후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입국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안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리 사회 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사태가 국제적 시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사회정착과정에 가족들의 신변보호 및 입국지원이 상당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지방정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역단위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와 보호담당관, 실무담당관, 자원봉사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단위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호담당관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보호담당관들의 업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에

따라 보호담당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단계에서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안이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담당관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정착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인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들의 ‘무능력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착지원 정책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막는 기초생활보장 특례조항에 따른 생계비 보조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후관리과를 신설하여, 거주지 정착이 초기정착지원시설 내 정착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영복·한균자. 「사회학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0.
-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서울: 나남, 1993.
-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9.
- 김원경. 「인적자원관리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9.
-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12.
-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신건호. “긍정적 설득과 부정적 설득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8.
-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2001.
- 오혜정. “남과 북을 이어주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도서출판 세명, 2001.
- _____. 「제3의 동포 재외북한이탈주민」. 서울: 열린포럼 21, 2001.
- 윤여상·김임태.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의 인식과 업무실태 및 개선방안-거

- 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원, 2001.
- 이동인 외. 「새사회학통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이은죽. “탈북동포 수용의 제 문제.” 「북한학보」. 제18집, 1994.
- 이장호. “남한이주지(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 모임 발표논문, (1996. 9. 20).
- 이정식. 「정치학」. 서울: 대왕사, 1993.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_____. “공무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전우택·강성록·윤덕룡·김형중·민성길. “비정부기구(NGO)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및 개선 방향.”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33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3.
- 정진경. “남북한 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서울: 연

- 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 차배근. 「태도변용이론」. 서울: 나남, 1992.
-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이장호·이춘재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 최재열 외. 「인사관계론」. 서울: 학문사, 1999.
- 통일부. 「통일백서 2003」. 서울: 통일부, 2003.
- _____. 「2003년도 국정감사 보고자료 업무현황보고」. (2003.10.7).
- _____.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2002.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서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99.
- Kohr, Heinz-Ulrich. “독일통일에서의 심리학적 문제.” 이장호·이춘재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4.

<외국문헌>

- Alderfer, Clayton P.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 Allport, G. W. “Attitude.” In C. Murchison(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Press, 1935.
-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 Vol.3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 Berry, J. W., Uichol Kim, Thomas Minde and Doris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 Migration Review*, Vol.21. No.3 (1988).
- Brewster Smith, M. "Attitude chang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 Brislin, R. K., Cushner, C. Cherrie and M. Yong. *Intercultural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1986.
- Doby, John T., Alvin Boskoff and William Pendletoe.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1973.
- Doob, Leonard W. "The Behavior of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947(54).
- Emeka Nwadiora and Harriette McAdoo.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Vol. 2, No.17 (1996).
- Eysenk, H. J. *Handbook of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59.
- Festinger, L. H. W. Riecken and S. Schachter. *When Prophecy Fails: A social and psychological study of a modern group that predicted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5.
- Freedman, J. L. and J. Steinbruner. "Involvement, discrepanc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31(1964).
- Fromm, Erich. *The Revolution of Hope*, Bantam Books. New York, London, Toronto: Harper & Row, 1968.
- Giddens, Anthony. *Sociology*. London: Polity Press, 1983.

- Gordon, Milton M.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 Press, 1964.
- Herzberg, F., B. Mauser and B. Snyderman.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John Wiley & Son, 1959.
- Hilgard, E. R. and R. C. Atkinson. *Introduction to Psychology (4th ed)*. Harcourt & Brace, 1967.
- Hovland, C. I., I. L. Janis and H. H. Kelly.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 Katz, D.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1960).
- Kelman, H. C.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958).
- _____.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1961).
- Kerbo, Harold.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1982.
- Langton, Kenneth P.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Lauer, R. H.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3.
- Lazarus, Richard S.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 Macgrow-Hill Book Company, 1976.
- Libekind, Karmela. "Acculturation and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7, No.2(1996).
-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0.
- McClelland, D. C. *The Achieving Society*. N. J: Van Nostrand, 1961.
- McCormik, E. J. and D. R. Ilgen. *Industrial Psychology (7th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0.
- Moore, Wilbert E.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4.
- Murray, H. 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O'Kelly, Lawrence I. "Motivation: The Concep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0.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 Oskamp, Stuart. *Attitude and Opin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7.
- Rokeach, Milton. "The nature of attitud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 Schneider Benjamin and Clayton P. Alderfer. "Three Studies of Need Satisfactions in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8 (December, 1973).
- Smith, M. B., J. S. Bruner and R. W. White.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1956.

UNHCR.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1997.

USCR. 「World Refugee Survey 2002 - North Korea」. (2002. 6. 6.)

Williams, Carolyn L. and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46, No.6, (1991).

Yoon, Yeo Sang. "Situation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Refugees*, (Seoul: Citizens' Alliance to Help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 Press, 1999).

_____. "Situation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Life & Human Rights*, No. 10, (Tokyo & Seoul: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Japan) & Citizens' Alliance to help Political Prisoners in North Korea(Korea), 1998).

<기타>

「연합통신」. 2003년 8월 7일

조선일보. 2003년 6월 20일 20면

<http://www.goodfriends.or.kr/kor.html>

<http://www.iloveninority.com>

<http://www.refugees.org>

<http://www.unikorea.go.kr>

부록 설문지 4가지 유형

부록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비밀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7월 통일연구원

1. 귀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 적응 ② 대체로 잘 적응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적응 ⑤ 매우 부적응
2. 만약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적응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삶의 목표 불확실 ② 안이한 삶(사치와 허영) ③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 ④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⑤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죄책감 때문에 ⑦ 기타
3. 여러분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우호적 ② 우호적 ③ 무관심 ④ 적대적 ⑤ 매우 적대적

4.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귀하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보통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5. 제3국(중국 등) 체류기간이 한국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보통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 5-1. 제3국 체류기간이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선교사 ② 중국 조선족 ③ 입국브로커 ④ 재외공관원 ⑤ 기타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① 없다 ② 가족 및 친척 ③ 하니원 담당관 ④ 신변보호담당관 ⑤ 거주지보호 담당관 ⑥ 취업보호담당관 ⑦ 탈북동료 ⑧ 민간단체 ⑨ 동네이웃 ⑩ 기타
7. 한국 정부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정부의 지원내용 중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분야입니까?
① 정착금 ② 임대주택 ③ 생계비지원 ④ 직업훈련 ⑤ 교육보호 ⑥ 취업보호 ⑦ 기타 ⑧ 없다
9. 현재의 정부 지원(정착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기를 바라십니까?
① 일시불 ② 일정기간 분할 ③ 받은 일시불로 나머지 받은 분할 ④ 상관없다

10.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떤 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식주 등 일상생활 교육 ②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 교육 ③ 직업훈련교육 ④ 정착금 등 지원수준 향상 ⑤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⑥ 기타
11.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여러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교육하는 주체가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① 정부 주도 ② 민간단체 주도 ③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④ 기타
⑤ 필요 없다
13.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②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수준 부족
③ 한국 주민의 냉대와 편견 ④ 경제적 어려움 ⑤ 가족에 대한 염려 ⑥ 기타
14. 귀하의 정착금이나 수입을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② 조금 생각 있다 ③ 거의 생각 없다
④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⑤ 관심 없다
15.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정부의 교육과 지원 ② 종교단체 ③ 학교나 민간단체 ④ 직장동료나 친구 ⑤ 가족 ⑥ 먼저 입국한 동료 ⑦ TV나 신문 ⑧ 나 자신의 노력
⑨ 학교 ⑩ 기타

16.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아래의 항목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기간	6개월 정도	1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3년 이상
한국사회 적응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불편없는 언어사용					
불편없는 대인관계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극복					

17. 귀하는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귀하는 거주지보호담당자(지역 시청·군청·구청)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귀하는 취업보호담당자(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 귀하는 하나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귀하가 하나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21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0-1.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보통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20-2. 하나원 생활중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②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③ 직업·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 및 기능 실습 ④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⑤ 없다

20-3. 하나원 생활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희망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교육 미비 ② 한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③ 관리자들의 태도 ④ 폐쇄적 운영방식 ⑤ 강의식 수업 등 교육 운영방식 ⑥ 없다

20-4. 하나원 생활기간으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2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1년 이상 ⑤ 기타

20-5. 하나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을 순서대로 3개만 표시하십시오.

- ① 외국어 교육() ② 심리상담 및 정서순화 교육() ③ 언어교육() ④ 한국 사회 이해 교육() ⑤ 컴퓨터 교육() ⑥ 현장체험학습() ⑦ 진로 및 직업교육() ⑧ 정신교육() ⑨ 정착경험사례() ⑩ 보호담당관 특강() ⑪ 의·식생활 관리교육() ⑫ 운전이론교육() ⑬ 기타()

20-6. 하나원 교육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7. 하나원 교육 중 한국사회이해(한국사회이해, 법과 시민생활, 대중매체의 이해 등 이론수업)에 관한 강의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된다 ② 어느 정도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필요 없다

20-8. 독신으로 입국한 여성들을 현재와 같이 하나원 본원과 분리된 별도시설(분원)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보통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20-9. 하나원에서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10. 하나원에서의 종교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11. 귀하는 대체적으로 하나원이라는 정부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 있다 ② 필요 없다

20-11-1. 필요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운영방식의 비합리성 ② 북한이탈주민들만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폐쇄성

③ 교육의 비효율성 ④ 시설이나 비품의 낙후에서 오는 불편함 ⑤ 기타

20-11-2. 귀하께서 하나원 체계가 아닌 다른 적응교육 및 정착지원 체계를 만들어 본다면?

①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정착촌 ② 순수 민간지원체계 ③ 교육없이 일정기간 쉬는 곳 ④ 기타()

21. 정부의 정착지(거주지)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2.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신변 불안 해소 ② 물질적 풍요(경제적 여유) ③ 교육의 기회 ④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⑤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⑥ 기타

23. 귀하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들의 신변확인 ② 물질적 풍요(경제적 여유) ③ 자신의 학교교육 ④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⑤ 자녀교육 ⑥ 기타

24. 현재 한국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5. 동네 이웃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습니까?

① 1주일에 한번 ② 1달에 한번 ③ 1년에 한번 ④ 없다

26. 귀하의 월 평균 수입(월급, 생계보호비, 단체의 지원금, 아르바이트 수입 등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0만 원 이하 ② 51-100만 원 ③ 101-150만 원 ④ 151-200만 원 ⑤ 201만 원 이상

27. 귀하(귀댁)의 수입은 생활하는 데 충분한 편입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모자란다
⑤ 매우 모자란다

28. 귀하는 얼마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조항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으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받은 적이 없다

29.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았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자활근로 대상이 아니다 ③ 자활근로대상이지만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활근로를 하지 않았다 ④ 기타()

30.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다소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1. 건강이 안 좋을 때 보살펴줄 사람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가족 및 친척 ③ 하나원 담당관 ④ 신변보호담당관 ⑤ 거주지보호담당관 ⑥ 취업보호담당관 ⑦ 탈북동료 ⑧ 민간단체 ⑨ 동네이웃 ⑩ 기타

32. 귀하가 생활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외로움 및 고독감 ② 한국사회에서 역할상실 ③ 건강상의 문제 ④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⑤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⑥ 여가, 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⑦ 가족 돌보기의 어려움 ⑧ 특별한 문제가 없다 ⑨ 기타_____

33.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학력)이 한국사회 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4. 북한에서의 직장 생활경험(경력)이 한국사회 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 북한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① 학생 ② 군인 ③ 노동자 ④ 농장원 ⑤ 당간부 ⑥ 교사 ⑦ 해외근무 ⑧ 기타

36. 현재 어느 직종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연구원 ④ 자영업 ⑤ 농수산업 ⑥ 학생 ⑦ 무직 ⑧ 기타

현재 직업이 없다면 37번으로 넘어가십시오

36-1. 귀하가 취업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 취업을 하셨습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③ 기타 ()

36-2. 귀하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① 취업난 ② 능력 부족 ③ 차별 대우 ④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⑤ 기타

36-3. 현재의 직장에 어떻게 취직하셨습니까?

- ① 동일부의 직업알선으로 ②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③ 담당경찰(신변보호담당관)의 소개로 ④ 목사, 수녀 등 종교기관의 추천으로 ⑤ 나 자신이 스스로 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⑦ 기타 ()

36-4. 취업보호제(사업주가 노동고용안전 센터에 신청하는 고용지원금)를 활용하여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6-5. 현재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6-6.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부족 ② 대인(동료, 상사)관계 ③ 급여, 복리후생 취약 ④ 출, 퇴근 문제 ⑤ 회사 정책(승진에서의 불공정성) ⑥ 애로사항 없다 ⑦ 기타

37. 직업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의 능력 부족 ②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 ③ 직업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 ④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 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부족
⑥ 기타

38.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8-1.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9. 희망하는 직업 훈련은 어떤 분야인지 순서대로 2개만 적으십시오.

- ① 기계·금속() ② 전기·전자() ③ 통신() ④ 토목, 건축()
⑤ 정보처리, 컴퓨터() ⑥ 농수산() ⑦ 산업디자인()
⑧ 서비스() ⑨ 의료, 보건() ⑩ 미용, 요리() ⑪ 기타()

40. 장래에 어떤 직업을 희망하십니까?

- ① 행정관리직 ② 전문직 ③ 생산·기술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⑦ 개인사업 ⑧ 여행업 ⑨ 사회사업 ⑩ 방송·연예 ⑪ 기타

41.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임금, 수입 ② 적성 ③ 안정성 ④ 장래성 ⑤ 사회적 인정
⑥ 기타()

42. 귀하는 이웃 및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십니까?
① 매우 잘 어울린다 ②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43.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보통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44. 주변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말투가 달라서 ② 능력이 부족해서 ③ 사고방식이 달라서 ④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⑥ 별다른 이유 없이
45. “한국사회에서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보통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46.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보통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47. 결혼상대로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① 남한주민 ② 북한이탈주민 ③ 출신지역은 상관없다 ④ 결혼할 의사가 없다 ⑤ 기존 배우자를 기다리겠다

48. 귀하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종교 없다

48-1. 종교를 갖고 있다면 종교를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② 한국에 입국하면서 목사나 스님, 신부 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③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④ 나중에 목사나 스님, 신부가 되기 위해서 ⑤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⑥ 없다

49.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이하 ② 1년- 2년 ③ 2년- 3년 ④ 3년 이상 ⑤ 다닌 적이 없다

50.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자납니까?

- ① 독서 ② 텔레비전 시청 ③ 친구만남 ④ 컴퓨터 ⑤ 여행 ⑥ 영화 ⑦ 기타()

51.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 ① 진학문제 ② 친구관계 ③ 가족문제 ④ 이성문제 ⑤ 취업문제 ⑥ 기타() ⑦ 없다

VII.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세 미만 ② 10-19세 ③ 20-29세 ④ 30-39세 ⑤ 40-49세
⑥ 50-59세 ⑦ 60세 이상
3.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학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무학 ② 인민학교 ③ 고등중학교 ④ 전문학교 ⑤ 대학교 이상
4.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5. 북한 탈출 후 외국에서의 생활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6. 귀하는 현재 결혼하셨습니다?
① 그렇다 ③ 아니다
7. 한국으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가족 모두 ② 가족 중 일부 ③ 친척 ④ 친구 ⑤ 단독(혼자) ⑥ 기타
8.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가족 ② 양부모 ③ 독신 ④ 부부 ⑤ 기타

9.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현주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10.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부록 2.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본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내용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4월 통일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응을 아주 잘한다 ()② 적응한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응을 못한다 ()⑤ 전혀 적응을 못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요인들을 순서대로 표시해 주세요.
()① 성별 ()② 출신지역 ()③ 연령 ()④ 북한 내 학력 및 경력 ()⑤ 출신성분 ()⑥ 중국 내 체류경험 ()⑦ 종교
()⑧ 가족동반여부 ()⑨ 기타()

3.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지원미흡 ()②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편견 등
()③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소극적 태도
()④ 북한이탈주민의 능력부족
()⑤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 ()⑥ 기타()

4. 귀하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문제 ()② 가족문제 ()③ 교육문제
 ()④ 언어문제 ()⑤ 주거문제 ()⑥ 기타()
5.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정착 지원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6. 귀하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7. 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 어울림 ()② 조금 잘 어울림 ()③ 중간수준임
 ()④ 조금 잘못 어울림 ()⑤ 매우 잘못 어울림
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다음 중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동료 이탈주민 ()② 보호담당관 ()③ 사회단체
 ()④ 남한 동료(친구포함) ()⑤ 사회복지기관
9.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남한사회의 이해 ()② 심리안정

- ()③ 생활 및 사교예절 ()④ 직업훈련
()⑤ 기타()

10.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 ()② 북한체제의 이해
()③ 심리적 적응 방법 교육 ()④ 남북관계의 이해
()⑤ 정착지원상의 실무절차 ()⑥ 기타()

11. 귀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하시는 보호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12. 귀하가 보호담당관으로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신변보호자 ()② 사회적응 안내 및 조언자
()③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④ 취업알선자
()⑤ 문제해결사(일종의 패키지 서비스)
()⑥ 기타()

13. 현재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귀하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1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되고 있음 ()② 조금 잘되고 있음 ()③ 중간수준임
- ()④ 조금 잘못되고 있음 ()⑤ 매우 잘못되고 있음.

15. 보호담당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
- ()②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
- ()③ 본인의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
- ()⑤ 기타(구체적 내용 :)

16.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하고 이유를 써주세요

- ()① 예(이유는)
- ()② 아니오(이유는)

16.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하기 쉬운 업종과 직종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업종(산업의 종류):()
업종(하는일):()

- ()⑤ 사회복지적인(생계급여지원, 훈련수당지원, 교회등에서 지원) 수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전혀 도움이 안 된다

2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국내입국시키
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②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바람직하지 않다 ()④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5. 거주지보호업무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6. 취업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7.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이 더 용이한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8.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 가장 용이한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기타()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0. 다음은 통계를 위해 귀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30-1.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 :

30-2. 귀하가 보호업무를 담당한 기간 : 년 개월

30-3. 귀하의 성별 : 남(), 여()

30-4. 귀하의 연령 : 세

부록 3.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자

본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패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내용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6월. 통일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응을 아주 잘한다 ()② 적응한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응을 못한다 ()⑤ 전혀 적응을 못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요인들을 순서대로 표시해 주세요.
()① 성별 ()② 출신지역 ()③ 연령 ()④ 북한 내 학력 및 경력
()⑤ 출신성분 ()⑥ 중국 내 체류경험 ()⑦ 종교
()⑧ 가족동반여부 ()⑨ 기타()

3.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지원미흡 ()②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편견 등
()③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소극적 태도 ()④ 북한이탈주민의 능력부족
()⑤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 ()⑥ 기타()

4. 귀하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문제 ()② 가족문제 ()③ 교육문제
()④ 언어문제 ()⑤ 주거문제 ()⑥ 기타()

5.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정착 지원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6. 귀하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7. 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어울림 ()② 조금 잘 어울림 ()③ 중간수준임
()④ 조금 잘못 어울림 ()⑤ 매우 잘못 어울림

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다음 중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동료 이탈주민 ()② 보호담당관 ()③ 사회단체(자원봉사자)
()④ 남한 동료(친구포함) ()⑤ 사회복지기관

9.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남한사회의 이해 ()② 심리안정
()③ 생활 및 사교예절 ()④ 직업훈련
()⑤ 기타()

10.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 ()② 북한체제의 이해
 ()③ 심리적 적응 방법 교육 ()④ 남북관계의 이해
 ()⑤ 정착지원상의 실무절차 ()⑥ 기타()
11. 귀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현재 참여하시는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12. 귀하가 실무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신변보호자 ()②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
 ()③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④ 취업알선자
 ()⑤ 문제해결사(일종의 패키지 서비스)
 ()⑥ 기타()
13. 현재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귀하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1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되고 있음 ()② 조금 잘되고 있음 ()③ 중간수준임

()④ 조금 잘못되고 있음 ()⑤ 매우 잘못되고 있음.

15. 실무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
- ()②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
- ()③ 본인의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
- ()⑤ 기타(구체적 내용: _____)

16.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하고 이유를 써주세요.

- ()① 예(이유는 _____)
- ()② 아니오(이유는 _____)

16.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하기 쉬운 업종과 직종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업종(산업의 종류) : (_____)
직종(하는 일) : (_____)

17.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국내입국시키 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②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바람직하지 않다 ()④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5. 거주지보호업무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6. 취업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7.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이 더 용이한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8.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 가장 용이한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기타()

2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관련 실무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0. 다음은 통계를 위해 귀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30-1.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 :

30-2. 귀하가 실무업무를 담당한 기간 : 년 개월

30-3. 귀하의 성별 : 남(), 여()

30-4. 귀하의 연령 : 세

-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4. 북한이탈주민지원 자원봉사자

본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내용을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6월. 통일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응을 아주 잘한다 ()② 적응한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응을 못한다 ()⑤ 전혀 적응을 못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요인들을 순서대로 표시해 주세요.
()① 성별 ()② 출신지역 ()③ 연령
()④ 북한 내 학력 및 경력 ()⑤ 출신성분 ()⑥ 중국 내 체류경험
()⑦ 종교 ()⑧ 가족동반여부 ()⑨ 기타()
3.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지원미흡 ()② 남한사회의 차별대우, 편견 등
()③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소극적 태도 ()④ 북한이탈주민의 능력부족
()⑤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 ()⑥ 기타()
4. 귀하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문제 ()② 가족문제 ()③ 교육문제
 ()④ 언어문제 ()⑤ 주거문제 ()⑥ 기타()

5.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정착 지원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6. 귀하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7. 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어울림 ()② 조금 잘 어울림 ()③ 중간수준임
 ()④ 조금 잘못 어울림 ()⑤ 매우 잘못 어울림

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다음 중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동료 이탈주민 ()② 보호담당관 ()③ 사회단체(자원봉사자)
 ()④ 남한 동료(친구포함) ()⑤ 사회복지기관

9.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남한사회의 이해 ()② 심리안정
 ()③ 생활 및 사교예절 ()④ 직업훈련
 ()⑤ 기타()

10.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이해 ()② 북한체제의 이해
()③ 심리적 적응 방법 교육 ()④ 남북관계의 이해
()⑤ 정착지원상의 실무절차 ()⑥ 기타()

11. 귀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현재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만족도 불만도 없음
()④ 대체로 불만 ()⑤ 매우 불만

12. 귀하가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신변보호자 ()② 사회적응 안내 및 조연자
()③ 민간단체와의 연계자 ()④ 취업알선자
()⑤ 문제해결사(일종의 패키지 서비스)
()⑥ 기타()

13. 현재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귀하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대체로 신뢰 ()③ 신뢰도 불신도 아님
()④ 대체로 불신 ()⑤ 매우 불신

1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조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되고 있음 ()② 조금 잘되고 있음 ()③ 중간수준임

()④ 조금 잘못되고 있음 ()⑤ 매우 잘못되고 있음

15. 자원봉사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심리와 지원자에 대한 불신
- ()② 북한이탈주민의 저항 및 돌출행위
- ()③ 본인의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의지 부족
- ()⑤ 기타(구체적 내용:)

16.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적
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하고 이유를 써주
세요

- ()① 예(이유는)
- ()② 아니오(이유는)

16.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하기 쉬운 업종과 직종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업종(산업의 종류) : (_____) 직종(하는 일) : (_____)
--

17.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많이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18. 귀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이 있다 () ② 조금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없다 () ⑤ 전혀 없다

19.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경우 사장(사업주) 및 동료의 태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부정적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이다

20.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인력난 때문에 () ②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 ③ 고용유지지원금(취업보호제) 때문에
() ④ 주위(신변보호, 거주보호, 취업보호담당자)의 권유에 의해
() ⑤ 기타()

21.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근로조건(임금이 적다, 거리가 멀다, 근로시간이 길다)이 맞지 않는다.
() ② 일에 대한 능력(직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힘들어 한다.
() ③ 주변사람들(직장동료, 이웃 등)과 어울리지 못한다.
() ④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차별대우 한다.
() ⑤ 사회복지적인(생계급여지원, 훈련수당지원, 교회 등에서 지원) 수혜
 로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 ⑥ 기타()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 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4.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국내입국시키 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와 같이 개인에게 맡겨둔다 ()②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바람직하지 않다 ()④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5. 거주지보호업무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6. 취업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7.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이 더 용이한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8.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 가장 용이한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기타()

2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관련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30. 다음은 통계를 위해 귀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30-1. 귀하가 봉사하는 지역 :

30-2. 귀하가 자원봉사를 담당한 기간 : 년 개월

30-3. 귀하의 성별 : 남(), 여()

30-4. 귀하의 연령 : 세

-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5. 2003년도 국민통일여론조사 Raw Table

문11. 귀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계		사례수	동포애를 느낀다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	적대감이 느껴진다	별 감정이 없다
1.9	100.0	전체	(1000)	58.0	12.9	5.5	21.7
		성별					
2.2	100.0	남	(507)	61.7	8.7	5.3	22.1
1.6	100.0	여	(493)	54.2	17.2	5.7	21.3
		연령					
3.0	100.0	10대	(99)	37.4	12.1	2.0	45.5
.0	100.0	20대	(229)	49.8	14.0	5.2	31.0
1.2	100.0	30대	(247)	67.6	12.6	1.2	17.4
3.9	100.0	40대	(207)	58.0	16.4	5.3	16.4
3.2	100.0	50대	(125)	63.2	10.4	12.0	11.2
1.1	100.0	60대	(93)	67.7	7.5	12.9	10.8
		학력					
3.9	100.0	중졸 이하	(181)	52.5	10.5	14.4	18.8
2.3	100.0	고졸	(393)	56.2	14.2	5.1	22.1
.7	100.0	전/대졸 이상	(426)	62.0	12.7	2.1	22.5
		직업					
2.5	100.0	화이트 컬러	(162)	63.0	15.4	3.7	15.4
2.4	100.0	블루 컬러	(83)	57.8	13.3	3.6	22.9
2.7	100.0	자영업	(149)	67.1	7.4	4.7	18.1
2.3	100.0	농림어업	(44)	65.9	9.1	9.1	13.6
1.4	100.0	주부	(283)	56.5	17.0	6.0	19.1
1.2	100.0	학생	(171)	45.0	11.7	3.5	38.6
		무직/기타	(108)	59.3	9.3	11.1	18.5

36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1.9	10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8)	57.6	10.2	9.3	16.9
5.9	100.0	100-199만원	(205)	61.0	11.7	4.4	22.0
1.0	100.0	200-299만원	(298)	54.7	15.4	7.0	21.1
1.7	100.0	300-399만원	(229)	55.9	14.4	2.6	25.8
1.3	100.0	400만원 이상	(129)	65.1	7.8	6.2	19.4
1.6	100.0	무응답	(21)	57.1	19.0	.0	23.8
.0	100.0						
		북한 친척 유무					
		있다	(72)	65.3	12.5	8.3	13.9
.0	100.0	없다	(928)	57.4	12.9	5.3	22.3
2.0	100.0						
		도시 규모					
		대도시	(493)	56.8	12.2	4.7	24.7
1.6	100.0	중소 도시	(433)	58.4	14.1	5.8	19.6
2.1	100.0	읍/면 지역	(74)	63.5	10.8	9.5	13.5
2.7	100.0						

문11. 귀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계	사례수	동포애를 느낀다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	적대감이 느껴진다	별 감정이 없다
1.9	100.0	전체 (1000)	58.0	12.9	5.5	21.7
.4	100.0	권역 서울 (229)	59.8	12.2	4.8	22.7
1.6	100.0	경기/인천 (250)	55.6	14.8	3.6	24.4
.0	100.0	강원 (31)	71.0	12.9	9.7	6.5
3.2	100.0	대전/충청 (95)	63.2	9.5	5.3	18.9
3.4	100.0	광주/전라 (116)	56.9	12.9	6.9	19.8
1.9	100.0	대구/경북 (106)	50.9	18.9	4.7	23.6
3.0	100.0	부산/경남 (169)	59.2	8.9	8.3	20.7
.0	100.0	제주 (4)	50.0	25.0	.0	25.0
.4	100.0	지역 서울 (229)	59.8	12.2	4.8	22.7
2.5	100.0	부산 (80)	56.3	8.8	7.5	25.0
2.0	100.0	대구 (51)	47.1	25.5	2.0	23.5
1.9	100.0	인천 (53)	49.1	7.5	3.8	37.7
3.3	100.0	광주 (30)	53.3	10.0	.0	33.3
6.9	100.0	대전 (29)	69.0	10.3	3.4	10.3
.0	100.0	울산 (21)	57.1	9.5	9.5	23.8
1.5	100.0	경기 (197)	57.4	16.8	3.6	20.8
.0	100.0	강원 (31)	71.0	12.9	9.7	6.5
.0	100.0	충북 (31)	64.5	6.5	.0	29.0
2.9	100.0	충남 (35)	57.1	11.4	11.4	17.1
2.2	100.0	전북 (45)	57.8	17.8	6.7	15.6

4.9	100.0	전남	(41)	58.5	9.8	12.2	14.6
1.8	100.0	경북	(55)	54.5	12.7	7.3	23.6
4.4	100.0	경남	(68)	63.2	8.8	8.8	14.7
.0	100.0	제주	(4)	50.0	25.0	.0	25.0
		고향 권역					
.0	100.0	서울	(155)	49.7	18.7	3.2	28.4
3.3	100.0	경기/인천	(122)	56.6	11.5	4.1	24.6
.0	100.0	강원	(61)	72.1	9.8	6.6	11.5
1.3	100.0	대전/충청	(152)	63.2	11.8	3.3	20.4
2.2	100.0	광주/전라	(178)	57.9	13.5	6.7	19.7
2.1	100.0	대구/경북	(146)	55.5	14.4	5.5	22.6
3.5	100.0	부산/경남	(172)	59.3	9.3	8.7	19.2
.0	100.0	제주	(7)	42.9	14.3	.0	42.9
.0	100.0	해외/이북/기타	(7)	71.4	.0	14.3	14.3
		고향					
.0	100.0	서울	(155)	49.7	18.7	3.2	28.4
1.4	100.0	부산	(73)	60.3	6.8	11.0	20.5
2.4	100.0	대구	(42)	54.8	11.9	2.4	28.6
3.3	100.0	인천	(30)	56.7	3.3	.0	36.7
.0	100.0	광주	(13)	38.5	15.4	.0	46.2
4.8	100.0	대전	(21)	76.2	4.8	4.8	9.5
.0	100.0	울산	(11)	54.5	18.2	9.1	18.2
3.3	100.0	경기	(92)	56.5	14.1	5.4	20.7
.0	100.0	강원	(61)	72.1	9.8	6.6	11.5
.0	100.0	충북	(45)	64.4	11.1	.0	24.4
1.2	100.0	충남	(86)	59.3	14.0	4.7	20.9
1.9	100.0	경북	(104)	55.8	15.4	6.7	20.2
5.7	100.0	경남	(88)	59.1	10.2	6.8	18.2
1.4	100.0	전북	(73)	58.9	15.1	6.8	17.8
3.3	100.0	전남	(92)	59.8	12.0	7.6	17.4
.0	100.0	제주	(7)	42.9	14.3	.0	42.9

.0	100.0	해외/이북/기타	(7)	71.4	.0	14.3	14.3
		본인 사회적 지위					
		낮은 지위	(334)	53.9	14.1	6.0	24.0
2.1	100.0	중간 지위	(537)	60.1	11.5	5.4	21.0
1.9	100.0	높은 지위	(129)	59.7	15.5	4.7	18.6
1.6	100.0						
		종교					
		기독교	(245)	62.0	12.2	5.7	18.4
1.6	100.0	불교	(228)	64.9	11.8	7.0	13.6
2.6	100.0	천주교	(85)	61.2	14.1	3.5	18.8
2.4	100.0	기타	(35)	60.0	14.3	11.4	11.4
2.9	100.0	없음	(407)	50.9	13.5	4.4	29.7
1.5	100.0						

문12. 귀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합	계	5점평균	사례수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40.7	26.8	100.0	3.1	(1000)	5.2	27.3	40.7	23.1	3.7	32.5
40.8	25.8	100.0	3.1	(507)	6.1	27.2	40.8	22.3	3.6	33.3
40.6	27.8	100.0	3.0	(493)	4.3	27.4	40.6	23.9	3.9	31.6
47.5	16.2	100.0	3.2	(99)	7.1	29.3	47.5	12.1	4.0	36.4
42.8	18.8	100.0	3.2	(229)	6.6	31.9	42.8	16.6	2.2	38.4
42.5	26.3	100.0	3.1	(247)	4.5	26.7	42.5	23.1	3.2	31.2
40.6	33.3	100.0	2.9	(207)	4.8	21.3	40.6	28.5	4.8	26.1
35.2	32.0	100.0	3.0	(125)	4.0	28.8	35.2	30.4	1.6	32.8
31.2	37.6	100.0	2.9	(93)	4.3	26.9	31.2	29.0	8.6	31.2
39.2	30.9	100.0	3.0	(181)	5.5	24.3	39.2	25.4	5.5	29.8
39.2	27.7	100.0	3.1	(393)	5.6	27.5	39.2	24.2	3.6	33.1
42.7	24.2	100.0	3.1	(426)	4.7	28.4	42.7	21.1	3.1	33.1
38.9	26.5	100.0	3.1	(162)	7.4	27.2	38.9	22.8	3.7	34.6
42.2	27.7	100.0	3.1	(83)	9.6	20.5	42.2	26.5	1.2	30.1
38.9	26.8	100.0	3.1	(149)	4.0	30.2	38.9	24.8	2.0	34.2
40.9	27.3	100.0	3.0	(44)	.0	31.8	40.9	22.7	4.5	31.8
38.5	31.8	100.0	3.0	(283)	4.2	25.4	38.5	26.1	5.7	29.7

45.0	학생	(171)	6.4	28.1	45.0	17.0	3.5	34.5
	20.5	100.0	3.2						
43.5	무직/기타	(108)	2.8	30.6	43.5	20.4	2.8	33.3
	23.1	100.0	3.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8)	2.5	28.0	30.5	33.9	5.1	30.5
30.5	39.0	100.0	2.9						
	100-199만원	(205)	5.9	27.3	42.9	20.0	3.9	33.2
42.9	23.9	100.0	3.1						
	200-299만원	(298)	5.4	25.5	42.3	23.5	3.4	30.9
42.3	26.8	100.0	3.1						
	300-399만원	(229)	5.2	22.3	46.3	23.1	3.1	27.5
46.3	26.2	100.0	3.0						
	400만원 이상	(129)	5.4	38.8	32.6	18.6	4.7	44.2
32.6	23.3	100.0	3.2						
	무응답	(21)	9.5	33.3	42.9	14.3	.0	42.9
42.9	14.3	100.0	3.4						
	복합 친척 유무								
	있다	(72)	2.8	27.8	38.9	19.4	11.1	30.6
38.9	30.6	100.0	2.9						
	없다	(928)	5.4	27.3	40.8	23.4	3.1	32.7
40.8	26.5	100.0	3.1						
	도시 규모								
	대도시	(493)	4.7	24.9	42.8	23.5	4.1	29.6
42.8	27.6	100.0	3.0						
	중소 도시	(433)	6.0	28.4	39.5	23.3	2.8	34.4
39.5	26.1	100.0	3.1						
	읍/면 지역	(74)	4.1	36.5	33.8	18.9	6.8	40.5
33.8	25.7	100.0	3.1						

370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문12. 귀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합	계	5점평균	사례수	매우		긍정적이		보통이다		부정적이		매우	
				긍정적이	다	다	다	다	다				
보통	부정적												긍정적
40.7	전체	100.0	3.1	(1000)	5.2	27.3	40.7	23.1	3.7	32.5			
40.2	권역	100.0	3.1	(229)	4.8	27.9	40.2	22.3	4.8	32.8			
40.0	서울	100.0	3.0	(250)	4.0	28.0	40.0	24.4	3.6	32.0			
35.5	경기/인천	100.0	3.1	(31)	6.5	29.0	35.5	22.6	6.5	35.5			
40.0	강원	100.0	3.1	(95)	6.3	27.4	40.0	20.0	6.3	33.7			
37.1	대전/충청	100.0	3.2	(116)	8.6	27.6	37.1	24.1	2.6	36.2			
44.3	광주/전라	100.0	3.0	(106)	2.8	25.5	44.3	22.6	4.7	28.3			
43.8	대구/경북	100.0	3.1	(169)	5.9	26.0	43.8	23.7	.6	32.0			
50.0	부산/경남	100.0	3.0	(4)	.0	25.0	50.0	25.0	.0	25.0			
40.2	지역	100.0	3.1	(229)	4.8	27.9	40.2	22.3	4.8	32.8			
45.0	서울	100.0	3.2	(80)	7.5	27.5	45.0	20.0	.0	35.0			
43.1	부산	100.0	3.0	(51)	2.0	27.5	43.1	21.6	5.9	29.4			
41.5	대구	100.0	2.9	(53)	3.8	22.6	41.5	28.3	3.8	26.4			
43.3	인천	100.0	2.9	(30)	6.7	16.7	43.3	30.0	3.3	23.3			
55.2	광주	100.0	2.8	(29)	3.4	13.8	55.2	17.2	10.3	17.2			
47.6	대전	100.0	2.7	(21)	.0	9.5	47.6	42.9	.0	9.5			
39.6	울산	100.0	3.1	(197)	4.1	29.4	39.6	23.4	3.6	33.5			
35.5	경기	100.0	3.1	(31)	6.5	29.0	35.5	22.6	6.5	35.5			
29.0	강원	100.0	3.5	(31)	16.1	38.7	29.0	16.1	.0	54.8			
	충북	100.0	3.5	(31)	16.1	38.7	29.0	16.1	.0	54.8			

37.1	충남	100.0	2.9	(35)	.0	28.6	37.1	25.7	8.6	28.6
35.6	전북	100.0	3.2	(45)	8.9	31.1	35.6	20.0	4.4	40.0
34.1	전남	100.0	3.3	(41)	9.8	31.7	34.1	24.4	.0	41.5
45.5	경북	100.0	3.0	(55)	3.6	23.6	45.5	23.6	3.6	27.3
41.2	경남	100.0	3.2	(68)	5.9	29.4	41.2	22.1	1.5	35.3
50.0	제주	100.0	3.0	(4)	.0	25.0	50.0	25.0	.0	25.0
고향 권역										
43.9	서울	100.0	3.1	(155)	3.9	29.0	43.9	20.0	3.2	32.9
44.3	경기/인천	100.0	3.0	(122)	4.9	25.4	44.3	20.5	4.9	30.3
39.3	강원	100.0	3.1	(61)	4.9	31.1	39.3	19.7	4.9	36.1
42.8	대전/충청	100.0	3.1	(152)	6.6	26.3	42.8	21.7	2.6	32.9
34.8	광주/전라	100.0	3.1	(178)	5.6	30.9	34.8	25.3	3.4	36.5
38.4	대구/경북	100.0	3.0	(146)	4.8	25.3	38.4	28.1	3.4	30.1
42.4	부산/경남	100.0	3.0	(172)	5.2	24.4	42.4	23.8	4.1	29.7
57.1	제주	100.0	3.6	(7)	14.3	28.6	57.1	.0	.0	42.9
14.3	해외/이북/기타	100.0	2.6	(7)	.0	28.6	14.3	42.9	14.3	28.6
고향 읍면										
43.9	서울	100.0	3.1	(155)	3.9	29.0	43.9	20.0	3.2	32.9
39.7	부산	100.0	3.1	(73)	6.8	24.7	39.7	26.0	2.7	31.5
38.1	대구	100.0	2.9	(42)	2.4	23.8	38.1	33.3	2.4	26.2
46.7	인천	100.0	2.9	(30)	3.3	20.0	46.7	26.7	3.3	23.3
38.5	광주	100.0	3.0	(13)	7.7	23.1	38.5	23.1	7.7	30.8
47.6	대전	100.0	3.1	(21)	14.3	14.3	47.6	14.3	9.5	28.6
54.5	울산	100.0	2.9	(11)	.0	18.2	54.5	27.3	.0	18.2
43.5	경기	100.0	3.1	(92)	5.4	27.2	43.5	18.5	5.4	32.6
39.3	강원	100.0	3.1	(61)	4.9	31.1	39.3	19.7	4.9	36.1
44.4	충북	100.0	3.2	(45)	6.7	28.9	44.4	20.0	.0	35.6
40.7	충남	100.0	3.1	(86)	4.7	27.9	40.7	24.4	2.3	32.6
38.5	경북	100.0	3.0	(104)	5.8	26.0	38.5	26.0	3.8	31.7
43.2	경남	100.0	3.0	(88)	4.5	25.0	43.2	21.6	5.7	29.5
31.5	전북	100.0	3.1	(73)	5.5	35.6	31.5	21.9	5.5	41.1

372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37.0	전남	29.3	100.0	3.1	(92)	5.4	28.3	37.0	28.3	1.1	33.7
57.1	제주	0	100.0	3.6	(7)	14.3	28.6	57.1	.0	.0	42.9
14.3	해외/이북/기타	57.1	100.0	2.6	(7)	.0	28.6	14.3	42.9	14.3	28.6
38.0	본인 낮은 사회적 지위	32.3	100.0	3.0	(334)	5.4	24.3	38.0	28.4	3.9	29.6
44.3	중간 지위	22.3	100.0	3.1	(537)	4.5	28.9	44.3	19.2	3.2	33.3
32.6	높은 지위	31.0	100.0	3.1	(129)	7.8	28.7	32.6	25.6	5.4	36.4
40.4	종교 기독교	30.2	100.0	3.0	(245)	4.5	24.9	40.4	24.9	5.3	29.4
35.5	불교	26.8	100.0	3.1	(228)	7.5	30.3	35.5	23.2	3.5	37.7
41.2	천주교	25.9	100.0	3.1	(85)	3.5	29.4	41.2	22.4	3.5	32.9
25.7	기타	42.9	100.0	2.8	(35)	2.9	28.6	25.7	34.3	8.6	31.4
45.0	없음	23.6	100.0	3.1	(407)	4.9	26.5	45.0	21.1	2.5	31.4

문13. 북한이탈주민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계	사례수	적극 돕겠다	돕겠다	관계기관 에 통보	거절하겠 다
4.9	100.0	전체 (1000)	10.2	39.3	40.5	5.1
4.9	100.0	성별				
		남 (507)	14.2	43.6	32.3	4.9
4.9	100.0	여 (493)	6.1	34.9	48.9	5.3
		연령				
5.1	100.0	10대 (99)	7.1	46.5	35.4	6.1
4.8	100.0	20대 (229)	9.2	35.4	43.7	7.0
6.9	100.0	30대 (247)	10.9	40.1	40.1	2.0
4.8	100.0	40대 (207)	7.7	36.2	45.4	5.8
3.2	100.0	50대 (125)	13.6	42.4	35.2	5.6
2.2	100.0	60대 (93)	15.1	41.9	35.5	5.4
		학력				
4.4	100.0	중졸 이하 (181)	13.3	41.4	32.6	8.3
5.1	100.0	고졸 (393)	8.7	39.2	42.2	4.8
4.9	100.0	전/대졸 이상 (426)	10.3	38.5	42.3	4.0
		직업				
3.7	100.0	화이트 컬러 (162)	9.9	37.7	43.2	5.6
9.6	100.0	블루 컬러 (83)	9.6	39.8	37.3	3.6
3.4	100.0	자영업 (149)	18.1	41.6	34.2	2.7
6.8	100.0	농림어업 (44)	4.5	59.1	22.7	6.8
5.3	100.0	주부 (283)	6.4	32.2	51.6	4.6
4.7	100.0	학생 (171)	9.9	41.5	38.0	5.8
3.7	100.0	무직/기타 (108)	13.0	45.4	29.6	8.3

37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가구 소득					
2.5	100.0	100만원 미만	(118)	14.4	40.7	33.9	8.5
7.3	100.0	100-199만원	(205)	10.7	37.1	41.0	3.9
6.0	100.0	200-299만원	(298)	7.7	36.2	44.3	5.7
3.9	100.0	300-399만원	(229)	9.2	42.4	39.3	5.2
3.1	100.0	400만원 이상	(129)	14.0	40.3	39.5	3.1
.0	100.0	무응답	(21)	4.8	57.1	38.1	.0
		북한 친척 유무					
4.2	100.0	있다	(72)	20.8	37.5	33.3	4.2
5.0	100.0	없다	(928)	9.4	39.4	41.1	5.2
		도시 규모					
3.9	100.0	대도시	(493)	8.9	39.6	42.8	4.9
5.8	100.0	중소 도시	(433)	10.9	39.7	38.6	5.1
6.8	100.0	읍/면 지역	(74)	14.9	35.1	36.5	6.8

문13. 북한이탈주민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계	사례수	적극 돕겠다	돕겠다	관계기관 에 통보	거절하겠 다
4.9	100.0	전체 (1000)	10.2	39.3	40.5	5.1
		권역				
		서울 (229)	7.4	39.3	45.0	5.2
3.1	100.0	경기/인천 (250)	14.4	38.8	36.4	3.6
6.8	100.0	강원 (31)	6.5	41.9	38.7	9.7
3.2	100.0	대전/충청 (95)	13.7	37.9	38.9	4.2
5.3	100.0	광주/전라 (116)	12.1	38.8	37.1	6.9
5.2	100.0	대구/경북 (106)	8.5	37.7	42.5	5.7
5.7	100.0	부산/경남 (169)	6.5	42.0	42.0	5.3
4.1	100.0	제주 (4)	.0	25.0	75.0	.0
.0	100.0	지역				
		서울 (229)	7.4	39.3	45.0	5.2
3.1	100.0	부산 (80)	5.0	41.3	43.8	5.0
5.0	100.0	대구 (51)	5.9	47.1	41.2	2.0
3.9	100.0	인천 (53)	18.9	30.2	39.6	3.8
7.5	100.0	광주 (30)	6.7	53.3	23.3	10.0
6.7	100.0	대전 (29)	24.1	34.5	41.4	.0
.0	100.0	울산 (21)	4.8	28.6	57.1	9.5
.0	100.0	경기 (197)	13.2	41.1	35.5	3.6
6.6	100.0	강원 (31)	6.5	41.9	38.7	9.7
3.2	100.0	충북 (31)	9.7	41.9	38.7	.0
9.7	100.0	충남 (35)	8.6	37.1	37.1	11.4
5.7	100.0	전북 (45)	11.1	35.6	46.7	4.4
2.2	100.0					

376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7.3	100.0	전남	(41)	17.1	31.7	36.6	7.3
7.3	100.0	경북	(55)	10.9	29.1	43.6	9.1
4.4	100.0	경남	(68)	8.8	47.1	35.3	4.4
.0	100.0	제주	(4)	.0	25.0	75.0	.0
		고향 권역					
3.2	100.0	서울	(155)	9.7	31.0	45.8	10.3
7.4	100.0	경기/인천	(122)	11.5	36.1	41.8	3.3
1.6	100.0	강원	(61)	13.1	47.5	32.8	4.9
3.9	100.0	대전/충청	(152)	10.5	44.1	40.1	1.3
6.2	100.0	광주/전라	(178)	10.1	43.3	37.1	3.4
6.2	100.0	대구/경북	(146)	11.0	34.9	39.7	8.2
4.1	100.0	부산/경남	(172)	6.4	43.0	41.9	4.7
14.3	100.0	제주	(7)	.0	14.3	71.4	.0
.0	100.0	해외/이북/기타	(7)	57.1	28.6	14.3	.0
		고향					
3.2	100.0	서울	(155)	9.7	31.0	45.8	10.3
5.5	100.0	부산	(73)	5.5	41.1	45.2	2.7
4.8	100.0	대구	(42)	4.8	42.9	42.9	4.8
10.0	100.0	인천	(30)	13.3	36.7	36.7	3.3
7.7	100.0	광주	(13)	7.7	53.8	23.1	7.7
.0	100.0	대전	(21)	19.0	47.6	33.3	.0
9.1	100.0	울산	(11)	9.1	36.4	36.4	9.1
6.5	100.0	경기	(92)	10.9	35.9	43.5	3.3
1.6	100.0	강원	(61)	13.1	47.5	32.8	4.9
4.4	100.0	충북	(45)	8.9	40.0	46.7	.0
4.7	100.0	충남	(86)	9.3	45.3	38.4	2.3
6.7	100.0	경북	(104)	13.5	31.7	38.5	9.6
2.3	100.0	경남	(88)	6.8	45.5	39.8	5.7
5.5	100.0	전북	(73)	8.2	47.9	37.0	1.4
6.5	100.0	전남	(92)	12.0	38.0	39.1	4.3
14.3	100.0	제주	(7)	.0	14.3	71.4	.0

.0	100.0	해외/이북/기타	(7)	57.1	28.6	14.3	.0
		본인 사회적 지위					
		낮은 지위	(334)	10.5	38.6	41.0	6.0
3.9	100.0	중간 지위	(537)	9.5	39.7	40.4	4.5
6.0	100.0	높은 지위	(129)	12.4	39.5	39.5	5.4
3.1	100.0	종교					
		기독교	(245)	10.6	42.9	39.2	3.3
4.1	100.0	불교	(228)	10.5	40.8	39.5	5.7
3.5	100.0	천주교	(85)	9.4	41.2	42.4	4.7
2.4	100.0	기타	(35)	11.4	51.4	25.7	8.6
2.9	100.0	없음	(407)	9.8	34.9	42.8	5.7
6.9	100.0						
